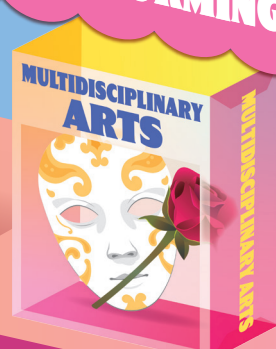


BIPAM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 국제공연 예술마켓

2025.
9. 24. WED -
9. 28. SUN

-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해운대문화회관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 #경성대학교
- #해운대해수욕장
- #KT&G삼상마당 부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이노시스** 부산문화재단 후원 **GAINSBORO** **385** **XPERT**

협력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성공단** **이노시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성대학교**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9. 24.^{WED} - 9. 28.^{SUN}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WELCOME TO BPAM! 환영사·축사	P. 4
INTRODUCTION 행사소개	P. 12
SCHEDULE 행사일정표	P. 14
VENUES 행사장소	P. 18
BPAM OPENING 비팜 개막	P. 20
BPAM OFFICIAL 비팜 오피셜	P. 22
BPAM WAVE 비팜 웨이브	P. 52
BPAM STREET 비팜 스트리트	P. 76
BPAM LINK 비팜 링크	P. 96
BPAM CONNECT 비팜 커넥트	P. 110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부산광역시장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박형준 Heongjoon Park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세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축제의 계절, 부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제3회 BPAM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은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유통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창작자와 기획자, 예술단체와 시장을 잇는 유통 플랫폼으로서 예술을 거래하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아트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예술가와 시민 등 약 5만 여 명이 BPAM을 다녀갔고, 전 세계 36개 국가와 공연유통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이 만든 오리지널 작품이 해마다 수출되어 세계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믿어왔습니다. 개인의 해석적 역량을 가장 높게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고, 공동체의 행복 또한 문화예술 속에서 구현됩니다. 부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일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물류·금융·신산업이 도시의 물질적 성장을 이끈다면, 문화예술은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차원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 중심 도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예술가가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세계와 교류하는 플랫폼, 예술이 생업이 될 수 있는 지원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를 더할수록 열기가 더하는 BPAM도 그 중심에 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관계자들이 충분히 관람하고 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초청작 수와 공연 시간을 세심히 조정했습니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과 시민회관, 해운대 일대까지 여러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예술가와 관객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공연예술은 지금 이순간, 단 한 번 존재하는 장르여서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올해도 BPAM이 준비한 공연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BPAM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Distinguished participants attending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BPAM),

The 3rd edi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BPAM), under th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has officially begun. I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Busan during this festive season, when the city i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culture and the arts. I also wish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has worked passionately to prepare the 3rd BPAM.

Since its first edition in 2023, BPAM has taken a leading role in discovering and distributing outstanding performing art works. It serves as a true “art market,” connecting creators, directors, and arts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providing a platform for artistic exchanges and growth. Last year alone, BPAM welcomed approximately 50,000 artists, citizens, and visitors, as well as established networks and partnerships across 36 countries, sharing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policies worldwide. Most importantly, original works created in Busan continue to be exported annually and reach audiences around the globe.

I have long believed that culture and the arts represent the final stage in enhancing human life and happiness. Art reflects the highest level of individual interpretive ability, while the happiness of communities is realized through culture and the arts. Developing Busan into a cultural city is an essential strategy to enrich citizens’ lives and transform Busan into a genuine global hub city. While logistics, finance, and new industries drive the city’s material growth, culture and the arts provide the foundation for

spiritual and emotional wellbeing.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ims to develop these two elements in balance with one another, cultivating Busan into a city recognized worldwide as a center for the arts. We will continue to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artists can freely create, offer platforms for global exchanges, and provide support for the arts to become a source for sustainable livelihoods.

I am confident that BPAM, growing more vibrant with each edition, will remain at the heart of this vision. This year, we have carefully adjusted the number of invited works and performance schedules to allow participants ample opportunity to view and discuss collaborations. It is also meaningful that citizens can enjoy performances in multiple neighborhoods, from the Busan Eurasia Platform and Busan Citizen’s Hall to the Haeundae area.

Performing arts are unique in that they exist only in the moment, making firsthand experiences especially beautiful and memorable. I hope you will fully enjoy the performances prepared for this year’s BPAM, and with your enthusiastic support, we will continue to grow BPAM even further in the years to come.

Thank you.

**Heongjoon Park,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오재환 Jaehwan Oh

“무대에서 피어난 예술,
세계를 향한 발걸음”

좋은 예술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흐름은 관객을 만나 감동이 되고, 다른
예술가를 만나 새로운 영감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됩니다.
2025 BPAM은 그 흐름 속에서 창작자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며
올림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BPAM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의 공연장은 국내외
연극·무용·음악·다원 등 다채로운
창작공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이곳에서는 공연예술의 오늘을
만나고, 내일을 함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BPAM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자, 부산이 글로벌 공연예술의
중요한 교차점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산은 공연예술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이 개관하고,
부산의 다양한 콘텐츠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BPAM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카데미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부산의 정체성이
담긴 고유한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생태계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외
공연예술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BPAM은 공연예술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여러분께 새로운 만남과
깊은 영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만남, 깊은 영감,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PAM에 오신 공연예술인과 시민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재환**

“Art blooming from the stage, a new
step advancing to the world.”

A good artwork does not stop there,
but it flows. That flow meets the
audience to create resonance, and
then other artists to inspire them,
further expanding its own universe.
Within such flow, the 2025 BPAM will
offer a special stage for creators to
discover each other, communicate
in their own artistic languages and
awaken resonance.

For the five days of BPAM from
September 24 to 28, under the slogan
of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theaters and performing arts spaces
throughout Busan will be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theater, dance, music,
multidisciplinary performing arts and
networking program. At the BPAM,
you could meet today’s performing
arts and imagine tomorrow together.

The 2025 BPAM focuses on the
meaningful time for international
artists to converse and search for
collaborative potential as well as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Busan
to thrive as a significant global
performing arts hub.

Indeed, Busan has been growing
as a city of performing arts, with a
recently inaugurated world-class
concert hall staging diverse Busan-
based creative contents. BPAM, which
marks its third edition this year, is also
preparing a new strategy towards the
future,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performing arts, nurturing human
resources through a specialized
academy and forming a sound
performing arts ecosystem nurturing
authentic contents incorporating
Busan’s identity.

As such, BPAM is a platform
channeling a meaningful connection
within the ongoing performing arts
flow. I aspire that the encounter here
does not merely remain a solitary
occurrence but rather the catalyst for
long-term collaborations. I also wish
you new encounters and profound
inspirations here.

I hope BPAM will give everyone
present here an unparalleled
opportunity to connect, to be inspired
and to discover the path for the future
journey. My special thanks goes to all
having worked hard to organize this
event. I extend a warm welcome to the
performing arts community and the
citizens of Busan at the inauguration
of the 2025 BPAM.

Thank you very much.

Jaehwan Oh,
CE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of BPAM

이종호
Jongho Lee

본격적인 고품격 대형축제를 지향하며

첫 번째 BPAM은 무경험을 핑계 삼아 “일단 저질러 보자”는 저돌성으로, 두 번째는 시행착오의 ‘매운맛’을 경험한 뒤의 조심스러운 속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변명거리가 없어, “삼세 번은 해봐야 안다”는 격언을 내세우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3년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지만, 어쨌거나 부산의 공연예술계 지형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수도 있는 뜻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BPAM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수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축제형 마켓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축제와 마켓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만큼 이미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BPAM 역시 시장의 기능을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시민과 전문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엄선하여, 최소 열흘 이상 부산을 정열과 환희가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BPAM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부산을 세계적 수준의 공연예술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 가동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연장과 기타 필수 시설을 포함한 일종의

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음악 전용홀과 오페라하우스에 이어 이번에는 공연예술의 인프라를 가시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BPAM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처럼, 국제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능력을 갖춘 공연기획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청년기획자는 물론, 외국의 기획자들까지 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국제공연기획 전문아카데미” 창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여러분, 그리고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장르별 감독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연예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는 닳새 동안 마련된 모든 행사를 두루 즐기시며,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PAM 예술감독 **이종호**

High hopes for an extensive and high-quality festival in full vigor

The inaugural BPAM was like, “Let us just try it!” with a bold ambition using lack of experience as a good excuse. Then the second edition went on with a cautious approach reflecting the “bitter” trial and error from the previous year. Now that we do not have a feasible excuse any more, we have prepared this year’s festival with an old saying, “Third time’s a charm.”

In retrospect, the previous 3 years were with achievements as well as many things to be desired. Still, it is fair to say that the festival continued with substantive strides potentially leading to groundbreaking innovation to the performing arts scene of Busan. Even though 3 years is not a long time, based on the experience to dat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BPAM as follows:

First, as manifested many times before, BPAM aims to be a festival-oriented performing arts market. Nowadays, it is hard to define the boundary between a festival and a market, since in most international artistic events the two elements have already been blended with each other. Therefore, BPAM will incorporate the full practical functions of an art market, while serving as a venue of a passionate and delightful festival lasting as long as 10 days or more, by meticulously selecting well-produced performing arts pieces appreciated by performing art professionals and enthusiasts as well as the general audience.

Second, BPAM is not a mere event lasting only for a given period, but should serve as a basecamp making Busan a world-class performing arts city. To this end, BPAM should develop a year-round permanent system,

then furthermore, build a center equipped with theaters and essenti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concert hall specialized in classical music and the opera house, now is the time for us to materialize substantive infrastructure for performing arts.

Third, as highlighted since the very beginning of BPAM, we should establish an academy nurturing human resources talented in a wide variety of capabilities for performing arts production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s. Again, I would like to underscore the imperative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production academy”, where young aspiring performing arts producers across Korea as well as international producers will learn and grow.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staff from Busan Metropolitan City and Busan Cultural Foundation, and directors of theater, dance, music and multidisciplinary arts for dedicating committed efforts to preparing and managing BPAM.

I hope that all the members of the performing arts community and the Busan citizens will enjoy a wide variety of stages and events for the upcoming 5 days. All the unreserved advice and critiques will be gratefully received.

Thank you very much.

Jongho Lee,
Artistic Director, BPAM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Chairperson, Busan Metropolitan Council

안성민 Sungmin Ahn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공연예술의
박람회로, 세계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입니다. 공연예술 활성화는
물론 판로 개척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부산문화재단과 참여 예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K-컬처의 세계화로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게임과 같은 디지털
문화는 물론,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한국의
위상과 문화적 영향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우리 공연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성과 장소적 제약이라는 한계로
잠재력과 가능성에 비해 그 가치가 널리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예술은 살아있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고 순간마다 빛어지는 교감과
울림으로, 어떤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닙니다. 나아가 영상
미디어가 활용하는 소재와 연출, 다양한
실험적 시도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에 그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 이러한
공연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판로
개척을 통해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며
공연예술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열정과
희망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연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창의적 활력을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성장과
도약을 기원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I wish to warmly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BPAM is an exhibition of the
performing arts, providing an
international platform where global
experts from the performing arts
sector can present and distribute
their works. This venue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not only promotes
the performing arts, but also supports
their future-oriented growth by
creating new sales channels. As such,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and support t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officials for preparing
this event.

Recently, the worldwide popularity of
K-Culture has significantly heightened
global interest in Korean culture.
Beyond digital culture, such as
music, art and games, media content
like films and TV dramas have also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As
a result, Korea's national standing
has risen and its cultural influence
continues to expand.

However, Korea's performing arts
scene has yet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global recognition. Limitations
such as mobility issues and the need
for specific spaces often hinder the
performing arts from fully showcasing
their value, despite the potential and
promise they hold. Yet the interaction
and resonance that is created with
the audience through such lively
performances makes the performing
arts unrivaled and incomparable to
any other genre. Furthermore, the
performing arts carry immense value
and meaning as they serve as a source
of subject, direction, and experimental
exploration in video media.

I look forward to BPAM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showcase the value of
the performing arts, while addressing
practical challenges through creating
new sales channels, and eventually
inspiring and encouraging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nd artists. In
addition, I hope the event provides
more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of Busan to access high-quality
performances. In doing so, it will help
broaden the cultural foundation of
the performing art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nd foster more creative
experiences.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growth
and advancement of the 2025 BPAM,
and wish every success and growth
to everyone who is involved in this
meaningful event.

Thank you.

Sungmin Ahn,
Chairperson, Busan Metropolitan
Council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행사명	2025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행사기간	2025.09.24.(수) - 09.28.(일), 5일간
행사장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경성대학교, 해운대해수욕장, KT&G상상마당 부산 등
슬로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주최/주관	부산광역시/(재)부산문화재단
후원	게인스보로, 카페385, 엑스퍼트아이엔씨(주)
협력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설공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성대학교, 페스티벌시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이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공연작품을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BPAM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감독단이 선정한 공식 초청작품, 부산지역의 예술단체와 작품을 조명하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부산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부산에서 BPAM과 함께 감동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폐막

BPAM 리셉션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참가자를 위한 환영 리셉션
BPAM 개막공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및 개막공연
BPAM 폐막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끝을 알리는 폐막식 및 폐막파티

작품공연

BPAM 오피셜	초이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전막공연
	쇼케이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쇼케이스
BPAM 웨이브	프로젝트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쇼케이스
	픽	부산 민간 공연장에서 기획하거나 제작한 우수 레퍼토리 공연
	쇼업	부산 청년예술인이 제작한 공연
BPAM 스트리트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부산거리예술축제	
BPAM 링크	9월 중 부산에서 진행되는 지역행사 연계 공연	

네트워킹

BPAM 커넥트	부스	공연예술작품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정보 교류와 협력 기회 창출
	저스트 텐미닛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
	넥스트 토크	공연예술의 전망과 유통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세미나
	오픈루프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와 협업 증진을 위한 공연예술관계자 네트워킹
	치얼스!	공연예술관계자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네트워킹 파티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Name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Date	September 24 (Wed.) - 28 (Sun.), 2025 (5 days)
Venes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itizen's Hall, Haeundae Cultural Center, Busan Eurasia Platform, Kyungsoong University, Haeundae Beach, KT&G Sangsangmadang Busan, and mor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ong Arts
Host Organizer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ultural Foundation
Sponsors	GAINSBORO, CAFE385, XPERTINC
Collaborative institutions	Busan Cultural Center,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Busan Startup Investment Agency, Kyungsoong University, Festival Shiwol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is a festival that pioneers new distribution channels for outstanding performing arts and offers citizens the opportunity to enjoy high-quality performances. It showcases works from Korea and abroad across diverse genres such as theater, dance, music, multidisciplinary arts, and street art.

Now in its third edition, BPAM presents a wide range of programs under th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including officially invited works selected by the artistic director team and performances that spotlight local arts organizations and works from Busa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Busan, a city rich in culture, and experience the inspiring moments that BPAM has to offer.

Opening / Closing

BPAM Reception	A Welcome Reception for Participants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Opening Performance	Begins with an official ceremony followed by an opening performance
BPAM Closing	Concludes with a closing ceremony and a celebratory party

Performances

BPAM Official	Choice	BPAM's Official Full-Length Invitation Selection
	Showcase	BPAM's Official Showcase Selection
BPAM Wave	Project	A Showcase Aimed at Developing Iconic Performing Arts Works Representing Busan
	Pick	Outstanding Repertory Performances Planned or Produced by Private Performing Arts Venues in Busan
	Show Up	Performances Created by Young Busan Artists
BPAM Street	Busan Street Arts Festival: Where Artists and Citizens Celebrate Together	
BPAM Link	Performances Connected to Local Events held in Busan in September	

Networking

BPAM Connect	Booth	Providing Platforms for Content Promotion,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Performing Arts Entities and Institutions
	Just 10 Minutes	One-on-One Business Meetings Between Performing Arts Company and Delegates
	Next Talk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the Future and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Works
	Open Loop	Networking Sessions for Performing Arts Stakeholders to Enhance Content Distribution and Collaboration
	Cheers!	A Space for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erforming Arts Company, Delegates, and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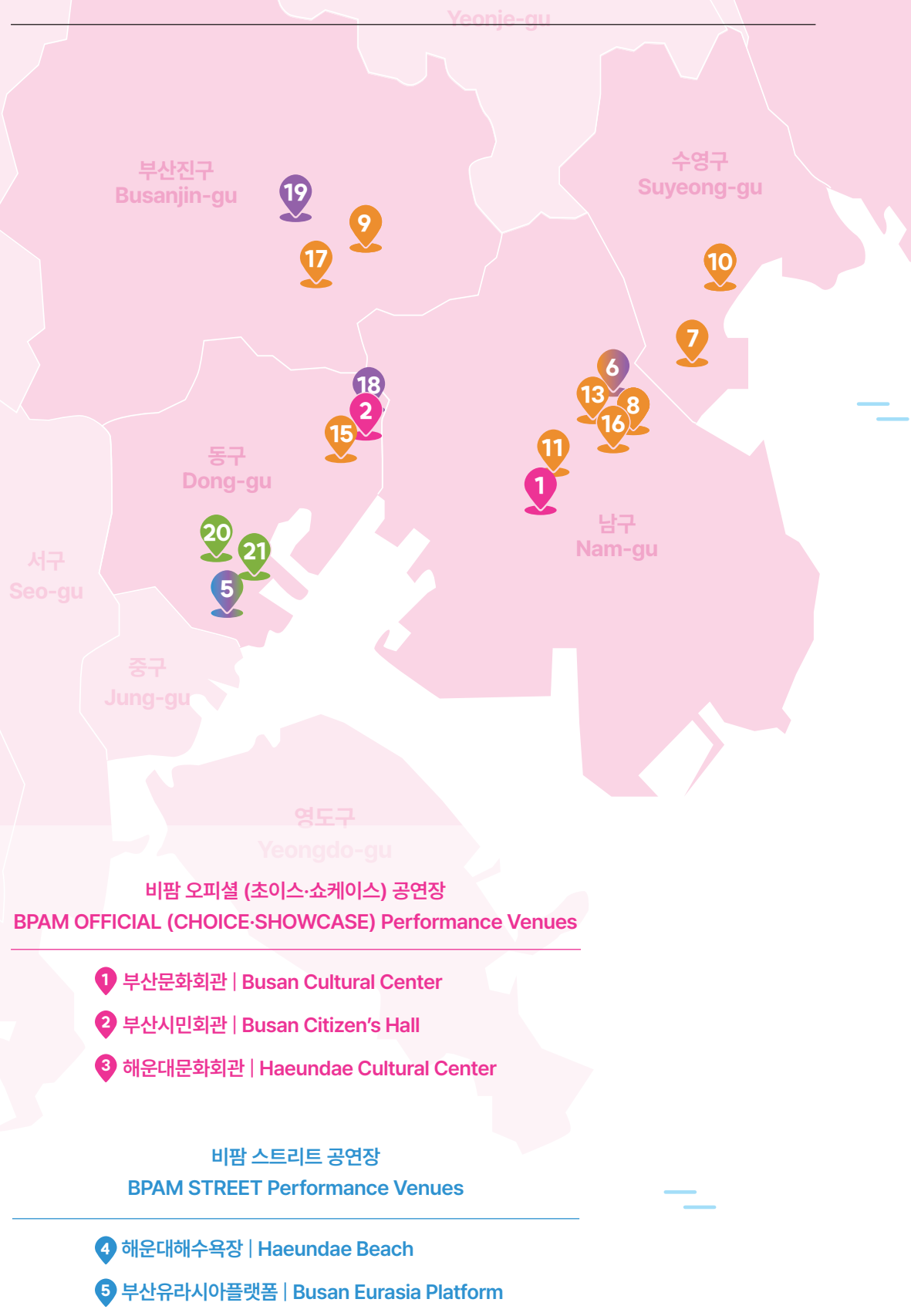
SCHEDULE(ENG)

PERFORMANCES					
VENUES	09.24.(Wed.)	09.25.(Thu.)	09.26.(Fri.)	09.27.(Sat.)	09.28.(Su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Opening Performance All Performing Arts 19:30~20:50			Choice Music Jangdan Sori : Danmyeon(斷面) Insoo Kim & Gugak Jazz Society(60) 19:30~20:30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Choice Dance Pharsalia Compañía Antonio Ruz(60) 19:30~20:30	Showcase Theater Spray Cho-in Theatre(15) 15:00~15:15 Romeo & Juliet Busan Cultural Center(20) 16:45~17:05	Showcase Music Mash Up Our Percussion(20) 14:00~14:20 Wind Dancing The Crane(25) 14:35~15:00 Endless Journey Samin Dong Rock Duo(20) 15:15~15:35 Dadaikhyun(多多益絃) : Multitude of Strings Art Platform Lab(25) 15:50~16:15 Country Gongbang Concert Country Gongbang(25) 16:30~16:55	Showcase Dance Resolution Seoul Gyobang(12) 14:00~14:12 Obscured Silence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20) 14:20~14:40 Medita Modern Table(30) 14:50~15:20 UZU (Whirlpool) Company DANZAC (20) 15:30~15:50 Gravity Ryu Jang-Hyun and Friends(25) 16:00~16:25
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Showcase Theater Anne Frank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40) 14:00~14:40 Perhaps Perhaps,... Quizás Chula The Crown(50) 15:35~16:25	Showcase Dance >"hello world"; Dab Dance Project(50) 17:00~17:50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The Distraction The Umbilical Brothers(40) 14:00~14:40 Departure Long & Short Company(20) 14:50~15:10 Juggling Theater Akira Watanabe(20) 15:20~15:40 LUMENO L'Illusion(15) 15:50~16:05 Ongals Show Ongals Co.,Ltd(20) 16:15~16:35 Carrion Justin Talplacido Shoulder(35) 16:45~17:20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Bill's 44th Dorothy James & Andy Manjuck(55) 14:00~14:55 Bill's 44th Dorothy James & Andy Manjuck(55) 19:30~20:25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Bill's 44th Dorothy James & Andy Manjuck(55) 14:00~14:55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Choice Theater Son, mother and father sit at the table and are silent for a long time ZKM Theatre(Zagrebačko kazalište mladih)(80) 19:30~20:50	Choice Theater Son, mother and father sit at the table and are silent for a long time ZKM Theatre(Zagrebačko kazalište mladih)(80) 16:00~17:20	Showcase Theater Dried Chili Peppers and a Peach Flavoured Lipstick Ballplayclub(60) 15:00~16:00

VENUES	09.24.(Wed.)	09.25.(Thu.)	09.26.(Fri.)	09.27.(Sat.)	09.28.(Su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Project Ahopsan Parknahoon Company(30) 13:30~14:00 The Last Press Big Picture Stage(30) 14:40~15:10 The Mask Play <Love and War> Haepung Theater Company(30) 17:00~17:30			Link(HOTPOT) Assimilating Hiroaki Umeda(20) 19:00~19:20 As If Snowing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65) 19:50~20:55	
Busan Eurasia Platform Outdoor Plaza				Street 15:00~19:30	Link(HOTPOT) Study for Self/Portrait 2025 Kenta Kojiri<SandD>(40) 11:30~12:10 Into Thin Air Wang & Feng(35) 12:20~12:55 Street 13:30~15:00
Haeundae Beach				Street 13:00~21:15	Street 13:00~21:05
KT&G Sangsangmadang Busan			Showup 19:00~20:50		
Private performance venues in the Busan	Pick 10 performance				
Performance venues in the Busan	Link 15 Performances (Busan Youth Fringe Alliance, Classic Busan)				

NETWORKING					
VENUES	09.24.(Wed.)	09.25.(Thu.)	09.26.(Fri.)	09.27.(Sat.)	09.28.(Su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3rd Floor Lobby	Reception 18:30~19:20				
Oase Busan					Closing 19:30~22:00
Hound Hotel Busan Station Rooftop Bar		Cheers! 20:00~23:00	Cheers! 20:00~23:00	Cheers! 20:00~23:00	
ASTI Hotel Busan Station Grand Ballroom	Booth 13:00~17:00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09		Just 10 Minutes 09:30~12:00	Just 10 Minutes 09:30~12:00	Just 10 Minutes 09:30~12:00	Just 10 Minutes 09:30~12:00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14		Next Talk 10:00~12:00 Open Loop 19:00~22:00	Next Talk 10:00~12:00 Open Loop 19:00~22:00	Next Talk 10:00~12:00	Next Talk 10:00~12:00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07, 108, 110, 111	Press Center (Room 107) / Operations Headquarters (Room 108) / Connect Zone (Room 110) / Relax Zone (Room 111) 09:00~22:00				
Busan Eurasia Platform Lobby	Information Desk / Promotion Zone / Lounge 09:00~22:00				

VENUES | 행사장소



BPAM OPENING | 비팜 개막

일시 09.24.(수) 19:30~20:5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닝타임 80분
 (개막식 30분, 개막공연 50분)

Date September 24 (Wed.) 19:30~20:50
 Venes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nning 80min.
 time (Opening Ceremony 30min.,
 Opening Performance 50min.)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은 슬로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바탕으로, 바다를 경계가 아닌 연결의 상징으로 삼아 국내외 공연 단체들이 갈라 형식으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쥬앙알스”, “김인수와 국악재즈소사이어티”, “엄빌리컬 브라더스”, “류장현과 친구들”가 함께 호흡을 맞춰 축제의 서막을 연다.

The opening performance, heralding the start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embraces th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Viewing the sea not as a boundary but as a symbol of connecti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groups will take the stage in a gala-format presentation.

This year’s lineup includes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 “Ongals Co.,Ltd”, “Insoo Kim & Gugak Jazz Society”, “The Umbilical Brothers”, “Ryu Jang-hyun & Friends”. They will be coming together to create a vibrant and captivating start to the festival.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



쥬앙알스
 Ongals Co.,Ltd



김인수와 국악재즈소사이어티
 Insoo Kim & Gugak Jazz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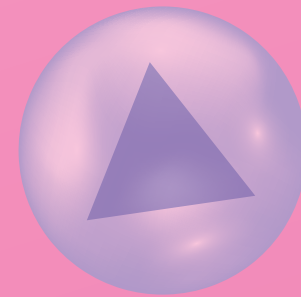


엄빌리컬 브라더스
 The Umbilical Brothers



류장현과 친구들
 Ryu Jang-Hyun and Friend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OFFICIAL

ICIAL

OFFICIAL SCHEDULE

작품 공연 PERFORMANCES			
Venue	09.24. (Wed.)	09.25. (Thu.)	09.26. (Fri.)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개막 All Performing Arts Opening Performance (80) 19:30~20:5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Choice Dance 파르살리아 Pharsalia (60) 19:30~20:30	Showcase Theater 스프레이 Spray (15) 15:00~15:15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 Juliet (20) 16:45~17:05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Showcase Theater 안네 프랑크 Anne Frank (40) 14:00~14:40 혹시 어쩌면,... 아마도 Perhaps Perhaps,... Quizás (50) 15:35~16:25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더 디스트렉션 The Distraction (40) 14:00~14:40 돌연한 출발 Departure (20) 14:50~15:10 저글링 씨어터 Juggling Theater (20) 15:20~15:40 루멘오 LUMENO (15) 15:50~16:05 웅알스 쇼 Ongals Show (20) 16:15~16:35 캐리온 Carrion (35) 16:45~17:2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Choice Theater 아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침묵 속에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Son, mother and father sit at the table and are silent for a long time (80) 19:30~20:50

09.27. (Sat.)	09.28. (Sun.)
Choice Music 장단소리 : 斷面(단면) Jangdan Sori : Danmyeon(斷面) (60) 19:30~20:30	
Showcase Music 매쉬 업 Mash Up (20) 14:00~14:20 바람의 춤 Wind Dancing (25) 14:35~15:00 끝없는 여정 Endless Journey (20) 15:15~15:35 다다익현(多多益絃) Dadaikhyun(多多益絃) : Multitude of Strings (25) 15:50~16:15 컨트리공방 콘서트 Country Gongbang Concert (25) 16:30~16:55	Showcase Dance 결 Resolution (12) 14:00~14:12 가려진 침묵 Obscured Silence (20) 14:20~14:40 메디타 Medita (30) 14:50~15:20 우주(월풀) UZU (Whirlpool) (20) 15:30~15:50 그라비티 Gravity (25) 16:00~16:25
	Showcase Dance > "헬로 월드"; > "hello world"; (50) 17:00~17:50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빌의 44번째 생일 Bill's 44th (55) 14:00~14:55 빌의 44번째 생일 Bill's 44th (55) 19:30~20:25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빌의 44번째 생일 Bill's 44th (55) 14:00~14:55
Choice Theater 아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침묵 속에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Son, mother and father sit at the table and are silent for a long time (80) 16:00~17:20	Showcase Theater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Dried Chili Peppers and a Peach Flavoured Lipstick (60) 15:00~16:00

09.25.(Thu.)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14세 이상
 6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ges 14+

파르살리아 Pharsalia



단체소개

안토니오 루스 컴퍼니는 연출가 겸 안무가 안토니오 루스가 2009년 카날 무용 센터 레지던시 수료 후 설립한 무용단으로, 몸짓을 탐색하고 예술적 연구를 수행하며 시각 예술 및 음악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범주를 초월하고자 한다. 창작 과정은 전체론적 접근을 추구하며 전체 팀원이 무대 세트와 조명부터 안무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작품이 탐색하는 주제는 몸의 감각, 모호성, 추상적 연극성 등이며, 무용단은 다방면으로 활약 가능한 무용수 겸 안무가들로 구성되어 각 작품에 깊이와 독창성을 한층 더한다. 안토니오 루스의 작품은 스페인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공연되었으며, 대표적인 다음과 같다. <No Drama>, <Recreo.01>, <Ignoto>, <Ojo> (Sasha Waltz & Guests 협업), <Libera Me!> (Vocalconsort Berlin 협업, 주요 권위 있고 유서 깊은 예술제에서 공연)

작품소개

“해방의 무기이자 어머니 절약의 수단으로서 춤을 추는 반전(反戰)의 찬가” <파르살리아>는 고대 로마 시인 마르쿠스 안나카이우스 루카누스의 고대 로마 내전을 다룬 동명의 서사시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전쟁에 관한 무용적 성찰을 고스란히 담았다. 폭력과 저항이라는 주제를 강렬한 미학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날 수 있는가? 우화적 이야기에서 열한 명의 무용수는 전쟁을 인간 문명의 것이자 심리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접근하며 위기와 폭정,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려내는데, 여기에서 인체는 투쟁과 존엄 수호의 장이 된다. 시선은 사로잡는 의상과 장엄하면서도 일렉트로닉으로 어우러진 소리경관이 강렬함을 한층 살려준다. 본질적으로 <파르살리아>는 진형 중인 전투의 포효와 같다. 다시 말해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항쟁이자 생존과 저항의 몸짓으로, 무자비함 속에서도 희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품이다.

www.antonioruz.com/en/
work/pharsalia

출연진 CAST Lucia Montes, Mado Dallery, Gonzalo Alonso, Carmen Fumero, Alicia Narejos, Selam Ortega, Isabela Rossi, Manuel Martín, David Vilarifo, Jose Alarcón, Daniel Fernández
제작진 CREDITS 연출 & 안무(Direction & Choreography)-Antonio Ruz 무대 및 의상 디자인(Set and Costume Design)-Alejandro Andujar 음악(Music)-Aire 조명 디자인(Lighting Design)-Olga Garcia - AAI 드라마트루기(Dramaturgy)-Rosabel Huguet 기술 총괄(Technical Coordination)-Tomas Charle 안무 보조(Choreography Assistant)-Begoña Quifones 제작(Production)-Pablo Villegas, Gabriel Blanco - SPECTARE 제작 보조(Production Assistant)-Andrea Méndez, 알랑 제릭(Taloring)-Esther Fiol, Rocio Pozuelo 무대 제작(Set Construction)-Technodimension 무대 장치(Machinery)-Jose Mora 의상 & 무대 소품 제작(Production of Costumes & Atrezzo)-Maribel Rodríguez, María Calderón 무대 제작 협업(Collaboration in Set Construction)-Sol Curiel 영상 제작(Video Production)-Derek Pedrós 그래픽 아이덴티티(Graphic Identity)-Toornix 사진(Photo)-Marta Alperi 사진 작업(Photo work in Progress)-Alba Muriel 홍보 영상 제작(Promotional Video Production)-David González Bermejo - 2Visual 운영 관리(Management)-Valeria Cosi - TINA Agency 공동 제작(A co-production) 카탈루냐 국립극장 및 나바라 대학 박물관(Teatros del Canal y Museo Universidad de Navarra) 후원(Support) 코르도바 대극장(Gran Teatro de Córdoba), 세비야 중앙극장(Teatro Central de Sevilla MapasFest), MapasFest 협업(Collaboration) -코솔라다 시립 극장, 산치니노 문화 센터(Teatro Municipal de Coslada & Centro Cultural Sancharino)

안토니오 루스 컴퍼니 Compañía Antonio Ruz

스페인 Spain
 참가인원 총 15명(출연자 11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5 (Performers 11 / Staff 4)
 투어인원 총 15명(출연자 11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5 (Performers 11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09 by director-choreographer Antonio Ruz after a residency at Centro de Danza Canal, the company explores movement and artistic research, aiming to transcend categor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with visual arts and music. Creation is holistic, with the team involved in all stages, from set and lighting to choreography. The works investigate themes like bodily perception, ambiguity, and abstract theatricality. Composed of versatile dancer—choreographers, the company brings depth and originality to each production. Ruz’s works have been presented across Spain, Europe, Africa, and South America. Highlights include <No Drama>, <Recreo.01>, <Ignoto>, <Ojo> (with Sasha Waltz & Guests), and <Libera Me!> (with Vocalconsort Berlin at major sacred and early music festivals).

ABOUT THE WORK

“an anti-war song to dance as a weapon of liberation and saving energy” <Pharsalia> is a choreographic reflection on war, inspired by Lucan’s epic on civil conflict in ancient Rome. It transforms violence and resistance into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asking: can beauty arise from chaos? Through allegory, 11 dancers explore war as civil, psychological, and internal—embodying crisis, tyranny, and the yearning for peace. The body becomes a site of struggle and dignity. Visually arresting costumes and a soundscape blending epic and electronic music heighten the intensity. At its heart, <Pharsalia> is a battle cry in motion—a visceral protest, a dance of survival and resistance, reminding us that hope can emerge from brutality.

09.26.(Fri.) 19: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연극 17세 이상
 09.27.(Sat.) 16:00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Theater Ages 17+
 80min.

아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침묵 속에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Son, mother and father sit at the table and are silent for a long time



단체소개

자그레브 청소년 극장은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명한 동시대연극예술 극장 중 하나로 유럽 문화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주요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설립 이래 혁신적 무대 활동 탐색, 교육, 관객층 개발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예술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기존 극장의 경계를 넘어서며 다채로운 예술 및 사회 담론에 참여하는 과감한 기획으로 독보적인 정체성을 완성했다. 레퍼토리는 모든 연령층에 호소력이 있는 세계적 고전과 현대 유럽 희곡의 동시대 감성을 통한 재해석과 신진 크로아티아 작가의 선발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그레브 청소년 극장은 작가주의 창작 연극의 활발한 플랫폼이자 크로아티아 국내 신흥 극작가의 등용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작품소개

환경과 경제가 모두 파괴되어 폐허가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이야기는 정부가 각 가정마다 여러 아이 중 어떤 아이를 살릴지 선택하라는 질문지를 돌리면서 전개된다. 부모가 결보기에는 더 사랑받는 첫째가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막내아들을 선택한 게 밝혀지면서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갈등의 폭풍이 시작된다.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고 조각조각 흩어진 대화 장면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은 해묵은 원망과 죄책감, 그리고 무조각적인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관념의 허구성을 쏟아낸다. 제목에 내포된 한 줄의 연출 지시를 제외하고는 이 작품은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대화만 오롯이 선보이며 잔혹한 가족 내 재판의 본질을 한층 더 강렬히 보여준다. 극 중 언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러내지 못한 채 분절되고 불안정하여 감정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결국 이 작품의 핵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가족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zekaem
 @zekaem
 vimeo.com/zekaem
 www.zekaem.hr/

출연진 CAST Doris Šarić Kukuljica, Sreten Mokrović, Petra Svrtn, Luka Knez
제작진 CREDITS 대표-예술감독(CEO and Artistic Director)-Snježana Abramović Miković 공연 연출(Performance Director)-Aleksandar Švabić 제작 & 투어 매니저(Producer & Tour Manager)-Nikola Beban 무대감독(Stage Manager)-Dina Ekštajn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Sandro Petrić 기술조감독(Assistant Technical Director)-Ivica Kranžić 자막 운영/기술 스태프(Subtitles Operator/Technical Staff)-Marko Godec 후원(Support)-자그레브 청소년 극장, 크로아티아 공화국 문화미디어부, 자그레브 시(ZKM Theatre, Ministry of Culture and Media of the Republic of Croatia, City of Zagreb)

자그레브 청소년 극장 ZKM Theatre (Zagrebačko kazalište mladih)

크로아티아 Croati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4명 / 스태프 9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4 / Staff 9)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4명 / 스태프 9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4 / Staff 9)



ABOUT THE GROUP/COMPANY

ZKM Theatre (Zagrebačko kazalište mladih) stands as the most prominent Croatian contemporary drama theatre and a highly active and esteemed partner on the European cultural scene. Since its founding, ZKM has consistently advanced a forward-looking artistic vision, grounded in the exploration of innovative theatrical practices, education, and audience development. Over its 75-year history, the theatre has cultivated a distinctive identity through bold programming that extends beyond conventional theatre to engage with wider artistic and social discourses. Its repertoire spans works for all generations, with a strong focus on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global classics, modern European drama, and the affirmation of new Croatian playwrighting. ZKM remains a vital platform for original authorial theatre and a launchpad for emerging Croatian theatre artists.

ABOUT THE WORK

Set in a near-future shadowed by ecological and economic collapse, this drama revolves around a government-issued survival questionnaire asking families to choose which child to save. The revelation that the parents chose the younger, troubled son over the seemingly favored eldest unleashes a storm of raw confrontation. Told through ten temporally fractured table scenes, Mother, Father, and Son unravel years of resentment, guilt, and the myth of unconditional love. With no stage directions—except one embedded in the untitled title—the play relies solely on stark, factual dialogue, echoing a brutal family tribunal. The language is spare and unsettling, exposing emotional fault lines. At its core, the work challenges us to face the most painful truth: what if love has limits?

09.27.(Sat.) 14:00/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14세 이상
 09.28.(Sun.) 14:00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ges 14+
 55min.

빌의 44번째 생일 Bill's 44th



단체소개

도로시 제임스 & 앤디 맨저크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인형극 아티스트로서 함께 협업하여 인형극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환상적이고 진지하면서도 웃음이 터지게 하는 무대로, 세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제작사 OPB는 장치와 재료, 인형 조작 기술 등의 다양한 조합의 실험을 거듭하여 의도한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놀랍고 마술과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OPB는 섬세하게 구현되고 온전히 연구된 사소한 사물조차 관객과 오롯이 의미 있는 소통을 이루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빌의 44번째 생일>은 도로시 제임스 & 앤디 맨저크가 함께 협업한 첫 작품이다.

작품소개

영국 가디언 지가 '부드럽고 아찔한 인형극의 향연'이라고 극찬한 <빌의 44번째 생일>은 어른들을 위한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지는 창작 인형극이다. 축하 공연자들은 공중에 떠 있고, 파티 음료도 준비되었으며, 먹음직한 케이크가 차려진 생일 파티. 자신의 생일이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노심초사하며 빠짐없이 준비한 빌은 초대된 손님들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파티장은 따뜻한 우정과 진심 어린 축하만 채우면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해진 빌은 난폭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대체로운 인형극 기법의 향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풍선과 어우러지는 날것의 고삐 풀린 유머를 통해 목표가 좌절될 때 초조해지는 인간의 본성과 외로움의 놀라운 본질, 대사가 필요없는 시간의 흐름의 보편적인 경험을 섬세하게 고찰한다.

@bills44th
 @bills.44th
 www.bills44th.com

출연진 CAST 인형극 아티스트(Puppeteers)-Andy Manjuck & Dorothy James, Jon Riddleberger
제작진 CREDITS 창작(Created by)-Andy Manjuck & Dorothy James 공동창작(Devised by)-Andy Manjuck & Dorothy James with Jon Riddleberger 오리지널 음악(Original Score by)-Eamon Fogarty 조명 디자인(Lighting Design by)-Caitlin Smith Rapoport 인형 디자인(Puppet Design by)-Dorothy James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 by)-Andy Manjuck 제작 코디네이터(Production Coordinator)-Taryn Uhe 드라마투르그(Dramaturg)-Helena Pennington 추가 무대 & 소품(Additional Scenic & Prop Elements by)-Peter Russo, Joseph Silovsky, & Taryn Uhe 제작 및 초연(Commissioned and Premiered by)-릭스 플레이스(Dixon Place) 지원(Support)-짐 헨슨 재단(Jim Henson Foundation), 제롬 힐 재단(Jerome Foundation),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 New York), 뉴욕시 문화부(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단독 에이전시(Exclusive Representative)-엘시 매니지먼트(Elsie Management)

09.27.(Sat.)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음악 8세 이상
 60min.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Music Ages 8+

장단소리 : 斷面(단면) Jangdan Sori : Danmyeon(斷面)



단체소개

타악기 연주자 김인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으로, 전통과 창작, 현대음악,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첫 단독 콘서트인 '김인수의 장단소리 : 正面'을 열었고 대중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제3회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론티어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는 한국 전통음악, 재즈, 그리고 다양한 세계 음악 언어를 융합한 혁신적인 공연 예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장단소리 : 斷面>은 전통 장단을 다양한 '면'으로 나누고 재조합해, 장단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연이다. 국악기와 재즈 트리오, 무용과 판소리가 어우러지며, 지역과 장르를 넘나드는 장단의 단면들이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삼도장단소리>, <월산가>, <동해 Trance>, <칠채아리랑>, <운명>의 다섯 곡을 통해 장단이라는 리듬 언어를 해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전통이 지닌 다층성과 그로 인한 감각의 확장을 관객에게 제시한다.

@kiminsoo_percussion

출연진 CAST 장구 & 타악(Janggu & Percussion)-김인수(Insoo Kim) 피아노(Piano)-조미나(Mina Cho) 흥과리(Kkwaenggwari)-성유경(Yugyeong Seong) 징(Jing)-황규창(Gyuchang Hwang) 북(Buk)-김주호(Juho Kim) 드럼(Drum)-김영진(Yeongjin Kim) 더블베이스(Double Bass)-송미호(Miho Song) 보컬(Vocal)-이나라레(Narae Lee) 피리 & 태평소(Piri & Taepyeongso)-이나연(Nayeon Lee) 아쟁(Ajeng)-김창다운(Chamdawoon Kim) 해금(Haegum)-고수정(Soojeong Ko) 무용(Dance)-황태민(Taein Hwang), 이도윤(Doyun Lee), 박소영(Soyoung Park)
제작진 CREDITS 제작(Production)-아델라이데 뮤직프로덕션(Adelaide Music Production) 연출(Director)-김인수(Insoo Kim)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조철민(Chulmin Cho) 크루(Crew)-신희준(Heejon Shin), 정명원(Myoungwon Jeong)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김영민(Youngmin Kim)

김인수와 국악재즈소사이어티 Insoo Kim & Gugak Jazz Societ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9명(출연자 14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19 (Performers 14 / Staff 5)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Insoo Kim is a member of National Gugak Orchestra, active in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traditional Korean to original compositions, contemporary and applied music. His first solo concert in 2024, <Jangdan Sori : Jeongmyeon>, received an enormous amount of favorable acclaim from the audience as well as "Porsche Frontier Awards" of the 3rd Seoul Arts Awards. Kim is now committed to nurturing young artists at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ugak Jazz Society aims to develop innovative performing arts converging a wide variety of international musical languages from traditional Korean music to jazz, continuing many collaborative projects.

ABOUT THE WORK

<Jangdan Sori : Danmyeon>, divides and recomposes the rhythms of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into a wide variety of "sides", exploring the new potential of such rhythms. Diverse performances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a jazz trio, dances and pansori form an intriguing harmony, while the multi-faceted stage expression of such cross sections or sides of rhythms crossing local and generic boundaries unfolds. Five pieces of <Samdo Jangdan Sori (Echoing Rhythms of Three Provinces)>, <Wolsan-ga>, <Donghae Trance>, <Chilchae Arirang> and <Unmyeong (Destiny)> deconstruct and restructure the rhythmic language of the Korean traditional rhythms, offering the audience the multiple layers of traditional arts as well as the resulting sensory expansion.

09.25.(Thu.) 1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12세 이상
40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ges 12+

더 디스트렉션 The Distraction



단체소개

데이빗 콜린스와 셰인 던더스의 엄빌리컬 브라더스는 피지컬 슬랩스틱과 언어의 유머가 독특한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온 코미디 듀오이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지의 연예계의 가장 창의적인 100대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1999 우드스톡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스티븐 콜버트의 투나잇 쇼 등 주요 무대를 포함한 40여 개국에서 공연하였다. 엄빌리컬 브라더스의 작품은 연극 무대, 영화, TV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업사이드 다운 쇼, 메이지, 디즈니의 Book of Once Upon A Time 등에 참여했다.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했으며 동영상 조회수는 매일 1백만이 넘고 있다. 그리고 BAFTA 2회, 에미상, 호주 로지상, 헬프먼상 각 1회, 그리고 다수의 MO상을 수상하여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인정받았다. 이처럼 비평가와 일반 관객이 두루 찬사를 보내는 기발하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희극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소개

엄빌리컬 브라더스의 <더 디스트렉션>은 장르의 경계를 해체하는 하이 텐션 라이브 코미디 쇼로서, 슬랩스틱, 마임, 인형극, 보컬 사운드 효과 등이 고스란히 담긴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 위의 공연은 그린 스크린, 웹캠, 멀티 카메라, 소스, 노트북 컴퓨터, 실시간 영상 편집 등의 그래픽 기술이 한데 융합되어 있다. 본 공연 시작 전부터 신선한 충격을 주는 한미디로 시작하며 멀티 화면의 통합된 실시간 프로젝션으로 우주 비행사부터 도심의 거리까지 고스란히 뒤쫓는 연쇄 초현실 코미디에 피스드의 향연에 관객은 금세 빠져들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전자 장치의 기술적 문제를 절묘하게 유머로 승화하거나 일부 관객을 참여시키는 등 아무런 금기나 없는 과감한 공연을 통해 혼란스러우면서도 정교하게 안무를 설계한 희극 장면을 연출해낸다. 현대인의 화면 중독을 풍자하는 작품으로서 첨단 기술을 창작의 매체이자 웃음의 근원으로 삼으며 단 60분의 시간 동안 현대 사회에 시의적절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웃음을 일으키는 작품을 구성하였다.

f The Umbilical Brothers **출연진 CAST** David Collins, Shane Dundas

@UmbilicalBrothers **제작진 CREDITS** 시각 효과(Visual Effects)-Doug Bayne 매니지먼트(Management)-에이 리스트 엔터테인먼트
linktr.ee/UmbilicalBrothers 오스트레일리아(A List Entertainment Australia)
www.umbilicalbrothers.com

엄빌리컬 브라더스 The Umbilical Brothers

호주 Australi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The Umbilical Brothers—David Collins and Shane Dundas—are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comedy duo known for their unique blend of physical and vocal comedy. Named among Entertainment Weekly's "100 Most Creative People in Entertainment," they've performed in over 40 countries, from Woodstock '99 to the Sydney Opera House and The Tonight Show with Stephen Colbert. Their work spans stage, film, and TV, including The Upside Down Show, Maisy, and Disney's The Book of Once Upon A Time. Their fanbase ranges from toddlers to college students, and their videos attract over a million monthly views. Awards include two BAFTAs, an Emmy, a Logie, a Helpmann, and multiple MO Awards. Critics and audiences alike praise their inventive, cross-generational comedy.

ABOUT THE WORK

The Umbilical Brothers - <The Distraction> is a high-energy, genre-bending live show. Packed with slapstick, mime, puppetry, and vocal sound effects, the performance integrates green screens, webcams, multiple cameras, laptops, and live video editing. Audiences are welcomed with pre-show one-liners, then invited into a whirlwind of surreal sketches—from astronauts in space to city streets—all synced with real-time projections. The brothers play off-the-cuff with tech glitches and audience volunteers, creating chaotic but tightly choreographed comedy scenes. The show satirizes our "screen addiction," turning technology into both a creative tool and a comedic focal point, delivering modern yet timeless hilarity in just 60 minutes.

09.25.(Thu.) 14:5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전체관람
20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돌연한 출발 Departure



단체소개

일장일단 컴퍼니는 공연창작자이자 퍼포머인 이대열의 1인 극단이다. 거리 요요 퍼포머로 예술 활동을 시작해 인형극, 클라운 등으로 관심을 확장해온 이대열은 가벼운 형식 속에 진중함을 담은 작품을 지향한다. 대표작으로는 <줄로 하는 공연>, <돌연한 출발>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2019 춘천인형극제 국내 경연 부분 대상, 2024 아시테지 코리아 겨울 축제 심사위원 특별상, 2024 창동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 작품상, 베스트 퍼포머상을 수상한 실력자이다.

작품소개

프란츠 카프카의 짧은 글, '돌연한 출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토마타 말(馬) 인형, 가슴을 뛰게 하는 테크노음악,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 그저 달리고자 하는 한 인간의 순수한 꿈과 역경을 환상적으로 표현한다. 공연자는 카프카의 글을 낭독하고 인형극을 시작하는데, 인형극의 내용은 단순하다. 말을 타고 달리는 한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린다.

@longshort.company **출연진 CAST** 이대열(Daeyeol Lee)

제작진 CREDITS 세트디자인(Set Design)-마린보이(Marineboy) 음악감독(Music Director)-준도(Jundo), 이원홍(Wonhong Lee)

일장일단 컴퍼니 Long & Short Compan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Long & Short Company is a one-man theatrical company of a stage creator and performer Daeyeol Lee. Starting his artistic career as a street yo-yo performer, Lee has expanded his own interest into many other things including puppets and clowns, in order to create a piece incorporating sincerity inside the light and casual form. <A Show with Strings> and <Departure> are some of his representative works. Staging a wide variety of works, the talented artist received the Grand Prize from the Domestic Competition of the 2019 Chuncheon Puppet Festival, the Special Jury Prize from the 2024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the Best Production Prize and the Best Performer Prize from the 2024 Changdong Performing Arts Festival.

ABOUT THE WORK

Inspired by Franz Kafka's short story <The Sudden Walk>, the work uses nothing more than a horse automata moving automatically, exhilarating techno music, light and shadow, fantastically portraying someone who only desires to run and the hardships coming across that innocent dream. Reading words from the story written by Kafka, a performer begins the puppet show, whose plot is rather simple: there is a person over there who is riding a horse ceaselessly until the end of the show.

09.25.(Thu.) 15:2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전체관람
20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저글링 씨어터 Juggling Theater



단체소개

교토 대학을 졸업한 와타나베 아키라는 대학 재학 시절 저글링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직업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케다 요스케와 듀엣 공연으로 시작해서 세련된 테크닉과 시선을 사로잡는 무대 위 존재감으로 인지도를 높여갔다. 정밀한 컨트롤과 유연한 몸짓, 그리고 밝은 미소의 잊을 수 없는 존재감으로 생방송, 창작 무대 공연,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현장에서 종횡무진하며 활약해왔다. 모든 관객층에 친숙하게 다가오며 시선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는 다양한 연령대에 두루 호소력이 있다. 현재 와타나베 아키라는 일본에서 오래 사랑받는 교토 논버벌 퍼포먼스 쇼 GEAR의 출연진으로 활동하며 저글링 코너에서 기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활력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작품소개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는 공연자가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근사한 실크모자를 쓰고, 우아한 지팡이를 들고, 꼭 맞는 맞춤 정장을 차려 입고 클래식한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와타나베 아키라는 단지 저글링만 하는 게 아니라 판토마임과 리듬, 몸짓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객을 매료시키는 융합적 무대를 선사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속사포처럼 빠른 저글링 무대와 표현이 강렬한 스토리텔링, 절묘한 희극적 타이밍 구성이 한데 어우러진 창작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을 웃음이 몰입시킨다. 즉흥적 재치와 활력을 더하는 공연자의 절묘한 관객 소통이 감동을 일으키며, 역동적인 안무는 매 순간에 환희를 일으킨다. 우아한 몸짓과 유쾌한 유머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모든 연령대와 문화권에 상관 없이 두루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예술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실 새 없이 웃음을 자아낸다.

@jugglerakirarara

출연진 CAST 공연자 & 스태프(Performer & Staff)-Akira Watanabe

@jugglerakira
www.w-akira.com

와타나베 아키라 Akira Watanabe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A graduate of Kyoto University, Akira Watanabe discovered his passion for juggling during his college years, eventually turning it into a professional career. He began performing as part of a duo with Yosuke Ikeda, gaining recognition for his stylish technique and charismatic stage presence. Known for his precise control, fluid movements, and ever-present refreshing smile, Watanabe has performed across a wide range of platforms—including live events, theatrical productions, and educational workshops. His accessible and captivating performance style resonates with audiences of all ages. Currently, he is a featured cast member in the acclaimed long-running non-verbal performance GEAR in Kyoto, where he brings energy and artistry to the show's juggling segment, continuing to push the boundaries of his craft.

ABOUT THE WORK

A charismatic performer steps into the spotlight, clad in a silk hat, elegant cane, and impeccably tailored costume, immediately commanding attention with an air of classic charm. What unfolds is not just a juggling act, but a captivating theatrical experience that seamlessly blends pantomime, rhythm, and movement. This original performance weaves rapid-fire juggling sequences with expressive storytelling and comedic timing, keeping the audience engaged from start to finish. The performer's skillful interaction with the crowd adds an extra layer of spontaneity and excitement, while the dynamic choreography transforms each moment into a visual delight. With its perfect fusion of sophistication and playful humor, this act transcends age and language barriers, delivering a show that is both artistically refined and endlessly entertaining.

09.25.(Thu.) 15:5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전체관람
15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루멘오 LUMENO



단체소개

엘일루전은 'Limitless Illusion'을 비전으로 삼아 '환상'을 언어로 다원예술을 창조한다. 대표작으로는 우주를 탐사하는 몰입형 다원예술작품 SF드라마 <엣지>, 극 속 세계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마술이 매력적인 퍼포먼스극 드라마틱 매직 씨어터 <마술>, 실존했던 과학자이자 마술사인 로베르의 이야기를 그린 환극 <랜턴> 등이 있는데, 장르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환상이라는 언어를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환상'을 탐구하고 현실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작품과 퍼포먼스를 창작한다.

작품소개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내려친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왜 여길 향해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로지 빛과 어둠, 그리고 나만이 있을 뿐. 빛은 기억의 파편, 감정의 흐름, 정체성의 단서가 되어 잊힌 나 스스로의 조각을 찾고, 맞춰나가게 한다. 때로는 어둠이 나를 방해하고 괴롭혀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태초의 어둠과 태초의 빛은 항상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나타나 나를 가르며 스며든다. 나는 무엇일까. 빛과 어둠은 왜 나를 향해 내려치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결국 깨닫는다. 빛과 어둠,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걸.

나는 '루멘오'.
빛이었다.

@l1lusion

www.l-illusion.com

출연진 CAST 임태홍(Taehong Li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임태홍(Taehong Lim) 조명디자인(Light Design)-이영준(Youngjun Lee)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이수민(Sumin Lee) 소품장치제작(Builder)-전민규(Mingyu Jeon) 모션그래픽(CG)-박기준(Kijun Park)

엘일루전 L'illusion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1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 1 / Staff 4)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3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3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L'illusion, driven by its vision of "limitless illusions," creates multidisciplinary works through the medium of illusion. Its notable productions include <Edge>, an immersive sci-fi drama on space exploration; <Magic>, a theatrical journey across multiple universes; and <Lantern>, an illusionary play portraying scientist-magician Etienne-Gaspard Robert. Constantly transcending conventional genres, L'illusion weaves the language of illusions through the convergence of arts and technologies, exploring the borders of reality and presenting its own extraordinary vision of "magical realism".

ABOUT THE WORK

In the beginning, from the darkness the light strikes. I have no idea where I was from or why I came all the way here. There's nothing more than the light, the darkness, and myself. The light serves as the clue of fragmented memories, emotional flows and my own identity, allowing me to find my own lost and forgotten pieces and pull them together. Sometimes the darkness interrupts and bothers me until I lose track of my own light. Nevertheless, darkness as well as light from the very beginning suddenly emerge from nowhere I know, split and permeate into myself. Then who am I? Why do light and darkness strike towards me? However, I'd eventually realize. Light and darkness, everything is what I have been creating by myself. I am "Lumeno". The light, indeed, was I.

09.25.(Thu.) 16:15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전체관람
20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옹알스 쇼 Ongals Show



단체소개

2007년 KBS에서 방영된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와 동명의 팀으로 시작하여 같은 뜻을 지닌 개그맨들이 모였다. 외국인,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를 겪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통역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께를 나란히 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언 코미디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대사 없이 오로지 비트박스, 저글링, 마임 등의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제작을 모토로 하고 있다.

작품소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옹알스쇼>는 25개국 52개 도시 투어로 검증된 한국 최고의 언버벌 코미디 공연이다. 4명의 배우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을 재미있게 풀어낸 코미디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공연이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 있다. 무대 중앙에 올려져 있는 토이박스 안의 장난감들은 웃음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 즐거움, 행복, 희망, 추억들과 함께 그 시절 그 추억으로 되돌아간다.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은 즐겁기만 하다.

@ongals_official 출연진 CAST 조수원(Suwon Cho), 조준우(Junwoo Cho), 채경선(Kyungsun Chae), 최기섭(Kiseop Choi)
www.ongals.co.kr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이경섭(Kyungsub Lee)

(주)옹알스 Ongals Co.,Ltd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Inaugurated in 2007 as an eponymous team named after a comedy sketch from a TV comedy show Gag Concert of Korea's national broadcaster KBS, Ongals is composed of comedians sharing the same vision. Ongals started with the commitment to creating a stage that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ies, physically disabled people as well as all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culturally isolated people can watch without an interpreting service—a nonverbal comedy that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n join hand-in-hand to watch together. Without words, only based on nonverbal performances such as beatbox, juggling and pantomime, Ongals aims to create a comedy allowing all the people regardless of genders and ages to understand it and laugh.

ABOUT THE WORK

Ongoing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7, <Ongals Show> is one of Korea's most popular nonverbal stage comedy shows. Its tour across 52 cities of 25 countries manifests its popularity. 4 performers humorously portray the world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hild, which is well-received by the audience of all ages and genders, since nothing is indecent or inappropriate for anyone there. Everyone has their own happy childhood when everything was a joy to them. The items inside the toy box displayed at the center of the stage remind the contemporary people, who have been losing their childhood smiles, of many things. Along with the childhood nostalgia, joy, happiness, hopes and memories, the show allows us to travel back to the old memories. The world, seen from the children's perspective, has nothing other than the childlike joy.

09.25.(Thu.) 16:45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원 15세 이상
35min. Busan Citizen's Hall, Small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Ages 15+

캐리온 Carrion



단체소개

팜스마해머라는 이름을 쓰는 저스틴탈플라시도 솔더는 변신에 가까운 신기한 이크로바틱 동작을 선보이는 셰이프시프팅아티스트이자 스토리텔러로서 퍼포먼스와 조각, 비디오아트, 협업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쿼어코드로 재해석할 수 있는 선조들의 신화를 생태적 우주론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페르소나와 수제작 특수 의상, 의수족, 그리고 독특한 비언어적 동작 언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옷이 담아낸다. 공연자들의 신체와 자체 제작 장치들을 형이상학적 도구로 활용하여 쿼어 필리핀계 사람들의 미래주의를 구현하는데, 특히 무대퍼포먼스를 난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동체적 치료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에서 극장, 나이트클럽까지 다양한 공연 현장을 중형무진하며 파리 팔레트 도코, 프라하 퀴드라엔날레, 자카르타 현대동시대 미술관(MACAN), 미국 퓨즈박스 페스티벌, 영국 피어스 페스티벌 등 세계 여러 주요 무대에 섰다. 평단의 찬사를 받은 대표작 중 <캐리온>과 <아니토>는 호주 로어징 페스티벌과 M/F 시드니 페스티벌, MOFO 페스티벌의 제작 의뢰 및 지원을 받았고 2025년 유럽 투어를 목표로 한다.

작품소개

만약에 인간이 힘을 쓰면 그대로 세상을 비틀어 변형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저스틴 탈플라시도 솔더의 1인 퍼포먼스극 <캐리온>은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몸짓 언어를 활용하여 끝없이 형태가 변하는 포스트휴먼 괴물을 선보인다. <캐리온>의 퍼포먼스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서 영감을 얻어 상상한 고고학적 현장의 폐허 속을 떠돌며 괴잉의 시대 특유의 모방과 소비, 가상의 영웅에 대한 숭배 등의 동시대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오브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쿼어/성소수자들과 선조들의 오래된 신화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해체하며, <캐리온>은 우리 안의 변신의 가능성을 옷이 보여준다. <캐리온>의 감미로우면서도 환상적인 무대는 장엄한 의식이자 새로운 탄생,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같으며, 현실 자연 세계와 퍼포먼스, 정체성,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매력적이고 공감각적인 재해석을 선사한다.

@phasmahammer 출연진 CAST Justin Talplacido Shoulder
@insitearts 제작진 CREDITS BPAM 무대 제작진(Production Staff for BPAM) 작곡 & 사운드(Composer & Sound Operation)-Corin Iletto 조명(Lighting Operator)-Niccolo Gallio 제작(Produced by)-Jason Cross at Insite Arts 작품 제작진(Show CREDITS) 연출 & 공동 기획(Directed, Performed and Co-conceived)-Justin Talplacido Shoulder 프로덕션 디자인(Production Design)-Matthew Stegh and Justin Talplacido Shoulder 작곡(Composer)-Corin Iletto 멘토, 공동 안무(Mentor + Co-choreographer)-Victoria Hunt 의상 & 세트 디자인 보조(Costume & Set design assistance)-Anthony Aitch, Marty Jay, Nick Wishart 조명 디자인(Lighting Design)-Benjamin Cisterne 음향 마스터링(Sound Mastering)-Bob Scott 제작(Produced by)-Jason Cross at Insite Arts
insitearts.com.au/projects/carrion phasmahammer.com/carrion

저스틴 탈플라시도 솔더 Justin Talplacido Shoulder

호주 Australia (Filipino Australian)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1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 1 / Staff 3)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1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 1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Justin Talplacido Shoulder, also known as Phasmahammer, is a shape-shifting artist and storyteller working across performance, sculpture, video, and collective events. Their practice weaves queered ancestral myth into alter personas, costumes, prosthetics, and gestural languages, envisioning queer Filipinx Futurism. Using body and craft as metaphysical tools, they see performance as communal medicine. Their work has appeared at Palais de Tokyo (Paris), Prague Quadrennial, Museum Macan (Jakarta), Fusebox Festival (USA), and Fierce Festival (UK). Acclaimed works include <Carrion> and <Anito>, touring Europe in 2025

ABOUT THE WORK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in an age where our impact reshapes nature itself? <Carrion>, a solo performance by Justin Talplacido Shoulder, introduces a post-human specter that shape shifts through multiple forms and languages. Wandering an archaeological site driven by nostalgia, <Carrion> unearths objects that spark revelations about simulation, consumption, and worship in an age of excess. Drawing on queer and ancestral mythologies, the work collapses past and future, revealing the transformations within us. Both tender and fantastical, <Carrion> is a rite, a rebirth, and a speculation—offering a mesmerizing, multi-sensory reimagining of the natural world and what performance, identity, and being can become.

09.26.(Fri.) 14: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연극 8세 이상
40min. 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Theater Ages 8+

안네 프랑크 Anne Frank



단체소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은 2004년 창단 이래 배우 중심의 무대예술을 지향해왔다. 창작극, 국제 교류, 시민 참여형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안네 프랑크>, <마이 디어, 헬렌>, <병어리 삼룡이> 등의 레퍼토리를 축적해 왔다. 미국 뉴욕, 콜롬비아, 콜롬비아, 인도, 일본 등에서 비언어극 위주의 초청 공연을 진행했으며,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연극 제작,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 활동 등 연극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품소개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 나치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은신처에 머물고 있던 13세 소녀 안네 프랑크는 가족 및 동료들과 함께한 은신 생활을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키티'라 칭한 일기장에는 약 2년간의 고립과 불안, 하지만 소중한 기쁨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안네 프랑크>는 빛과 소리가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무언의 몸짓과 시각적 상상력으로 전하는 비언어극이다.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heater.bkg

출연진 CAST 김미미(Mimi Kim), 최우준(Woojun Choi), 김진주(Jinju Kim), 김선현(Sunhyun Kim), 엄지영(Jiyoung Eom), 김정식(Jungsik Kim), 이유진(Yoojin Lee), 박복남(Boknam Park), 유수진(Suwoon Park), 홍승호(Seungho Hong), 강경일(Kyungil Kang), 박민정(Minjeong Park), 김대원(Daewon Kim), 박신영(Shinyoung Park)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이지숙(Jisook Lee) 기획(Promoter)-성현무(Hyunmu Seong)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서자경(Jakyung Seo) 드라마투르그(Dramaturg)-오지훈(Chiwoon Oh) 연출(Director)-주혜자(Hyeye Ju) 조연출(Assistant Director)-박정아(Jungah Park) 안무(Choreographer)-이동원(Dongwon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손희승(Hiseung Son) 무대디자인(Stage Design)-황경호(Kyungho Hwang)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이영석(Youngsuk Lee)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하솔(Haseul Lee)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박정아(Jeongah Park) 음악감독(Music Director)-이영재(Youngjae Lee) 제작감독(Production Director)-최장배(Jeongbae Choi) 소품(Props)-김윤정(Yunjeong Kim) 의상(Costume)-황성원(Sungwon Hwang) 사진(Photograph)-박종훈(Jonghun Park)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7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7 (Performers 10 / Staff 7)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10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4, has aimed to create an actor-centered stage. Incorporating a wide variety of works from original pieces to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itizen participatory stages, the company's repertoire includes <The Diary of Anne Frank>, <My Dear, Helen> and <Mute Samryongi>. The company's mostly nonverbal invitational performances have been staged in New York and Cleveland, the USA, Colombia, India and Japan, to name a few, while it also participated in the Avignon OFF Festival. Its continuous pursuits of projects concern collaboration of artis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public responsibility-focused stage production engaging citizens' participation, artistic activities for the social minorities and the marginalized people, and social expansion of theatrical plays.

ABOUT THE WORK

In 1942, when the Second World War was still going on, 13-year-old Anne Frank, hiding herself in a "shelter" to avoid Nazi persecution of Jews, wrote her daily accounts on her life in the shelter with her family and colleagues. The letter-like journal she kept in her diary she named "Kitty" thoroughly embodies the 2-year-long isolation, anxiety and trivial but invaluable delights she experienced there. <Anne Frank> is a nonverbal theatrical play conveying the exquisite narrative of those never abandoning dreams and hopes even in the space hardly allowing any light or sound through muted bodily movements and imaginative visual expressions.

09.26.(Fri.)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극 12세 이상
15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Theater Ages 12+

스프레이 Spray



단체소개

2003년 창단 후 꾸준히 연극 무대만의 특별한 언어를 만드는 데 집중해 온 극단 초인은 영화, TV 드라마와는 다른 연극만의 표현 방식과 상상력을 찾는 작업에 변함없이 몰두하고 있다. 극단 초인은 무대라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배우의 움직임과 영상 이미지, 오브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무대언어를 창조한다. 이러한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초인'의 배우들은 기술 스태프와 함께 분장부터 의상, 소품, 무대장치까지 직접 만들고 사용하며 수정하는 끊임없는 연구 과정을 거친다. 무대 위에서 연기만 하는 배우를 넘어 작품을 함께 창작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중요시한다.

작품소개

<스프레이>는 201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초청작으로 선정된 뒤 박정의 연출에게 "올해의 연출가상" 및 2019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시안 아츠 어워드 "작품 기술상"과 "연출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최첨단의 '3D 프로젝션 맵핑 영상'과 공간의 창의적 활용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스프레이>는 만 12세 이상 관람 가능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이면서 주인공이 처음으로 훔치는 남의 택배이자, 고유의 체취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현대 도시민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물건이다.

@chointheatre_

blog.naver.com/chointheatre

출연진 CAST 이상희(Sanghee Lee), 김정아(Jeonga Kim), 김영건(Younggun Kim), 한다희(Dahee Han), 박현숙(Hyunsook Park), 이세훈(Saehoon Lee), 유수진(Soojin Yoo), 황성민(Seongmin Hwang)

제작진 CREDITS 원작(Original)-김경욱(Kyungwook Kim) ▶ 2014 문학과 지성사 '소년은 늙지 않는다' 수록(2014 MOONJIL 'Boys Are Not Old' included) 연출(Director)-박정의(Cheongye Park) 영상(Project Mapping Video)-배윤경(Yunkyoung Bae), 강태우(Taewoo Kang) 조명(Lighting)-박연용(Yeonyong Park), 김수원(Suwon Kim), 김진권(Jinkwon Kim) 작곡(Composer)-조선형(Sunhyung Cho) 음향(Sound)-김병준(Byoungjoon Kim), 김민정(Minjeong Kim), 김성연(Seongyeon Kim)

극단 초인 Cho-in Theatr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5명(출연자 8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5 (Performers 8 / Staff 7)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8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8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Cho-in Theatre, founded in 2003, is dedicated to shaping a unique theatrical language that pursues expression and imagination beyond film or television. Convinced that the stage's spatial and temporal limits can inspire richer imagery, the company creates new stage vocabularies through the interplay of actors' movements, video, and objects. Together with technical staff, its actors research, test, and refine every element—from makeup and costumes to props and stage structures. More than performers, the actors embrace the role of artists, collaborating in the creation of each work as a whole.

ABOUT THE WORK

<Spray> was invited to the Domestic Program of the 2018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Director Cheongye Park received its prize "Director of the Year", while the Asian Arts Award of 2019 Edinburgh Festival Fringe gave the piece "Best Technical Production" and "Best Direction" prizes. Rated for the audience aged 12 and more, the cutting-edge video techniques of 3D projection mapping and creative use of the space of <Spray> attracted overseas attention. "Spray" is the first item the protagonist steals from the parcel delivered to another person, as well as the key eponymous device used in order to hide the unmistakable body odor, also symbolizing life of the contemporary urbanites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ies.

09.26.(Fri.) 15:35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연극 12세 이상
50min. 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Theater Ages 12+

혹시 어쩌면,... 아마도 Perhaps Perhaps,... Quizás



단체소개

가브리엘라 무뇨스는 연극부터 서커스, 오페라까지 다채로운 무대 공연예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런던 국제 공연예술 학교(LISPA)에서 프랑스의 전설적인 무대 몸짓 교육 전문가 자크 르코크의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런던 피지컬 시어터 학교에서 2년의 학사 후 과정 및 1년 과정을 마쳤다. 2010년에 발표한 최초의 독자적인 클라운 쇼 <혹시 어쩌면,... 아마도>는 이후에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중국,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 스코틀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전 세계 여러 클라운 쇼 및 연극, 공연예술 축제에 진출했다. 이후 대표작으로는 <Dirt!>, <The Silence of Sound(지휘자 알론드라 데 라 파라 협업)>, <Julieta>가 있다.

작품소개

한 번해서 잘 안됐다면 다시 도전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1인 클라운 쇼 <혹시 어쩌면,... 아마도>는 사랑과 고독,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심금을 울리면서도 웃음을 자아낸다. 항상 희망에 차 매주 자신의 결혼식을 상상하며 연습하는 낭만주의자 그레타는 완벽한 생의 단편을 만날 꿈에 한껏 빠져 있다.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로 인류가 무심해지고 진정한 소통은 한층 더 희귀해진 요즘, 결혼식을 매주 장엄한 의식처럼 열심히 연습하는 그레타의 모습은 감동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피지컬 코미디와 취약함과 절박함의 표현을 통해 그레타는 사랑과 인정, 또는 실존하는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얼마나 사람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고 의심이 싹트는 순간에 질문이 자리잡는다. 그레타는 오늘 밤엔 '이상향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Facebook Chulatheclown
Instagram @chulatheclown
chulatheclown.com/en/showseng/
perhaps-perhaps-quizas/
www.auroranova.org/archive/perhaps-perhaps-quizas/

출연진 CAST Gabriela Muñoz

제작진 CREDITS 기술 스태프(Technician)-Gemma Raurell Colomer 창작 & 연출 & 공연(Creator & Director & Performer)- Gabriela Muñoz 제작(Producer)-Show Pony 의상 디자인(Costume Design)-Valentina Muñoz 미술 & 세트 디자인(Art & Set Design)-Gabriela Muñoz and Valentina Muñoz 영상(Video)-Marion Sosa 음악(Music)-Ernesto Paredano 에이전시(Agency)-아우로라 노바(Aurora Nova)

광대 출라 - 가브리엘라 무뇨스 Chula the Clown - Gabriela Muñoz

멕시코 Mexico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Gabriela has a variety of experience in theater, circus and opera. She finished her studies at the London International School of Performing Arts (LISPA) based on Jacques Lecoq's pedagogy, following a 2-year postgraduate course and a year course at the School of Physical Theatre in London. In 2010, she created <Perhaps, Perhaps,... Quizás>, her first clown show. Since then it has been performed around the world to various clown and theater festivals in America, Australia, Brazil, Canada, Colombia, Czech Republic, Chin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Italy, Lithuania, Mexico, New Zealand, Romania, Scotland, Spain, Sweden and UK. Her further works include <Dirt!>, <The Silence of Sound (together with conductor Alondra de la Parra)> and <Julieta>

ABOUT THE WORK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Perhaps, Perhaps,... Quizás> is a heart-wrenching yet hilarious solo clown performance that explores themes of love, loneliness, and longing. At its center is Greta, a hopeful romantic who rehearses her wedding every week, clinging to the dream of finding her perfect partner. In a world where digital distractions numb us and genuine connection feels rare, Greta's ritual becomes both touching and absurd. Through physical comedy, vulnerability, and a dash of desperation, she reveals the emotional weight of waiting—for love, for validation, for something real. As time ticks on and self-doubt creeps in, the question remains: will tonight be the night she finds "the one"? Or will she be left wondering, Perhaps, Perhaps... Quizás?

09.26.(Fri.) 16:4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극 8세 이상
2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Theater Ages 8+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 Juliet



단체소개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포함한 7개의 공연장, 2개의 전시실, 아카데미 및 연습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 및 제작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품소개

부산 청년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아나는 불멸의 사랑 이야기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기회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신진 예술인들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창작 역량을 키워왔다. 올해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한 창작 연극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부산 출신의 청년 배우 및 제작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직접 각색과 연출을 맡아, 고전 속 사랑 이야기를 오늘의 청년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예정이다.

Instagram @bsculturalcenter_official
www.bscc.or.kr

출연진 CAST 강규민(Gyumin Kang), 권해원(Haewon Kwon), 김비재(Beechae Kim), 김승원(Seungwan Kim), 김시아(Sia Kim), 김유민(Yumin Kim), 김유빈(Yubin Kim), 김정민(Jeongmin Kim), 김현준(Hyunjun Kim), 박규환(Kyuhwan Park), 박영정(Myoungjung Park), 박유진(Yujin Park), 서보기(Bogi Seo), 안혜은(Yeseun Ahn), 윤영식(Yeongsik Yun), 이사라(Sarah Lee), 이수현(Soohyun Lee), 이명준(Myungjun Lee), 임수연(Sooyeon Lim), 장재석(Jaeseok Jang), 전용근(Yongkyun Jeon), 하다현(Dahyun Ha)
제작진 CREDITS 연출 & 재구성(Director & Adaptation)-김지용(Jeeyong Kim) 작곡(Composer)-전현미(Hyunmi Jeon) 안무(Choreographer)-김시진(Shyujin Kim), 조한배(Hyunbae Jo) 무대디자인(Stage Design)-황지선(Jisun Hwang)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김현진(Hyunjin Kim) 분장(Makeup)-이지원(Jeewon Lee)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조세현(Sehyun Cho) 음향디자인(Sound Design)-이호원(Howon Lee) 조연출(Assistant Director)-이현우(Hyunwoo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이상호(Sangho Lee)

09.28.(Sun.) 1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연극 15세 이상
60min.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Theater Ages 15+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Dried Chili Peppers and a Peach Flavoured Lipstick



단체소개

연극은 어른이 하는 공놀이, 공놀이클럽
2018년에 창단한 젊은 연극창작집단, 공놀이클럽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민을 유쾌하게
다룬다. 미학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과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는 영어덜트 관객이아말로
공놀이클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다. 최근 다양한
연극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놀이클럽은 한국 영어덜트 연극의 대표주자로 거듭나는
중이다. 오늘도 공놀이클럽은 어린이들의 진지한 장난 같은,
청(소)년들의 남몰래 하는 고민 같은, 조금 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는, 연극을 만든다.

작품소개

공놀이클럽의 대표작이자 2024년과 2025년 각종 연극상을
휩쓸 화제의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은
공놀이클럽이 추구해 온 놀이성과 수행성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네 명의 배우는 각자 하나의 배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 내내 서로의 의상을 바꿔입으며
장난스럽게 배역을 교차한다. 자신의 배역에서 다른
배역이 되어보는 '의상 갈아입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트랜스젠더와 같은 타자에 대한 입장과 가부장제와 같은
세계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오직 연극만이 줄 수 있는
감각적이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이 작품은 사회적
윤리와 올바름에 대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_ballplayclub

출연진 CAST 김솔지(Solji Kim), 남재국(Jaekook Nam), 류세일(Seil Ryu), 박은경(Eungyeong Park)

제작진 CREDITS 극작(Writer)-서동민(Dongmin Seo) 연출(Director)-강훈구(Hoongu Kang) 드라마투르그(Dramaturg)-김지혜(Jihye Kim) 무대감독(Stage Manager)-김동영(Dongyoung Kim)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경은(Kyungeun Lee)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조은실(Eunsil Jo) 소품디자인(Props Design)-이예원(Yewon Lee)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장한별(DayDay)(Hanbyul Jang(DayDay)) 조연출(Assistant Director)-전준규(Jungu Jeon) 기획(Promoter)-고소미(Somi Go)

공놀이클럽 Ballplayclub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4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4 / Staff 7)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4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4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Theatre is a ball game for grown-ups – Ballplayclub.
Founded in 2018, Ballplayclub is a young theater
collective that playfully explores the questions and
concerns of contemporary children and youth. Young
adult audiences who pursue aesthetic innovation and
engage with fundamental questions of self and society
make ideal partners for Ballplayclub. Ballplayclub,
drawing the attention of critics and audiences alike, is
emerging as a leading figure in contemporary Korean
young adult theater. Today, Ballplayclub continues
to create plays that offer unique and transformative
experiences.

ABOUT THE WORK

Ballplayclub's flagship production, <Dried Chili Peppers
and a Peach Flavoured Lipstick>, swept multiple
theater awards in 2024 and 2025. The work fully
embodies the troupe's signature playfulness and
performativity. In this play, the four actors constantly
switch costumes throughout the performance, playfully
exchanging roles in a way that blurs boundaries and
expectations. This recurring "costume-switching"
encourages reflection on otherness—including issues
of gender identity—and challenges societal structures
such as patriarchy. Through a uniquely theatrical and
unforgettable experience, the play offers a quiet yet
sharp critique of social ethics and correctness.

09.27.(Sat.)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 전체관람
2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Music All Ages

매쉬업 Mash Up



단체소개

2019년 창단된 아우어 퍼쿠션은 '타악기'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악기와 소리를 연구하고, 젊은 연주자만의 열정과 상상력을
더하는 다각적인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 창작 음악, 대중음악, 재즈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광범위한 연주 활동을 통해 폭넓은 관객층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소개

<Mash Up>은 악기가 가진 캐릭터를 끄집어낸 후, 그것을
뒤섞어 하나로 만드는 연구이자, 다양한 작품을 통해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가지 면모를 관객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에
본 작품은 시대와 국가의 구분 없이, 타악기의 다양한 소리와
연주자의 역동적인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 관객의
가슴을 두드린다. 더 나아가, 다양하게 뒤섞이는 소리의 무대,
타악기의 화려함이 폭발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our.percussion

@OURPERCUSSION
www.ourpercussion.com

출연진 CAST 퍼커션(Percussion)-우리(Lee Woo), 이세영(Seyoung Lee), 강다애(Daae Kang), 이장용(Jangyong Lee), 이안드레(Andre Lee), 김태영(Taeyoung Kim)

아우어 퍼쿠션 Our Percussion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19, Our Percussion researches a wide
variety of musical instruments and sounds focusing on
"percussions", exploring into multifaceted experiments
complementing enthusiasm and imaginative creativity
of young performers. Mainly based on the Western
classical music, a wide variety of stage activities across
the boundaries of genres from contemporary original
compositions to pop music and jazz allow the band
to receive positive feedback from the audience of all
ages, genders and backgrounds.

ABOUT THE WORK

<Mash Up> is an experimental research that extracts
the key characters of musical instruments, restructures
and blends them together, sharing with the audience
the thousands of undiscovered aspects of percussion
through a wide variety of numbers. The repertoire
crosses the temporal and national borders and only
focuses on the varying sounds of the percussion
instruments and dynamic expression of the performers,
further exciting the audience. Furthermore, varying
blends and harmony of the sounds as well as explosive
glamor of the percussive sounds unfold on the stage.

09.27.(Sat.) 14:3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 전체관람
25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Music All Ages

바람의 춤 Wind Dancing



단체소개

크레인인 전통 장구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독창적 구성의 퓨전 앙상블이다. 전통 국악의 호흡과 리듬, 재즈의 즉흥성, 클래식적 서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크레인인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외 음악제에서 주목받고 있다.

작품소개

장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악기들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이 펼쳐진다. The Crane의 <Wind Dancing>은 전문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전통의 숨결을 간직한 장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리듬과 재즈, 클래식, 월드뮤직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신선하면서도 감동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깊이 있는 연주력과 섬세한 앙상블로 완성된 이 작품은 국내외 음악제에서 많은 이의 이목을 끄는 퓨전 공연이다.

출연진 CAST 장구(Janggu)-안유진(Yujin An) 바이올린(Violin)-조혜운(Hyewoon Cho) 색소폰(Saxophone)-이병주(Byungjoo Lee) 피아노(Piano)-민주신(Jusin Min) 베이스(Bass)-김대경(Daekyung Kim)

제작진 CREDITS 음악감독(Music Director)-이병주(Byungjoo Lee) 작곡(Composer)-민주신(Jusin Min), 김대경(Daekyung Kim)

크레인 The Cran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5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5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5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5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The Crane is a fusion ensemble with a unique structure, focusing on the traditional janggu (Korean traditional hourglass-shaped double headed drum), along with the violin, the saxophone, the piano, and the bass. Creating an extraordinary musical landscape formed by the intrinsic traditional Korean flows and rhythms, spontaneity of jazz, and the narrative of the Western classical numbers, and crossing conventional boundaries of genres, the Crane has received attention from music festivals in and out of Korea.

ABOUT THE WORK

<Wind Dancing> of the Crane, an ensemble focusing on the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janggu, stages an extraordinary musical landscape formed by the harmony of a wide variety of musical instruments, receiving acclaim as "an exquisite harmony of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music" from professional critics. The extraordinary sounds formed by the intricate harmony of the Korean traditional rhythms, jazz, Western classical and world music, focusing on the traditional rhythms reserved by the janggu, offer the audience unexpected as well as unforgettable musical experiences. Meticulous performances with artistic depths and the sophisticated harmony of the ensemble make the piece a well-organized stage of fusion music receiving positive attention from the world of music in and out of Korea.

09.27.(Sat.) 15:1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 전체관람
2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Music All Ages

끝없는 여정 Endless Journey



단체소개

삼인동락 듀오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와(2025-2027 Génération SPEDIDAM 선정자) 프랑스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시몽 마리가 결성한 한불 듀오이다. 이정주는 전통의 뿌리 위에 동시대적 실험을 더 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고, 시몽 마리는 앙리 텍시어, 디디에 말레르브 등과 활동하며 프랑스 월드-재즈 씬에서 활약해 왔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두 명의 음악가는 각자의 문화적 뿌리와 장르적 색채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음향 세계를 창조한다. 이들의 음악은 재즈의 자유, 록의 에너지, 전통음악의 깊이를 융합되었다.

작품소개

프랑스문화부 지원 선정작인 <Voyage sans Fin(끝없는 여정)>은 단지 낯선 이방인이나 망명자의 여정이 아니라, 인간 경험을 담은 보편적인 은유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긴 등반을 반영하며, 고난과 넘어짐, 다시 일어섬,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 되살아나는 기억과 우리 모두가 겪는 복잡한 감정들—희망, 두려움, 욕망, 자유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명확한 길을 보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질문하는, 이상한 세계에 갇힌 앨리스의 이야기와도 같다. 결국 이는 벽 너머 빛을 향한 끝없는 추구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다.

📧 @ejeoungju

📺 @EJeoungJu

www.ejeoungju.com/

samindongrock

출연진 CAST 거문고(Geomungo)-이정주(Jeoungju Lee) 콘트라베이스(Contrabass)-시몽 마리(Simon MARY)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한국의 불 협회(Spring of Korea Association), 스테판 아니죤(Stéphane Anizon) 작곡(Composer)-이정주(Jeoungju Lee) 편곡(Arranger)-시몽 마리(Simon Mary) 음향감독(Sound Director)-조나탕 마코즈(Jonathan Marcoz) 영상감독(Visual Director)-Hugo LE BAILL 사진(Photograph)-Rébecca / RBKRECORDS 후원(Support)-스페디담 - 프랑스 실연예술가 저작권 징수-분배 협회: 공연예술가의 권리(SPEDIDAM - Les Droits des Artistes-Interprètes)

삼인동락 듀오 Samin Dong Rock Duo

프랑스 France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Samin Dong Rock Duo is a French-Korean ensemble formed by geomungo player Jeoungju Lee, based in France and selected for the "Génération SPEDIDAM Musiques du Monde 2025-2027," and French double bassist Simon Mary. Lee has built her unique musical world by blending traditional roots with contemporary experimentation, while Mary has been active in the French world and jazz scenes, collaborating with artists such as Henri Texier and Didier Malherbe. Bridging East and West, tradition and modernity, these two musicians create a rich and diverse sonic landscape rooted in their distinct cultural backgrounds and genres. Their music is a fusion of jazz freedom, rock energy, and the depth of traditional music.

ABOUT THE WORK

Supported by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Voyage sans Fin> is not only the journey of a stranger or exile, but a universal metaphor for the human experience. Step by step, it reflects the long climb of life — moments of struggle, falling and rising again, the fleeting coolness of a breeze, memories stirred, and the complex emotions we all face: hope, fear, desire, and freedom. It is the story of walking forward without clear sight, questioning where we are and what we seek, like Alice lost in a strange world. Ultimately, it is about the endless pursuit of light beyond the wall — a journey shared by everyone.

09.27.(Sat.) 15:5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 전체관람
25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Music All Ages

다다익현(多多益絃) Dadaikhyun(多多益絃) : Multitude of Strings



단체소개

아트플랫폼랩은 장르와 매체의 경계를 넘는 예술 실험을 통해 동시대의 감각과 표현을 탐구하는 창작자 중심 예술단체이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질문하고 실험하며, 예술을 통한 새로운 시대 감성과 사회적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작품소개

<다다익현> 비올라 다모레라는 고악기를 중심에 두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음악 언어를 엮어 다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적 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공연은 악기 간의 물리적 협업을 넘어 음악 간, 문화 간 교감을 이끌어내는 장으로써,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artplatformlab

출연진 CAST 비올라다모레(Viola d'amore)-최현정(Hyunjung Choi) 정가(Jeongga)-김나리(Nari Kim)
드럼(Drum)-김홍기(Honggie Kim) 전통타악(Korean Percussions)-장재효(Jaehyo Chang) 재즈베이스(Jazz
Bass)-구교진(Kyojin Koo) 기타(Guitar)-김수유(Suyu Kim)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er)-최현정(Hyunjung Choi)

아트플랫폼랩 Art Platform Lab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Art Platform Lab conducts artistic experiments crossing boundaries of genres and media, as a creator-centered art organization exploring the sensations and expressions of the contemporary world. Artists from varying backgrounds gather to pose questions, try experiments and look for discovering new sentiments of the time and finding the potential of social communication through arts.

ABOUT THE WORK

Focusing on the baroque musical instrument viola d'amore, <Dadaikhyun : Multitude of Strings> is a project weaving together the musical languages of th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worlds as well as of Asian and Western musics, thereby creating a polyphonic and sensational space of music. Reaching beyond physical collaboration of diverse musical instruments, the project aims to offer the new potential of contemporary arts by drawing the full communion between different musics and cultures.

09.27.(Sat.) 16: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 전체관람
25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Music All Ages

컨트리공방 콘서트 Country Gongbang Concert



단체소개

컨트리공방은 2023년 미국 IBMA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한 팀에게 수여하는 International Band Performance Grant를 수상하였고 9월 롤리에서 열린 'World of Bluegrass'에 유일한 아시아 팀으로 참가했다. 이후 2024년에는 'Grand Ole Opry', 'Station Inn', 'Greyfox Bluegrass Festival', 'ROMP Festival', 'Frankfort Bluegrass Festival', 'CBA Father's Day Bluegrass Festival' 등 전설적인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2025년에는 2주간의 일본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3 Sister Festival'을 비롯해 2주간의 미국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작품소개

컨트리공방의 음악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의 경계선에서 탄생했다.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블루그래스 음악을 근간으로,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 개개인의 색채가 더해졌다. 2018년 발매된 1집에서는 기존의 블루그래스 음악에 대한 존경과 오마주를 표현했고, 이후 2022년 발매된 2집 타이틀곡 <버섯꾼> 중간의 푸가, <작은창>에 등장하는 피들과 베이스의 이중주에서는 블루그래스 위에 클래식한 사운드를 덧칠했다. <축복길> 전주의 피들과 <Voyage to Raleigh>의 메들리 형식에서는 아이리쉬 음악을, <초상>의 7박에서는 모던함을, <물기 어린 꿈>에서는 K-pop의 사운드를 입혔다. 전통과 강렬한 실험정신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컨트리공방의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컨트리공방 Countrygongbang **출연진 CAST** 피들(Fiddle)-윤종수(Jongsu Yoon) 밴조(Banjo)-장현호(Hyunho Jang) 만돌린 & 보컬(Mandolin & Vocal)-김예빈(Yebin Kim) 기타(Guitar)-원선재(Sunjae Won) 베이스(Bass)-송기하(Keeha Song)
@countryrb
www.countrygongbang.com

컨트리공방 Country Gongbang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Country Gongbang received International Band Performance Grant in 2023, which is given to only one band outside the US by the IBMA (The International Bluegrass Music Association), an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participated as an only Asian team in the World of Bluegrass hosted in Raleigh. In 2024, the band played on the many legendary stages, including 'The Grand Ole Opry', 'The Station Inn', 'Grey Fox Bluegrass Festival', 'ROMP Music Festival', 'Frankfort Bluegrass Festival' and 'CBA Father's Day Bluegrass Festival'. In 2025, having returned from a two-week long tour in Japan, the band plans to embark on another 2-week long tour across the US in October, including 'The 3 Sisters Bluegrass Festival'.

ABOUT THE WORK

Country Gongbang stands at the crossroads of tradition and fearless innovation. Rooted in bluegrass, each member's unique artistry adds depth. Their 2018 debut paid homage to classic bluegrass, while the 2022 album expanded with classical and diverse sounds: a fugue in <The Mushroom Hunter>, a fiddle-bass duet in <Small Window>, Irish echoes in <Blessed Journey> and <Voyage to Raleigh>, modernity in the seven-beat <Portrait>, and K-pop tones in <Dream to Summer>. Experience their stage where tradition and bold experimentation coexist.

09.28.(Sun.)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전체관람
12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ll Ages

결 Resolution



단체소개

서울교방은 교방굿거리춤 지킴이 김경란 선생과 70여 명의 제자로 구성된 전통 춤 수련터이자 네트워크 단체이다. 권번명인 김수악, 조갑녀, 장금도의 춤 맥을 올곧게 이어오고 있는 서울교방은 전통 계승에 있어서는 발효 수련, 동공수련으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공연에 있어서는 가장 혁신적인 사고를 표방한다. 대중적 전통을 실현하기 위해 브랜드 공연을 창조적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어 가히 깨어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소개

<결>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전달이 아닌 '기(氣) 에너지'와 생명의 체현인 '神明(神明)'의 발현을 주축으로 시나위적 안무 형식을 펼친다. 다시 말해 전통 춤 기반의 '수직과 수평의 공간성', '중첩과 양감의 시간성', '압축된 밀도와 기운생동의 운동성'을 바탕으로 하되 신명과 해학을 담은 서사와 움직임의 역사를 풀어내어 고정된 표현 방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춤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서울교방

출연진 CAST 정연희(Yeonhee Jung), 김미선(Miseon Kim), 김부경(Bugyung Kim), 서정숙(Jungsook Seo), 이상연(Sangyun Lee), 정희선(Heesun Jeong), 유영란(Youngran You), 김희진(Heejin Kim), 강선미(Seonmi Kang), 김윤정(Yeunjung Kim), 박현미(Hyeonmi Park) **장구(Janggu)**-김연수(Yeonsu Kim) **구름(Vocal)**-김보라(Bora Kim)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김경란(Gyungran Kim) 안무 & 연출(Choreographe & Director)-김지영(Jeeyoung Kim)

서울교방 Seoul Gyobang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5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15 (Performers 13 / Staff 2)

투어인원 총 15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5 (Performers 13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Seoul Gyobang is a training center of traditional dance and a networking group composed of its representative Kim Kyung Ran and her 70 students. Inheriting and preserving the essence of the traditional gwonbeon dance masters, namely Suak Kim, Gabnyeo Jo and Geumdo Jang, Seoul Gyobang remains being a staunch conservative keeper of tradition and maintains strict training methodologies.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the public stage performance, the team opts for more innovative approaches than any others. Having developed a brand of the repertoire through creative approaches realizing the tradition that is also popular, now Seoul Gyobang is acclaimed as an open-minded traditional dance team.

ABOUT THE WORK

Resolution does not merely aim to convey a visually beautiful stage. Rather, with an objective to reveal the spiritual energy of qi (氣) and godly energy enabling the experience of life, the traditional dance company adopts the choreographic structure of Sinawi, a traditional Korean music from the rites of shamanism. In other words, basically based on "the spatial property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vision", "the temporal property of juxtaposition and sense of volume" and "mobile property of condensed density and dynamic vitality" found in traditional Korean dance, the narrative and history of bodily movement unfold through incorporation of vitality as well as humor. Above all, the team aims to escape the expected conventional methodologies of expression and expand the stage into the place for the dance completely free from any limits or boundaries.

09.28.(Sun.) 14:2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전체관람
2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ll Ages

가려진 침묵 Obscured Silence



단체소개

현대무용단 자유는 1995년 창단된 전문 무용 단체이다. 부산에 거점을 두고 꾸준히 창작활동을 해왔으며 매해 새롭고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여 왕성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자연을 거름 삼아 부산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여러 장소에서 야외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내실을 다져 무용계와 문화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한다. 이에 본 단체는 현대무용의 기초 작업과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출하고, 무용계와 문화계 소통의 장으로서 부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무용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한다.

작품소개

현대인들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은 말하는 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간다. 결핍이 아닌 과도함이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나의 세상은 조용하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결을 물러서 타인과 사회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신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당장 그 입을 닫기만 한다면..."

@dancecompany_jayu

출연진 CAST 이연주(Eonju Lee), 하주은(Jueun Ha), 강선미(Sunmi Kang), 최혜빈(Hyebin Choi), 김다영(Dayoung Kim), 박지현(Jihyeon Park), 김나연(Nayeon Kim)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안선희(Sunhee An), 이연주(Eonju Lee), 하주은(Jueun Ha) 작곡(Composer)-황세민(Semin Hwang)

현대무용단 자유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7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7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 is a professional dance organization founded in 1995. Consistently pursuing its creative career, the Busan-based company has been continuously active and trying a wide variety of repertoire every time. Using many outdoor locations, striking a harmony between the beautiful nature and specialties of Busan, as the stage, the company aims to further develop its capability to be an established organization contributing to the culture of dance. Furthermore, the company has an ambitious vision of developing the basic foundation of contemporary dance and further creating a new art form, serving as the platform for communication of the world of dance, art and culture, so that it could expand its activities outside Busan and throughout Korea and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the world of dance.

ABOUT THE WORK

The contemporary people are living with the flood of words. Such an excessive amount of unrefined words is indiscreetly proliferated regardless of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speaker. As such, excess, rather than deficit, ends up making us fi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ruth from the falsity. Therefore, when we feel that way, it would be wiser to talk less. Indeed, my world is rather quiet. Forcing silence in the noisy world means encouraging ourselves to step a little back from their own position and observe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ciety attentively. "You could become a little better than what you are like now, once you shut your mouth right now..."

09.28.(Sun.) 14:5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전체관람
3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ll Ages

메디타 Medita



단체소개

“눈에 보이는 음악, 귀에 들리는 무용”을 추구하는 모던테이블은 해석 없이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움직임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노래하는 무용수가 등장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등 관객에게 공감각적 경험과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발상과 실험적인 작품으로 국내외 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모던테이블은 다방면에서 특별하다. 역동적인 움직임 속 한국적인 선이 돋보이는 남성 무용단의 춤으로 한국 무용 단체 최초로 러시아 체홉국제연극제에 초청받았다. 또한 영국 런던 더플레이스 극장, 동유럽 최대 야외 축제인 헝가리 시켓 페스티벌 등 전 세계 30여 개 도시를 투어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다크니스 폼바>, <속도>, <햄베스>, <Breathing Attack>, <시나위>, <Men of Steel> 등이 있다.

작품소개

“치유와 맛을 향한 몸의 따뜻한 향연” 폭발적이고 와일드한 에너지를 선보였던 모던테이블의 기존 작품과 달리 24년 신작 초연된 <메디타>는 명상적 이미지를 전제로, 치유와 맛에 대한 춤, 그것에서 비롯된 힘의 흐름과 모습, 강함과 약함 사이에 머무는 힘을 유연하게 그려냈다. 각종 자극에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명상 센터 및 자연의 소리를 찾는 등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사회 현상에 주목하여, 조금씩 번져나가는 부드러운 움직임과 자연을 닮은 평온한 음악을 담아내었다. 모던테이블 특유의 제스처로 온몸을 이완시키고 치유를 해나가는 모습을 선보인다.

@modern_table_korea
www.moderntable.co.kr

출연진 CAST 김재덕(Jaeduk Kim), 이어린(Eoreen Lee), 정철한(Cheolhan Jeong), 엄세영(Seyeong Eom), 이준석(Junseok Lee), 최형규(Hyeonggyu Choi), 이기영(Kiyoung Lee), 김동규(Donggyu Kim)

제작진 CREDITS 안무 & 음악(Choreographer & Composer)-김재덕(Jaeduk Kim) 프로듀서(Producer)-김경진(Jenna Kyungjin Kim)

모던테이블 Modern Tabl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8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8 / Staff 3)

투어인원 총 11명(출연자 8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11 (Performers 8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With the vision of “Visible music, audible dance,” Modern Table captivates audiences through intuitive, multi-sensory performances that include singing dancers and blur the boundary between stage and audience. Renowned for dynamic male dancers with refined lines echoing Korean traditional dance, the company became Korea’s first to be invited to Russia’s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Having toured over 30 cities worldwide—including The Place (UK) and major Eastern European outdoor festivals such as Sziget—Modern Table’s notable works include <Darkness Poomba>, <Sok-do(Velocity)>, <Ham:beth>, <Breathing Attack>, <Sinawi>, and <Men of Steel>.

ABOUT THE WORK

“A warm feast of body embracing the aesthetic of healing” Unlike previous works characterized by explosive and wild energy, <Medita>, a new work of Modern Table premiered in 2024, offers a flexible embodiment of dance of healing and beauty, resulting flow and shape of energy, staying somewhere between strength and weakness. The piece was inspired by the social phenomenon of people in modern days, exhausted from excessive stimuli, resorting to time for internal healing—for example, visiting a meditation center or traveling in search of natural sounds, incorporating gradually expanding smooth bodily movements and calming music resembling nature strike harmony. Then the signature gestures of the company relax their entire bodies and offer a moment of healing.

09.28.(Sun.) 15: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전체관람
20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ll Ages

우주(월풀) UZU (Whirlpool)



단체소개

컴퍼니 단장은 독창적인 창작자이자 무용가 가토 오리하가 이끄는 협업 단체로서 다채로운 음악 장르와 문화의 배경에서 온 예술가들의 역동적인 조화를 이끌어낸다. 가토 오리하는 클래식 및 동시대 무용의 형식의 경계를 과감하게 가로지르는 유연하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스타일로 독창적이고 표현력 강한 몸짓의 언어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유명하다. 플라멩코, 동시대 음악, 아프리카 음악, 클래식을 전공한 음악가들이 단체에 참여하여 각각 독자적인 리듬과 소울, 서사를 공연에 더해준다. 다양한 창작자들이 함께 생생하고 창의적인 동력을 창출하여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고 무용과 음악을 융합하여 풍성하고 몰입되는 경험을 빚어낸다. 실험과 문화적 대화, 감정적 울림을 추구하며 관객에게 신선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과 몸짓, 예술간 협업을 탐색할 기회를 선사한다

작품소개

<우주(월풀)>는 5인조 팀이 소리와 몸짓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탐색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이다. 각 공연자는 각기 다른 리듬과 톤을 표현하며 각 청각 요소가 한 층씩 점점 쌓이고 서서히 한데 모여 나선을 그리며 빠져들게 한다. 서로 다른 소리가 물결처럼 구부러지고 출렁이며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이 서로 감기는 느낌을 준다. 공연하는 무용수와 음악가는 역동적으로 소리에 반응하고 원을 그리며 마치 소용돌이 속을 오가는 듯 서로 소통하며 무대를 종횡무진한다. 음악에 춤추며 역인 몸짓으로 무대는 생생하고 호흡이 있는 감정과 감성의 공기방울 옥조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며, 음악과 무용, 그리고 공연 시간 자체의 경계를 허무는 풍부하고 다층적인 경험이 오롯이 완성된다.

www.katoorija.com

출연진 CAST 무용 & 보컬(Dance & Vocal)-Oriha Kato (Dance), Goshi Jueda (Vocal) 기타 & 보컬(Guitar & Vocal)-Taro Maruyama 기타(Guitar)-Eiji Sakuma 플루트(Flute)-Yuri Uehara 퍼커션(Percussion)-Hisato Kido

제작진 CREDITS 연출 & 안무(Direction & Choreography)-Oriha Kato 음향 스태프(Sound Crew)-Yuki Takasaki

컴퍼니 단장 Company DANZAC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Led by the visionary creator and dancer Oriha Kato, this collaborative unit brings together a dynamic ensemble of artists from diverse mus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riha Kato is known for her fluid and imaginative style that traverses classical and contemporary dance forms, creating a unique and expressive language of movement. The group includes musicians who specialize in flamenco, contemporary, African, and classical traditions, each contributing their own rhythm, soul, and storytelling to the performances. Together, they form a vibrant creative force that transcends genre boundaries, blending dance and music into a rich, immersive experience. The unit thrives on experimentation, cultural dialogue, and emotional resonance, offering audiences a fresh, boundary-pushing exploration of sound, movement, and artistic collaboration

ABOUT THE WORK

<UZU(Whirlpool)> is a captivating performance in which the five-person ensemble explores the fluidity of time through sound and movement. Each performer contributes distinct rhythms and tones, layering auditory elements that gradually build into a swirling, immersive flow. These sounds seem to bend and undulate like waves, evoking a sense of time and space folding into one another. In dynamic response, the dancers and musicians move across the stage in circular patterns, spinning and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as if caught in a vortex. Their movements, tightly interwoven with the music, transform the stage into a living, breathing whirlpool of emotion and sensation. The result is a rich, multidimensional experience that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music, dance, and time itself

09.28.(Sun.)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용 13세 이상
25min.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Dance Ages 13+

그래비티 Gravity



단체소개

'몸 짓는 사람' 류장현을 중심으로 구성된 류장현과 친구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무용 단체로, "시대의 마지막 동굴 속 양자 에너지의 향연"이라는 세계관 아래, "모든 존재는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다양체이다"라는 생각을, 춤을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

작품소개

중력은 별과 행성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인도한다. 더 나아가 우주의 모든 조각을 붙들어 매고 연결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력은 두 물체가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물체는 힘을 만들 수 없다. <Gravity>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제자리에 붙들어 주는 힘의 상호작용으로 춤의 작용 거리를 확장한다. '보이지 않는 힘'에서 '몸으로 체화하는 감각'으로의 전환.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과 울림을 통해 움직임의 시작과 끝은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힘의 궤적을 그린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우아한 춤을 추며 돌고 있듯이.

@ryuandfriends

출연진 CAST 기자옥(Ziyu Qi), 김민서(Minseo Kim), 김태현(Taehyeon Kim), 박정휘(Junghwi Park) 백진혁(Jinhyeok Back), 오진민(Jinmin Oh), 이수연(Sooyeon Lee), 이진우(Jinwoo Lee), 장보경(Bokyoung Jang) 최태현(Taehyeon Choi), 홍은채(Eunchae Hong)

제작진 CREDITS 안무 & 연출(Choreographer & Director)-류장현(Janghyun Ryu) 프로듀서(Producer)-이정은(Jungeun Lee)

류장현과 친구들 Ryu Jang-Hyun and Friend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6명(출연자 11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16 (Performers 11 / Staff 5)

투어인원 총 16명(출연자 11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16 (Performers 11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Ryu Jang-Hyun and Friends is a creative and experiment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composed by choreographer Janghyun Ryu called "a man building the bodies". Under the vision of "the carnival of quantum dynamic energies deep inside the last cave of the current time", the company aims to realize the idea through dance: "Every being is a manifold carrying unlimited potential".

ABOUT THE WORK

Gravity shapes planets, stars, and life, holding all cosmic fragments together. In <Gravity>, dance becomes a lens to explore these dynamic interactions—the forces that connect and sustain everything. A single object alone produces no energy; it is the exchange between objects that generates motion. The theme shifts from the concept of an invisible force to the bodily sensation of that force, where precise shaking and resonance trace the energy of each moment. Like cosmic bodies that have long revolved and danced in space, the movements embody a timeless, graceful rhythm.

09.28.(Sun.) 17: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무용 전체관람
50min. 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Dance All Ages

>"헬로 월드"; >"hello world";



단체소개

덱댄스프로젝트는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각예술,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여 새로운 감각적 이미지를 창조한다. 개념을 주입하기보다는 몸의 언어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며, 관객이 직접 작품을 감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경험을 지향한다.

작품소개

>"hello world"; 우리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ello world";는 지구와 환경, 생태계를 소재로 동시대의 이슈를 담은 화두를 던진다. 인간, 자연, 환경이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그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디지털 세상 속에서 '신'이 된 인간 이미지를 기반으로 움직임과 영상 등의 트랜스 미디어를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헬로월드 #안녕세상

@dabdanceproject

출연진 CAST 김호연(Hoyeon Kim), 임정하(Jeongha Lim), 곽유하(Yuha Kwak), 이영래(Youngrye Lee)

제작진 CREDITS 안무 & 연출(Choreography & Direction)-김호연(Hoyeon Kim), 임정하(Jeongha Lim) 창작(Creation)-곽유하(Yuha Kwak), 이영래(Youngrye Lee), 김호연(Hoyeon Kim), 임정하(Jeongha Lim) 무대감독(Stage Manager)-김진우(Jinwoo Kim) 영상감독(Visual Director)-임정은(Jeongeun Lim) 음악감독(Music Director)-김현수(Hyunsu Kim)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이승호(Seungho Lee)

덱댄스프로젝트 Dab Dance Project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4명 / 스태프 6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4 / Staff 6)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4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4 / Staff 6)

ABOUT THE GROUP/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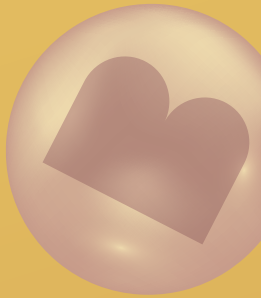
Dab Dance Project creates unexpected sensational images by merging the bodily movements emerged out of trivial curiosity with a wide variety of artistic genres, such as visual art, music and video art. Rather than suggesting unexpected concepts, the team aims to generate natural meanings solely through the bodily language and offer an open-end experience of art in which the audience can sense and interpret the artwork by themselves.

ABOUT THE WORK

>"hello world"; Welcome to Our World.

>"hello world"; raises questions incorporating contemporary issues concerning Earth,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If human beings, nature and the environment enter the digital world, what would they look like, and what digital world would the humans make out of them over there? Based on the idea of an imaginary human image that has become the "god" in a digital world, the transmedia narrative, composed of multiple elements such as bodily movements and video art, inspire imagination about nature and humans. #HelloWorld #WelcomeToOurWorld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WAVE



WAVE SCHEDULE

프로젝트 PROJECT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무용 Dance	아홉산 Ahopsan	30	09.24.(Wed.) 13: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연극 Theater	마지막 신문사 The Last Press	30	09.24.(Wed.) 14:40	
연극 Theater	가면극 <사랑과 전쟁> The Mask Play <Love and War>	30	09.24.(Wed.) 17:00	

픽 PICK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엔드 게임 End Game	50	09.24.(Wed.) 19:30 09.25.(Thu.) 19:30	액터스소극장 Actors Small Theater
연극 Theater	영순아, 어디 가니? Youngsoon, where are you going?	60	09.24.(Wed.) 19:30 09.25.(Thu.) 19:30 09.26.(Fri.) 19:30 09.27.(Sat.) 14:00	하늘바람소극장 Sky Wind Small Theater
연극 Theater	하녀들 2125 The Maids : 2125	60	09.28.(Sun.) 15:00 09.28.(Sun.) 18:00	전포와일드클럽 Jeonpo Wild Club
연극 Theater	나는 쇼팽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I Lost My Virginity to Chopin's Nocturne B-flat Minor	90	09.25.(Thu.) 19:30 09.26.(Fri.) 19:30	어댑터씨어터 2관 Adapter Theater, Hall 2
연극 Theater	우리 집 뜨락에는 In the embrace of our little courtyard	70	09.27.(Sat.) 17:00 09.28.(Sun.) 17:00	공간소극장 Gonggan Small Theater
음악 Music	부산의 사계절, 선율을 입다 Seasons of Busan, Painted with Music	50	09.25.(Thu.) 19:30 09.26.(Fri.) 19:30	비바아첼 챔버홀 ViVaACell Chamber Hall
연극 Theater	검정고무신 Echoes of a rubber sole	90	09.24.(Wed.) 19:30 09.25.(Thu.) 19:30 09.26.(Fri.) 19:30 09.27.(Sat.) 16:00 09.28.(Sun.) 16:00	에저또 소극장 Ejeotto Small Theater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음악 Music	해운대 선셋 그루브 Haeundae Sunset Groove	60	09.27.(Sat.) 19:00 09.28.(Sun.) 20:00	오아제 부산 Oase Busan
연극 Theater	뮤지컬 안톤 체홉 <청혼> Musical "The Proposal" by Anton Pavlovich Chekhov	50	09.27.(Sat.) 16:00 09.28.(Sun.) 16:00	가온아트홀 Gaon Art Hall
연극 Theater	10,000원 들고 우리 경매 참여 할 바 에 차라리 그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 먹겠다 Instead of Paying 10 Bucks to Join our Auction, I would Rather Buy a Hamburger Combo	70	09.24.(Wed.) 16:00 09.24.(Wed.) 19:00	나다소극장 Nada Theater

쇼 업 SHOW UP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음악 Music	파노라마 - 波努羅摩 Panorama	15	09.26.(Fri.) 19:0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만파 - 끝없는 파도 Manpa - Endless Waves	15	09.26.(Fri.) 19:15	
음악 Music	소리도 Sori-island	15	09.26.(Fri.) 19:30	
음악 Music	선과 티미의 '너와 나의 이야기' Shun and Timi's 'The Story of You and Me'	15	09.26.(Fri.) 20:00	
음악 Music	월요일 좋아 Monday is good	15	09.26.(Fri.) 20:15	
음악 Music	I AM OK!	20	09.26.(Fri.) 20:30	

09.24.(Wed.) 13:30
30mi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무용
Dance
전체관람
All Ages

아홉산 Ahopsan



단체소개

평론가가 선정한 최우수 안무가 선정(2004)을 계기로 발족한 박나훈 무용단은 <세 개의 공기>로 뎀스 초이스에 선정, 브라질 한국현대무용주간에 소개되었다(2009). 이후 <두 개의 문>으로 광동 현대무용축제와 싱가포르 컨택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핀란드 국제협력 우수 프로젝트(2012), 트래블링 아츠 코리아 해외 문화원 우수 작품(2016), 한-덴마크 수교 60주년 국제 우수 공동 프로젝트(2019)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더불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샌프란시스코,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 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작품소개

<아홉산>은 숲에 마실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춤 작품이다. 기하학적으로 왜곡된 원형 무대는 나침반을 상징하는데, 이 무대 위에서 동서남북의 '아홉 개의 손'을 피해 움직이는 네 명의 무용수와, 동시에 나침반 위에 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유일하게 둥근 무덤을 가진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작품은 무덤과 산, 언덕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둥근 형태들이 춤과 만날 때 어떻게 새로운 무대 미학이 창조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www.parknahoon.com

출연진 CAST 이제형(Jehyoung Lee), 김근영(Geunyeoung Kim), 박은지(Eunji Park), 하이경(Yigyeong Ha), 박나훈(Nahoon Park)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박나훈(Nahoon Park) 무대감독(Stage Manager)-김한솔(Hansol Kim), 김영우(Youngwoo Kim)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김하영(Hayoung Kim) 무대디자인(Stage Design)-박정우(Jeongwoo Park)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손예란(Yearan Son) 음악(Music)-최태현(Taehyun Choi)

박나훈 무용단 Parknahoon Compan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Parknahoon Company, founded by award-winning choreographer Parknahoon Company (Best Choreographer Award, 2004), has become a prominent force in contemporary dance. With Three Airs selected for PAMS Choice and presented at Korean Contemporary Dance Week in Brazil (2009), the company quickly earned international attention. Its signature work The Two Doors received acclaim at the Guangdong Modern Dance Festival and Singapore's contact Contemporary Dance Festival. The company has since achieved milestones including the Korea-Finland Connection (2012), Traveling Korean Arts (2016), and a Korea-Denmark collaboration (2019). Actively performing worldwide, Parknahoon Company continues to engage global audiences on renowned stages across Russia, the US, Germany, Italy, and Lithuania

ABOUT THE WORK

The dance work <Ahopsan> (lit. "nine-peak mountain") tells the story of a person who goes out into the forest for a stroll. A round but still geometrically distorted stage symbolizes a travel compass, on which four dancers struggle to escape "nine hands" reaching from the cardinal directions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then the story of the dancers as well as all ourselves placed on such a compass unfolds. Inspired by the fact that Koreans are the only people who forms a grave for a deceased body like a rounded mound, the work tries to show us how a vast variety of round forms appearing on, namely, a grave, a mountain, or a hill, create an authentic performing art aesthetics through a rendezvous with dance.

09.24.(Wed.) 14:40
30mi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연극
Theater
15세 이상
Ages 15+

마지막 신문사 The Last Press



단체소개

빅픽처스테이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예술단체'라는 이름처럼, 창의적인 무대를 지향하며 창단 이후 꾸준히 창작공연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연극과 뮤지컬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대중과의 예술적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공연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품소개

마지막 신문을 배달하러 가는 노인.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신문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인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세상과 마주한다. 배우의 몸만으로 표현되는 장면들과 이야기들은 연극이 가진 표현성을 극대화한다. 진실하기에 환상적이고, 환상적이기에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마지막 신문사>는 진실을 향한 한 노인의 처절한 사투를 그려내며 관객을 그의 여정 속으로 이끈다.

@big.picture.stage

www.bigpicturestage.monster

출연진 CAST 박호전(Hocheon Park), 백상희(Sanghee Baek), 박준현(Junhyeon Park), 하선이(Seonhee Ha), 김수휘(Suhwi Kim), 허다영(Dayoung Heo), 서상원(Sangwon Seo)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김정환(Junghwan Kim) 작가 & 연출(Playwright & Director)-김인하(Inha Kim) 작곡 & 음악(Composer & Music Director)-이경(Kyung Lee) 기획(Planning)-이태경(Taekyung Lee), 김수형(Suryoung Kim) 조연출(Assistant Director)-신새봄(Saebom Shin) 무대디자인(Set Designer)-황지선(Jisun Hwang) 무대제작(Stage Carpenter)-이안호(Anho Lee)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er)-이영준(Youngjun Lee) 조명크루(Lighting Crew)-강진규(Jingu Kang), 최성빈(Sungbin Choi) 무대연장감독(Stage Manager)-박센(Sen Park) 음향 오퍼레이터(Sound Operator)-이세림(Serim Lee)

빅픽처스테이지 Big Picture Stag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9명(출연자 7명 / 스태프 12명)

Participants Total 19 (Performers 7 / Staff 12)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7명 / 스태프 7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7 / Staff 7)

ABOUT THE GROUP/COMPANY

Big Picture Stage, true to its name, which means "an art company drawing a big picture", continues to thrive on achievements through consistently staging its original pieces, with an objective to create an imaginative performing arts stage. Creating a wide variety of stage performing art pieces from plays to musicals, the company aims to reach an artistic communion with the public audience. Incorporating the latest trends of performing arts, the company also strives to produce the pieces deeply moving the audience and successfully conveying meticulous messages.

ABOUT THE WORK

An old man embarking on a final journey to deliver his last bundle of newspapers—during this journey, he confronts a vast variety of incidents raising this question: could journalism ever represent every such event? Then what would this old man discover out ther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 piece comes face to face with the real world. Every scene and episode, solely embodied through the bodily movements of the actors, maximizes the expressive character of a theatrical play—the narrative is fantastic as it is authentic, and is realistic as it is extraordinary. <The Last Press> invites the audience to a tenacious journey of an old man, incorporating his desperate struggle towards the truth.

09.24.(Wed.) 1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연극 전체관람
30min.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Theater All Ages

가면극 <사랑과 전쟁> The Mask Play <Love and War>



단체소개

극단 해풍은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창작공연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어린이 극단, 청소년 극단, 성인 극단, 노인 극단 등 각 세대를 기반으로 한 시민극단을 운영함으로써 연극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연극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시민,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계층별 연극공연을 창작하는 것은 물론, 부산을 소재로 한 공연 창작에도 힘쓰고 있으며, 전통예술, 현대무용, 스트리트댄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한 공연도 제작하고 있다.

작품소개

가면극 <사랑과 전쟁>은 기득권의 논리에 희생되는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목숨을 지키고자 전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가면극'이 오랫동안 전통예술로 전승되어 왔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 해풍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가면극으로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임영통지서가 날아들고, 남자는 떠나게 된다. 여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남자의 귀환을 기다린다. 과연 남자는 무사히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극단 "해풍"

출연진 CAST 송영주(Yeongju Song), 신명수(Myungsoo Shin), 양문창(Moonchang Yang), 이경(Kyung Lee), 이상우(Sangwoo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상우(Sangwoo Lee) 음악(Music)-이경(Kyung Lee) 안무(Choreographer)-양문창(Moonchang Yang) 조안무(Assistant Choreographer)-송영주(Yeongju Song) 음악감독(Music Director)-이창훈(Changhoon Lee)

가면(Masked artist)-황병권(Byeongwon Hwang) 의상(Costume)-이영덕(Youngduk Lee)

극단 해풍 Haepung Theater Compan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5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5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Haepung (lit. "sea breeze") Theater Company, under the motto of "a wind of humor and lampoon blowing from Busan", builds a diverse repertoire of original performing art pieces. Based in Buk District of Busan, the company operates public troupes for citizens according to generations, namely for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senior citizens, striving to form a theater community and contributing to advancement of the local theater culture. Not only does the company create original plays reaching the local people of a vast variety of generations from children, adolescents, grown-up citizens and senior citizens from different social classes, but also does it strives to create original pieces embodying the locality of Busan, also writing works incorporating collaboration with diverse artistic genres from traditional arts to contemporary dance and street dance.

ABOUT THE WORK

The Mask Play <Love and War> was created as an anti-war manifestation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valuable defenseless lives of the young people falling prey to the rationales dominated by the privileged. While the Korean traditional mask play has been passed across generations as a protected traditional performing art genre, the genre seems to be stuck in deadlock without change after its designation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ing said that, Haepung Theater Company would like to stage an original mask play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 through a lens of contemporaneity. The cherished love of a young man and a young woman is suddenly confronted by a notice of military enlistment, which forces the man to leave. Unintimidated by any immediate urges, the woman keeps waiting for the man. Could the man be reunited safely with his sweetheart?

09.24.(Wed.) 19:30 액터스소극장 연극 15세 이상
09.25.(Thu.) 19:30 Actors Small Theater Theater Ages 15+
50min.

엔드 게임 End Game



단체소개

1984년에 창단한 부두연극단은 그동안 4번의 소극장 운영(부두소극장, 가마골소극장, 연당소극장, 액터스소극장)을 통하여 지역 소극장 연극 운동의 기수로 활동해 왔다. 극단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 탐구, 현대 문명 비판 등에 있으며 진부한 리얼리즘극을 벗어난 초현실주의극, 부조리극, 제의극, 마임 등 형식 실험에 치중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작품소개

방사능 누출과 바이러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쓰레기 대란. 인간의 누적된 실수로 인해 지구 환경이 파괴적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폐쇄된 공간으로 피신하였으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관객들은 연극 속에서 이러한 극단적 존재 조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극의 대 사회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된다.

부두연극단, 액터스소극장

cafe.daum.net/actorsplay

출연진 CAST 박상규(Sangkyu Park), 이동희(Donghee Lee), 김경수(Gyeongsoo Kim), 조미경(Mikyung Cho)

제작진 CREDITS 원작(Writer)-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연출(Director)-이성규(Suenggyu Lee) 프로듀서 & 자막(Producer & Subtitles)-이수경(Sukyung Lee) 드라마투르그(Dramaturg)-김문홍(Moonhong Kim) 기획(Promoter)-강경희(Kyunghee Kang) 무대제작(Set Design)-김재한(Jaehan Kim) 음악 & 음향디자인(Music & Sound Design)-이영섭(Yeongsob Lee) 분장(Makeup)-이지원(Jeewon Lee) 의상 & 소품(Costume & Props)-이서영(Suhyoung Lee) 무대디자인(Stage Design)-황지선(Jisun Hwang)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조인곤(Ingon Cho)

09.24.(Wed.) 19:30 09.26.(Fri.) 19:30 하늘바람소극장 연극 8세 이상
 09.25.(Thu.) 19:30 09.27.(Sat.) 14:00 Sky Wind Small Theater Theater Ages 8+
 60min.

영순아, 어디 가니? Youngsoon, where are you going?



단체소개

극단 아센은 '연극의 정통성과 배우의 진정성을 근간으로, 양질의 우수 연극 공연작품 제작을 통해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탐구해 나가며, 연극을 통한 정서 가치의 정화를 관객에게 제공하고, 관객과의 창조적 공감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연극예술 단체다. 현재 공연 제작 및 기획과 더불어 극작, 배우 발굴, 연기훈련 등 다양성에 입각한 끊임없는 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연극 인재를 양성하고 창조적인 연극예술을 지향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작품소개

구민주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 가니?>는 200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350회 이상 공연된 극단 아센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이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의 역동적인 삶을 그려낸 이 작품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반추해 보고자 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대병, '만성적 자살 증후군'이라는 소재를 모노드라마에서 3인극으로 새로이 재구성하고, 각 장면의 극적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다듬었는데, 이를 통해 '자살 증후군'이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강렬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임을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다.

하늘바람소극장
 cafe.daum.net/acen2000

출연진 CAST 구민주(Minju Koo), 황창기(Changgi Hwang), 이현옥(Hyunok Lee)
제작진 CREDITS 재구성 & 연출(Re-formation & Director)-호민(Min Ho) 작가(Writer)-이훈주(Heunju Lee)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구보경(Bokyoung Ku) 기획(Promoter)-홍영미(Youngmi Hong) 홍보 & 마케팅(PR & Marketing)-박규남(Gyunam Park) 무대디자인(Stage design)-김유리라(Yulila Kim) 음악감독(Music Director)-이영섭(Yeongsob Lee) 조연출(Assistant Director)-김주원(Juwon Kim)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김태호(Taeho Kim) 의상(Costume)-최수희(Suhui Choi)

09.28.(Sun.) 15:00 전포와일드클럽 연극 전체관람
 09.28.(Sun.) 18:00 Jeonpo Wild Club Theater All Ages
 60min.

하녀들 2125 The Maids : 2125



단체소개

주식회사 퍼플웨이브는 부산을 기반으로 공연예술 창작, 교육, 공간 운영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기업이다. 연극, 음악극, 이머시브 공연 등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전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향한다.

작품소개

<하녀들 2125>는 프랑스 상징주의 희곡을 2125년 미래 디스토피아로 재해석한 신체극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녀들>을 재해석해 과거에도 존재하던 계급 사회를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로 풀어내고자 한다. 2125년을 배경으로 감정과 권력을 코드화·설계하는 사회를 설정했는데,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을 등장시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purplewavestudio

출연진 CAST 민유원(Youwon Min), 이은주(Eunju Lee), 임수연(Suyeon I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박규남(Gyunam Park) 조연출(Assistant Director)-강효석(Hyosuk Kang) 기획(Producer)-최상규(Sangkyu Choi) 안무(Choreographer)-박재현(Jaehyun Park) 음향 & 조명(Sound & Lighting)-송은비(Eunbi Song) 촬영 & 편집(Director of Photography & Editor)-김종진(Jongjin Kim) 무대소품 & 시의상(Props Design & AI Costume)-이수아(Sua Lee)

퍼플웨이브 PURPLEWAV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0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3 / Staff 10)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PURPLEWAVE INC. is a Busan-based comprehensive art and culture corporation encompassing a wide variety of fields from creation of performing art and art education to performing art space management. Conveying emotional resonance and empathy through theatrical plays, musical plays and immersive theaters, the company strives to realize social solidarity as well as facilitate local culture through art.

ABOUT THE WORK

<The Maids : 2125> has reinterpreted the 1947 French symbolist play <The Maids> (Les Bonnes) into the physical theater staged on a future dystopia in 2125. Reinterpreting the play by Jean Genet portraying social class conflicts which still existed in the past, the same class conflicts in society are incorporated as a relationship between future humans and robots. In this play, in 2125, since emotions and hegemony are coded and pre-designed, there emerges a robot desiring to be a human, exploring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nd raising questions on human nature.

09.25.(Thu.) 19:30	어댑터씨어터 2관	연극	15세 이상
09.26.(Fri.) 19:30	Adapter Theater, Hall 2	Theater	Ages 15+

90min.

나는 쇼팽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I Lost My Virginity to Chopin's Nocturne B-flat Minor



단체소개

어댑터씨어터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부산에서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어댑터씨어터 1·2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및 국내외 공연 단체와의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연극·뮤지컬·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

작품소개

연극 <나는 쇼팽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는 한·영 공동제작으로 사회적 계층이 다른 20대 커플의 사랑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를 통해 청년 세대의 현실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관객으로부터 동시대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adapter.theater
www.adapter.theater

출연진 CAST 정해룡(Haeryong Jeong), 김하영(Hayoung Ki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박선준(Seonjun Park) 무대디자인(Stage Design)-한아름(Ahreum Han)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조혜림(Hyerim Jo) 의상 & 소품(Costume & Props)-김성연(Sungyeon Kim) 포스터
디자인(Poster Design)-정태규(Taegu Jeong)

어댑터씨어터 Adapter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2명 / 스태프 8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2 / Staff 8)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2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2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Adapter Theater is a Busan-based performing arts content producing company committed to "realizing the social values of art". Also operating Adapter Theater Halls 1 and 2,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original works and collaborating with Korean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to produce and develop performing art contents of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theatrical plays to musical plays and comedies.

ABOUT THE WORK

<I Lost My Virginity to Chopin's Nocturne in B-flat Minor> is a Korea-UK co-production embodying love and conflicts of a young couple in their 20s from different social classes. The in-depth accounts on the discords and identity crisis caused by their different family and upbringing backgrounds vividly reflecting the ongoing realities of the young generation resonates with the audience through realistic contemporaneity.

09.27.(Sat.) 17:00	공간소극장	연극	12세 이상
09.28.(Sun.) 17:00	Gonggan Small Theater	Theater	Ages 12+

70min.

우리 집 뜨락에는 In the embrace of our little courtyard



단체소개

2004년 개관한 공간소극장은 연극 전문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외 교류를 통해 순수 창작, 한국 고유의 명작 발굴, 연출가 및 배우 발굴 등의 작업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교류 작업으로는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을 들 수 있으며, 국제 교류 작업으로는 "Inter Asian Performance Festival"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Dancing Spirits>, <tsk tsk>, <Invitation>, <Coastal Road>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작품소개

도시 재개발에 의해 갈 곳을 잃은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인간의 폭력과 도시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어느 산기슭에 숨었다. 둘이 함께 숨어든 이곳은 화려한 도시가 저 멀리 보이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숲속 아늑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먹을거리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곳은 개와 고양이가 또 다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 투쟁의 근거지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슬픈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친다. "아직은 견딜만하니까!"

공간소극장 극단 유니언킹
(Space Theater Onion King)

cafe.naver.com/ggtheater

출연진 CAST 서동주(Dongju Seo), 이라결(Ragyeol Lee)

제작진 CREDITS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전상배(Sangbae Jun)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황미애(Miae Hwang) 음악감독(Music Director)-전현미(Hyunmi Jeon)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최지환(Chihwan Choi)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황정민(Jungmin Hwang) 분장(Makeup)-김혜인(Hyein Kim) 무대디자인(Stage Design)-황지선(Jisun Hwang) 기획 & 홍보디자인(Planning & PR Design)-노경민(Kyungmin Noh) 기획(Planning)-황미란(Miran Hwang) 의상(Costume Design)-박정희(Jeonghee Park) 영상(Video Design)-이연승(Yeonseung Lee) 사진(Photograph)-최우창(Woochang Choi)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2명)

Participants Total 14 (Performers 2 / Staff 1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2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2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04, Space Theater has been dedicated to producing and presenting professional theatrical works. Through consistent commitment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the theater thrives on creating an original production, rediscovering unexplored Korean masterpieces and nurturing talented directors and actors. One of its notable exchange projects across Korea is "Korea Small Theater Festival", while one of its ongoing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is "Inter Asian Performance Festival". Some of its diverse repertoire include: <Dancing Spirits>, <tsk tsk>, <Invitation>, and <Coastal Road>.

ABOUT THE WORK

<In the embrace of our little courtyard> unfolds a story of a dog and a cat displaced by urban redevelopment. Fleeing human-generated violence and diverse threats caused by the city, they ended up hiding in the mountain valley. Where the two animals found themselves together is a peaceful place deep in the forest, not discovered by anyone else but still with the glamorous urban landscape overlooked out there. Meanwhile, there is one critical predicament: lack of food. Therefore, the dog and the cat have to carry on with another kind of life—coping with hunger by themselves—in the new shelter that happens to be the basecamp for their new struggle. Nonetheless, despite the sorrowful realities, they rely on each other never to give up the last straw of hope, shouting to the world: "Still, we can take it!"

09.25.(Thu.) 19:30	비바아첼챔버홀	음악	전체관람
09.26.(Fri.) 19:30	ViVaACell Chamber Hall	Music	All Ages
50min.			

부산의 사계절, 선율을 입다

Seasons of Busan, Painted with Music



단체소개

2023년 해운대구에 등록된 60석 규모의 민간 클래식 공연장인 비바아첼챔버홀은 연간 30회 이상의 클래식 및 재즈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영아티스트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클래스와 함께 프로단체(비바아첼인터네셔널필하모닉)와 아마추어 단체(비바아첼챔버오케스트라)도 운영 중에 있으며, 상주 연주단체로는 라이크앙상블이 있다. 라이크앙상블은 '클래식을 사랑하는 앙상블'이라는 뜻의 독일어 Liebe der Klassik Ensemble의 약자에서 이름을 지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진을 중심으로, 부산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다양한 악기 구성의 실내악 연주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부산의 자연 및 사계절의 정서를 클래식 음악과 영상으로 담아낸 감성 콘서트이다. 부산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계절별 명소와 분위기를 감성적인 클래식 선율과 대중음악으로 조화롭게 연결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vivaacell_chamber_hall **출연진 CAST** 라이크앙상블 LIKE ensemble 피아노(Piano)-방기수(Kisoo Bang), 정은정(Eunjung Jung) 바이올린(Violin)-이진(Jin Lee), 이현우(Hyunwoo Lee) 첼로(Cello)-조명환(Myunghwan Cho) 비올라(Viola)-조우태(Wootae Cho)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er)-이진(Jin Lee) 편곡(Arranger)-방기수(Kisoo Bang) 영상감독(Visual Director)-이동관(Dongwan Lee)

비바아첼챔버홀 & 라이크앙상블

ViVaACell Chamber Hall & LIKE Ensembl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ViVaACell Chamber Hall, a 60-seat private concert hall specializing in classical music in Haeundae District, Busan, officially registered in 2023, hosts over 30 classical and jazz concerts, master classes, and young artist concerts annually. The chamber hall also operates musical instrument classes for adults, along with professional (Vivaacell International Philharmonic) and amateur (Vivaacell Chamber Orchestra) ensembles. Its resident group, LIKE Ensemble, takes its name from the German phrase Liebe der Klassik Ensemble, meaning "an ensemble that loves classical music." Founded by violinist Jin Lee, LIKE Ensemble brings together accomplished musicians from Busan and actively performs chamber music in diverse instrumental settings.

ABOUT THE WORK

A sentimental concert resonating with the audience, incorporating the feelings from the local nature and four seasons of Busan into classical music and video images. Local tourist attractions depending on four seasons reflecting distinct beauty of Busan and their unique atmosphere are embodied as a harmonious ensemble of the sentimental melodies of classical as well as pop music, which would be well received by all ages and genders.

09.24.(Wed.) 19:30	09.26.(Fri.) 19:30	에저또 소극장	연극	8세 이상
09.25.(Thu.) 19:30	09.27.(Sat.) 16:00	Ejeotto Small Theater	Theater	Ages 8+
90min.		09.28.(Sun.) 16:00		

검정고무신

Echoes of a rubber sole



단체소개

1966년에 창단한 극단 에저또는 부산으로 활동 무대를 이동, 실험적이고 젊은 연극운동의 제언자로서 한국 최초로 언더그라운드 연극을 시도했다. 또한 최초로 소극장운동을 제창하였으며 살아있는 연극, 생각하는 연극, 창조하는 예술을 하는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창작극 중심의 공연을 만들어 오고 있는 극단 에저또는 2008년 설립된 에저또 전용 소극장을 통해 끊임없이 창작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이다.

작품소개

2007년 작품을 처음 선보인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만으로 매년 매년 행렬을 이어온 이 공연은 부산에서 만들어져 대한민국을 웃음과 눈물의 바다로 물들인 화제작이다. 관객과 평론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아 '다시 보고 싶은 연극'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5개월간 부산 최초의 최장기 오픈런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7년까지 무려 2,600회 이상의 공연이 펼쳐졌다. 어렵지만 정이 있었고, 나눔과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껏 많은 관객들을 함께 울고 웃게 만들었다. 1960~1970년대, 생소한 그 시절의 아픔과 추억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ejeotto_theatre **출연진 CAST** 김지연(Jiyeon Kim), 이지훈(Jihoon Lee), 최재민(Jaemin Choi), 박준현(Junhyun Park), 김선미(Seoni Kim)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방태수(Taesoo Bang) 연출(Director)-최재민(Jaemin Choi) 작가(Writer)-김지연(Jiyeon Kim) 드라마투르그(Dramaturg)-정봉석(Bongseok Jung) 무대감독(Stage Manager)-최재영(Jaeyoung Choi) 조명디자이너(Lighting Design)-김철현(Chulhyun Kim) 무대(Stage)-조상원(Sangwon Jo) 조명오퍼레이터(Lighting Operator)-허용현(Yonghyun Ha)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천승민(Saengmin Chun) 무대동작(Stage Movement)-김정원(Jungwon Kim) 기획(Promoter)-박은주(Eunjo Park)

극단 에저또

Ejeotto Theatr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2명(출연자 5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2 (Performers 5 / Staff 7)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5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5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1966, Ejeotto Theatre later moved to Busan to become Korea's first pioneer in the underground theater, consistently being a visionary of experimental as well as young theater movements. Also being Korea's first theater company manifesting the small theater movement, it continues to serve as an organization creating "a living theater, a thinking theater and an enriching creative art". Committed to original plays to contribute to advancement of local arts, the company has been established as a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 ceaselessly producing original pieces at the small theater reserved for the company founded in 2008.

ABOUT THE WORK

Since its debut in 2007, this performance has become a sensational hit, selling out every year purely through word of mouth. Created in Busan, it has touched audiences across Korea with waves of laughter and tears. Praised by both audiences and critics alike, it was selected as a "must-see play" and successfully led Busan's first and longest-running open-run performance, which lasted 15 months from February 2013 to May 2014. Also recognized by experts for its artistic value, the play has been performed over 2,600 times by 2017. Set in a time that was difficult but filled with warmth, sharing, and love, the story has moved countless audiences to laugh and cry together. It invites viewers into the painful yet nostalgic memories of the 1960s and 1970s.

09.27.(Sat.) 19:00	오아제 부산	음악	전체관람
09.28.(Sun.) 20:00	Oase Busan	Music	All Ages

해운대 선셋 그루브 Haeundae Sunset Groove



단체소개

조태준과 부산그루브는 부산 출신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을 중심으로 불가리아, 뉴질랜드, 미국 출신 뮤지션들이 부산에서 만나 결성한 글로벌 밴드이다. 부산 사투리와 함께 포크, 레게, 시티팝 등의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음악으로 부산의 일상과 감성을 노래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공연을 만들어간다.

작품소개

<해운대 선셋 그루브>는 해운대 바다와 노을을 무대로 펼쳐지는 오픈형 테라스 라이브 공연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로컬과 글로벌 뮤지션들이 각자의 해석으로 부산을 노래하며, 관객들과 함께 바닷바람과 노을빛을 그대로 느끼는데, 그 순간, 부산만의 특별한 그루브와 현장의 아우라가 완성된다.

@tj_busangroove

출연진 CAST 보컬(Vocal)-조태준(TJ) 드럼(Drum)-이바일로(Ivaylo) 기타(Guitar)-지노(Gino) 키보드(Keyboard)-바사나(Vasana) 색소폰(Saxophone)-마상령(MA)

제작진 CREDITS 영상감독(Visual Director)-양성재(Sungjae Yang) 음향감독(Sound Director)-서기택(Gitaeuk Suh)

조태준과 부산그루브 TJ & Busan Groov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2명(출연자 5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2 (Performers 5 / Staff 7)

투어인원 총 12명(출연자 5명 / 스태프 7명)

Touring Members Total 12 (Performers 5 / Staff 7)

ABOUT THE GROUP/COMPANY

TJ & Busan Groove, led by a Busan-based singer-songwriter Taejun Jo or "TJ", is a global band founded in Busan by musicians with a wide variety of nationalities—Bulgarians, New Zealanders and Americans. The leader's eponymous band incorporates his signature Busan dialect with diverse musical genres including folk, reggae and city pop, embodying the local daily life and sentiments, creating a stage connecting the locality to the world.

ABOUT THE WORK

<Haeundae Sunset Groove> is an open-air terrace live stag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aeundae Beach and the sunset glow. Busan-based and international musician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ing an ode to Busan through their own authentic interpretations as they feel the sea breeze and the evening glow in communion with the audience—that moment completes the extraordinary glow of Busan and the unique atmosphere of the live stage.

09.27.(Sat.) 16:00	가온아트홀	연극	전체관람
09.28.(Sun.) 16:00	Gaon Art Hall	Theater	All Ages

뮤지컬 안톤 체홉 <청혼> Musical "The Proposal" by Anton Pavlovich Chekhov



단체소개

1992년 극단 SAY로 창단한 극단 사계는 2003년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2024년 <수업>까지 89회의 정기공연을 진행하였는데, 그 외에도 <사랑할까요> 등 10여 편의 기획공연을 펼쳤으며, 6편의 순수 창작 뮤지컬, <내동생 손돌이> 외 10편의 가족뮤지컬을 제작하였다. 그 중 정기공연 <뇌우>는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연극퍼레이드에 초청되었다.

작품소개

러시아가 낳은 두 거장의 콜라보레이션 <청혼>은 사실주의 연극의 거장 안톤 체홉이 쓴 단막극으로, 사실주의 작가로서가 아닌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그의 정신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또한 러시아의 또 다른 거장인 차이콥스키의 <사계> 연작의 원곡을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가미한 뮤지컬 넘버로써 세계 어디에서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성악과 연극에서 활약 중인 명품 바리톤 가수이자 연기자인 오세민을 중심으로 두 명의 참신한 젊은 연기자가 선보이는 재미있는 공연이다.

출연진 CAST 오세민(Semin Oh), 채민수(Minsoo Chae), 차정은(Jeongeun Ch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만중(Manjoong Kim) 프로듀서(Producer)-박창화(Changhwa Park)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김명수(Myeongsoo Kim) 음향디자인(Sound Design)-허승연(Seungyeon Heo) 안무(Choreographer)-장은숙(Eunsook Jang)

극단 사계 Theatre Four Season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3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3 / Staff 7)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3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3 / Staff 5)

ABOUT THE GROUP/COMPANY

Originally named Theater Company SAY when founded in 1992, the company was renamed to its current one Theatre Four Seasons. Including <The Lesson> in 2024, the company has staged 89 regular performances to date. Over 10 featured productions including <Shall We Love?> and 6 original musicals, and 11 family musicals including <My Brother Soondol> are included in the repertoire. <Thunderstorm>, included in the regular stage, was invited to the Korea Theater Parade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ontemporary theater.

ABOUT THE WORK

<The Proposal> is an one-act play written by a legendary realist playwright Anton Chekhov, which reveals more of the dramatist's witty and satirical spirit unfolding a sharp comedy rather than serious realism embodied in his other works. In addition, now the play is reimagined as a musical play with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he Seasons Suite> by Tchaikovsky, who is another legendary figure from Russia. While the presence of the two great Russian masters upgrades the level of completion of the piece to the world-class, renowned baritone singer and actor Oh Se-min and two young performers offer a fresh and entertaining take on the timeless classic.

09.24.(Wed.) 16:00	나다소극장	연극	8세 이상
09.24.(Wed.) 19:00	Nada Theater	Theater	Ages 8+

**10,000원 들고 우리 경매 참여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먹겠다**
Instead of Paying 10 Bucks to Join our Auction,
I would Rather Buy a Hamburger Combo



단체소개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비록 주류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존재와 이야기를 찾아가고자 한다.

작품소개

예술보다 햄버거 세트가 더 끌리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연극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매가 펼쳐진다. 돈을 주고, 가치를 사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술을 경매한다.

@yoonji_lab

출연진 CAST 황정인(Jeongin Hwang)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김가영(Kayoung Kim) 작가(Writer)-이르다(Arrive Lee) 연출(Director)-권상우(Sangwoo Kwon) 조연출(Assistant Director)-김세진(Sechin Kim) 기획(Promoter)-김예빈(Yebin Kim)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영준(Youngjun Lee) 음악감독(Music Director)-홍예진(Yejin Hong) 무대(Stage)-양재영(Jaeyoung Yang) 소품(Props)-박소윤(Soyoon Park)

09.26.(Fri.) 19:0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음악	전체관람
15min.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Music	All Ages

파노라마 - 波努羅摩 Panorama



단체소개

유하(柔緞)는 대금 연주자 채예진, 송하림 두 명으로 구성된 대금 듀오팀이다. 유하(柔緞)라는 이름은 '부드러운 노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해 질 무렵의 따뜻한 풍경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인 대금의 매력을 살려 국악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감정을 소리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메시지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 유하(柔緞)는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이 줄 수 있는 깊은 울림과 자연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려고 한다.

작품소개

<파노라마(波努羅摩)>는 대금의 선율로 자연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여정이다. 순환하는 소나무의 모습을 부드러운 저음과 맑은 고음을 넘나드는 대금의 소리로 전달한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노래하고, 새벽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수련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과 일상을 그려낸다. 두 대의 대금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은 시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음악이 만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여정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

출연진 CAST 대금(Daegu)-채예진(Yejin Chae), 송하림(Halim Song) 피아노(Piano)-이수민(Sumin Lee)

제작진 CREDITS 기획 & 연출 (Promoter & Director)-채예진(Yejin Chae), 송하림(Halim Song)

유하 - 柔緞 Yuh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Yuha(柔緞) is a daegeum duo consisting of two daegeum players, Yejin Chae and Halim Song. The name Yuha(柔緞) means "the gentle glow of sunset", and the duo strives to create music as beautiful as the warm scenery at dusk. Our goal is to showcase the charm of th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the daegeum, and to convey the inherent beauty and emotion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rough sound. While preserving tradition, we also seek to express modern messages through music, opening a new space for communication. Through Yuha(柔緞), we aim to deliver to their audience both the deep resonance that music can bring and the value of nature at the same time.

ABOUT THE WORK

<Panorama(波努羅摩)> is a journey that expresses nature and the passage of time through the melody of the daegeum. It portrays the cyclical nature of the pine tree through the daegeum's sound, which flows between soft, low notes and clear, high tones. It evokes the passage of time along the flowing river and depicts human life and daily routine through the image of a water lily that blooms at dawn and closes at dusk. The harmony of two daegeums and a piano creates a landscape where time and nature blend together. In this music, we see ourselves accepting change and living within the passage of time. The performance offers a moment to share and feel the journey of life within the flow of time shaped by sound.

09.26.(Fri.) 19:15 15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Music All Ages

만파 - 끝없는 파도 Manpa - Endless Waves



단체소개

풍류악회는 2025년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국악 연주단체이다. 정악의 본질을 지키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간다. 절제와 깊이를 지닌 정악의 가치를 오늘날 무대 위에 되살리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도한다.

작품소개

만파는 궁중 연례악인 <만파정식지곡>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설화 속 신비한 피리 만파식적에서 비롯된 곡이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 만파식적은 불면 나라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풍류악회는 이 의미를 부산의 바다와 연결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처럼 전통음악의 맥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음을 표현한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원곡 <만파정식지곡>에 피아노 선율을 더해 편곡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 무대와 관객을 잇는 다리이자 나아가 국악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한다.

@pungryu_ensemble
출연진 CAST 가야금(Gayageum)-한수민(Sumin Han) 거문고(Geomungo)-윤소민(Somin Yoon) 대금(Daageum)-김현숙(Hyunsook Kim) 해금(Haengeum)-박재하(Jaeha Park) 장구(Janggu)-최태민(Taemin Choi) 타악(Percussion)-최서윤(Seoyoun Choi)
제작진 CREDITS 편곡(Arranger)-윤경현(Kyeonghyeon Yoon), 박재하(Jaeha Park)

풍류악회 PungRyu Ensembl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PungRyu Ensemble was founded in 2025 by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We preserve the essence of Jeongak while embracing contemporary sensibilities to create a new flow of music. By reviving the disciplined structure and depth of Jeongak on today's stage, we strive to bridge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pioneer new possibilities in Korean music.

ABOUT THE WORK

Manpa is based on the court ritual music <Manpajeongsikjigok> and the legendary flute Manpasikjeok, a mystical instrument symbolizing peace and prosperity. According to the tale, the flute brought harmony to the nation and ushered in an era of peace. PungRyu Ensemble connects this symbolism with the sea of Busan, expressing that, like unceasing waves, the legacy of traditional music continues to resonate today. In this performance, the original <Manpajeongsikjigok> is reinterpreted by incorporating piano melodies, becoming a bridge that links tradition and modernity, past and present, stage and audience—and ultimately, Korean music with the world.

09.26.(Fri.) 19:30 15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Music All Ages

소리도 Sori-island



단체소개

데라클은 한국형 오페라 창극을 기반으로, 단순한 계승을 넘어 차세대 창극을 창작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무대 언어를 탐구한다. 특히 지역 민담과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고, 전통의 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무대와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연출·제작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창극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잊혀 가는 지역 서사를 오늘날 관객과 세계 무대에 연결할 수 있는 공연예술로 확장해 가고자 한다.

작품소개

부산문화재단 창작 지원 작품으로 선정된 수필 <오늘도 소리도>를 원작으로 한 1인 창작 소리극이다. 소리꾼이 한 집안의 가정으로 척박한 섬에서 살아가는 노수부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옛 한국 어부들의 삶과 인생 이야기가 녹아 있다. 전통 판소리 형태의 곡부터 다양한 창작곡까지 활용하여 노수부의 희로애락과 삶,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바다를 사랑하는 인물인 노수부를 등장시켜, 작품은 감동과 재미,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생태 의식을 일깨워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밴드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deracl.official
www.deracl.com
출연진 CAST 소리꾼(Singer)-이지윤(Jiyun Lee)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er)-이강원(Kangwon Lee) 연출(Director)-이지윤(Jiyun Lee) 작곡(Composer)-동다운(Dawn Dong) 크루(Crew)-김형탁(Hyeongtak Kim)

데라클 Deracl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1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 1 / Staff 3)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7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7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Deracl, based on Korean-style opera Changgeuk, goes beyond mere inheritance to create next-generation Changgeuk, exploring a new stage language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Drawing inspiration from regional folktales and legends, they craft original stories that reinterpret the roots of tradition in a contemporary context, bringing them to life through both stage and music. By independently managing every aspect of their productions—from planning and directing to performance and production — they strive to broaden the audience for Changgeuk and transform forgotten local narratives into performing arts that resonate with contemporary audiences and reach the global stage.

ABOUT THE WORK

A one-person creative Changgeuk performance based on the essay <Today, the Sound Too>, selected for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Creation Support Program. The vocalist narrates the story of Nosubu, the head of a family living on a harsh island, interweav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traditional Korean fishermen. Through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pansori and original compositions, the performance vividly conveys Nosubu's joys, sorrows, and emotions. His deep love for the sea creates moments that are both moving and entertaining, offering comfort while promoting ecological awareness. Reinterpreted in a contemporary style, the piece is presented in a band performance format.

09.26.(Fri.) 20:00
15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션과 티미의 '너와 나의 이야기' Shun and Timi's 'The Story of You and Me'



단체소개

싱어송라이터 션(Shun)과 티미(TIMI)로 이루어진 음악 듀오이다.

작품소개

션(Shun)과 티미(TIMI)가 담백한 어쿠스틱 사운드로 전하는 감성 듀엣이 <새벽 가로수길>과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자작곡 <Happy Ending>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넘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한다.

@shun_1001

출연진 CAST 보컬(Vocal)-션(Shun) 보컬 & 기타(Vocal & Guitar)-티미(TIMI)

제작진 CREDITS <Happy Ending> 작곡(Composer)-션(Shun)

셔니티미 Shunitimi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Shun and TIMI are a music duo of singer-songwriters.

ABOUT THE WORK

A heartfelt acoustic duo of Shun and TIMI conveys emotions through songs like <Morning Tree-Lined Street>, <Dry Flower>, and their original composition <Happy Ending>, singing messages of comfort and hope beyond the pain of parting.

09.26.(Fri.) 20:15
15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월요일 좋아 Monday is good



단체소개

해피먼데이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월요일 좋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공연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음악이 가진 감동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해피먼데이가 준비한 무대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소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때로는 말보다 음악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관객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이번 무대는, 소박한 무대 구성 속에서도 진정성을 담아 각 곡이 지닌 서정성과 서사를 더욱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한다.

@serene_deu_
www.music.deu.ac.kr

출연진 CAST 보컬(Vocal)-곽동진(Dongjin Kwak) 키보드(Keyboard)-김하진(Hajin Kim) 신디사이저(Synthesizer)-김세운(Seun Kim) 기타(Guitar)-문민성(Minsung Moon) 베이스(Bass)-제성은(Sungeun Je) 드럼(Drum)-허희수(Heesoo Heo)

제작진 CREDITS 작곡(Composer)-최우린(Woorin Choi)

해피먼데이 Happy Monda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Happy Monday is a team of music students from Dongui University's Department of Music, aiming to connect with the audience through various musical experiments. Although our performance, <Monday is good>, is brief, we hope i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Through the stage we have prepared, we wish to share the emotion and energy of music and bring a small resonance to everyone's day.

ABOUT THE WORK

<Monday is good> is a work that aims to convey a brief but deep resonance. Even without being flashy, we prepared the stage with the belief that music can sometimes tell more than words ever could. We hope to present a performance that gently touches the hearts of the audience. While the stage may be simple, it is imbued with sincerity, highlighting the lyricism and storytelling inherent in each song.

09.26.(Fri.) 20:30
20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I AM OK!



단체소개

AMOK는 2023년 부산에서 결성된 4인조 밴드로, 이름은 KOMA라는 동아리명을 거꾸로 따왔다. 보컬 & 기타 하상윤, 기타 장성준, 베이스 장우영, 드럼 김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불완전한 청춘을 오버드라이브 속에 담아내고 있다. 2023년 첫 싱글 <벌바람>을 시작으로 <활공>을 발매했으며, 2024년 10월 EP <Oblivion>을 발매하며 활동해 왔고, 2025년 7월 26일 EP <I AM OK!>를 발매했다. 강렬한 음향 속에 감성적 멜로디를 결합한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작품소개

반복되는 무기력한 하루, 말하지 못한 사랑, 무너질 듯한 절망, 사라져 버린 계절 속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I AM OK!>에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며 피워낸, 극복의 정서를 담았다. 이 공연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의 토로를 넘어, 함께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다짐이자 응원이다.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단단한 한마디로 응축된다. “난 괜찮아”

아모크

AMOK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4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4 / Staff 0)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4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4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AMOK is a four-member band formed in 2023 in Busan, with a name derived by reversing their club's name, KOMA. The lineup consists of vocalist and guitarist Ha Sang-yun, guitarist Jang Sungjun, bassist Jang Wooyoung, and drummer Kim Minseo. We channel the raw energy of incomplete youth into overdriven sound. Starting with our first single <Wind of Field> in 2023, followed by <Glide>, we released the EP <Oblivion> in October 2024, and most recently the EP <I AM OK!> on July 26, 2025. Our music combines the powerful sound with emotional melodies, aiming to resonate deeply with listeners.

ABOUT TH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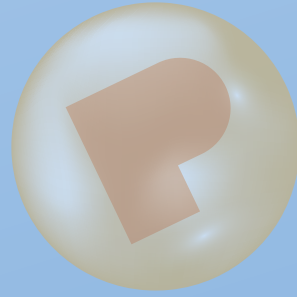
A repetitive and weary day, unspoken love, despair that feels like it might break us, and even within the vanished seasons—the will to rise again persists. <I AM OK!> embodies the spirit of resilience nurtured through such moments. This performance goes beyond simple comfort or emotional release it is a pledge and encouragement to endure together and move forward. Though we may falter or stumble at times, it reminds us that we can stand up again. All of these experiences are distilled into a single, strong phrase: “I AM OK!”

@band_amok

출연진 CAST 보컬(Vocal)-하상윤(Sangyun Ha) 기타(Guitar)-장성준(Sungjun Jang), 하상윤(Sangyun Ha) 베이스(Bass)-장우영(Wooyoung Jang) 드럼(Drum)-김민서(Minseo Kim)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아모크(AMOK) 작곡(Composer)-장성준(Sungjun Jang) 작사(Lyricist)-하상윤(Sangyun Ha) 편곡(Arranger)-아모크(AMOK)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STREET

BPAM STREET 소개

2025 부산거리예술축제(Street B)

부산거리예술축제(Street B)는 부산의 개성 있는 도시 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축제입니다.

Street B는 공연 실연을 넘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거리예술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매직페스티벌,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 등 해외 축제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거리예술축제(Street B)는 다원, 서커스, 무용, 음악 등으로 구성된 11개국 32개 작품과 함께하며, 해운대해수욕장 일원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에서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2025 Busan Street Arts Festival (Street B)

The Busan Street Arts Festival (Street B) presents a wide range of street arts performances throughout Busan's distinctive urban spaces. It encourages experimental and creative artistic expression while offering citizens the chance to enjoy culture in their everyday lives.

Far beyond just a series of performances, Street B fosters a sustainable street art ecosystem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ach, in collaboration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It also partners with overseas festival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and the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bringing audiences a diverse lineup of world-class performances.

This year, Street B will feature 32 works from 11 countries, spanning multidisciplinary arts, circus, dance, music, and more.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September 27 to 28 at Haeundae Beach and the Busan Eurasia Platform Outdoor Plaza. We invite you to join us and experience the vibrant energy of Street B!



부산거리예술축제 스팟 Street B SPOT

SPOT A(Main Stage)
해운대 해수욕장-해운대 이벤트 광장
Haeundae Beach Event Square

SPOT B
그랜드조선-파라다이스 사이 소광장
Small Square between the Grand Josun and Paradise Hotels (Haeundae Beach)

SPOT C
파라다이스 본관-신관 사이 소광장
Small Square between Paradise Hotel Main Building and Annex (Haeundae Beach)

SPOT D
유라시아 플랫폼 야외광장
Outdoor Square at Busan Eurasia Platform



STREET SCHEDULE

09.27.(Sat.)				
Venue Date	SPOT A	SPOT B	SPOT C	SPOT D
	해운대해수욕장 Haeundae Beach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 Busan Eurasia Platform
13:00	요거 YOUGUR (40')			
13:30		코미디 히어로 쇼 COMEDY HERO SHOW (30')		
14:00	예술과 전통의 변주 Twist of Art and Tradition (30')		우주극장 Woojoo Theater (30')	
14:30		찰나의 풍선 예술 Ephemeral Balloon Art (20')		
15:00	향수 Nostalgia (35')		로터리 프로젝트 Rotary Project (20')	미스 안티포드 Miss Antipode - The Dancing Dots (20')
15:30		저글링 드럼 쇼 Juggling Drum Show (30')		
16:00		종 THE BELLS - Par de Deux (40')		심표 Comma (30')
16:30		슈퍼 브레이크댄스 Super Breakdance (30')		
17:00	목림삼(木林森) Tree, Trees, Tres (35')		뜬구름차 The Floating Cloud Car (30')	열한 번째 시간 The 11th Hour (55')
17:30		나마스테쇼 Namaste Show (30')		
18:00		해적 Pirate (30')		
18:30	셀라 Selah (30')	썬문 카카 Sun Moon kyakya (30')		
19:00		재밌는 풍선 쇼 Funny balloon show (30')	종 THE BELLS - Par de Deux (40')	OffOn 연희해체 프로젝트 II (30')
19:30		유니크 앤 매직 Unique & Magic (30')		
20:00		빛의 행복 Happy of light (30')		
20:30	다크니스폼바 Darkness Poomba (45')			
21:00				

09.28.(Sun.)				
Venue Date	SPOT A	SPOT B	SPOT C	SPOT D
	해운대해수욕장 Haeundae Beach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 Busan Eurasia Platform
13:00			꼬마야, 꼬마야 Little Kid, Little Kid (40')	
13:30		두 발 자유화 What a Wonder Foot World (35')		목적 PURPOSE (35')
14:00	미스 안티포드 Miss Antipode - The Dancing Dots (20')		줄로하는 공연 A Show with Strings (30')	
14:30		향수 Nostalgia (35')		와작 WAZAC (30')
15:00	철의 기원 Origin of Steel (30')		요거 YOUGUR (40')	
15:30		찰나의 풍선 예술 Ephemeral Balloon Art (20')		
16:00	저글링 드럼 쇼 Juggling Drum Show (30')		종 THE BELLS - Par de Deux (40')	
16:30		슈퍼 브레이크댄스 Super Breakdance (30')		
17:00	열한 번째 시간 The 11th Hour (55')			
17:30		예술과 전통의 변주 Twist of Art and Tradition (30')	낭만유랑극단 : 마차극장 Romantic Wandering Troupe (35')	
18:00		유니크 앤 매직 Unique & Magic (30')		
18:30		썬문 카카 Sun Moon kyakya (30')		
19:00		재밌는 풍선 쇼 Funny balloon show (30')	종 THE BELLS - Par de Deux (40')	
19:30		빛의 행복 Happy of light (30')		
20:00		해적 Pirate (30')		
20:30	숨 SU:M (35')			
21:00				

요거 YUGUR

카를로 모 Carlo Mò



09.27.(Sat.) 13:00 | SPOT A 40min.
09.28.(Sun.) 15:00 | SPOT C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스페인 Spai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연극 기반 클라운 예술을 발전시켜온 아티스트로, 몸짓과 물리적 유머 등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ist who has advanced theater-based clowning, presents original stages centered on gesture, physical humor, and uniquely expressive performance.

작품소개

카를로 모(Carlo Mò)는 삶의 짐처럼 등 뒤에 벽을 지고 나타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한다. 그는 부조리함으로 그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ABOUT THE WORK

Carlo Mò appears carrying a wall on his back like the burdens of life, struggling to survive. Through absurdity, he gives meaning to both his life and ours.

출연진 CAST 카를로스 페레르 아스나르(Carlos Pérez Aznar)

제작진 CREDITS 기획 및 연출(Producer)-카를로스 페레르 아스나르(Carlos Pérez Aznar)

✉ @DavidBergaAgent

예술과 전통의 변주 Twist of Art and Tradition

리차드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Richard Circus Entertainment



09.27.(Sat.) 14:00 | SPOT A 30min.
09.28.(Sun.) 17:30 | SPOT B

서커스 Circus

가나 Ghan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가나 출신의 거리 공연자로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그는 아프리카 토종 예술 장르들을 결합하여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해나가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street performer from Ghana with over 15 years of experience, he blends indigenous African art forms, creatively carrying forward and reimagining traditional culture.

작품소개

전통적인 아프리카 아크로바틱 댄스, 컨트션, 오브제 등을 결합하여 창의성과 기술,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고,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ABOUT THE WORK

By combining traditional African acrobatic dance, contortion, and object work, he celebrates creativity, skill, and cultural heritage while offering audiences a visually captivating experience.

출연진 CAST 리차드 아린풀(Richard Arhinful)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리차드 아린풀(Richard Arhinful)

Richard Circus Entertainment | @richard_circusstar

향수 Nostalgia

룸바 Rumba



09.27.(Sat.) 15:00 | SPOT A 35min.
09.28.(Sun.) 14:3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아르헨티나 Argentin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 Staff 2)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 Staff 2)

단체소개

2019년 설립된 서커스 단체이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산마르틴 국립대학교 서커스 학과를 졸업한 후, 각자의 경험과 장르를 융합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 왔다.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19, this circus company was formed by graduate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an Martín's circus program in Argentina, merging their experiences and genres into a unique artistic world.

작품소개

이 작품은 아로바틱과 코미디 등의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의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ABOUT THE WORK

This work uses acrobatics, comedy, and other techniques to evoke longing and nostalgia for the past.

출연진 CAST 루시아나 데니노(Luciana Denino), 후안 크루즈 라니에리(Juan Cruz Ranieri)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루시아나 데니노(Luciana Denino), 후안 크루즈 라니에리(Juan Cruz Ranieri)

@cia.rumba

코미디 히어로 쇼 COMEDY HERO SHOW

저글맨 JUGGLMAN



09.27.(Sat.) 13:30 | SPOT B 30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저글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무대에는 슈퍼맨 컨셉의 의상과 음악이 등장하여 관객들을 흥미롭게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ist who shares joy and happiness through juggling, he captivates audiences with performances featuring Superman-themed costumes and dynamic music.

작품소개

저글링과 마임, 밸런스 묘기로 관객과 소통하는 퍼포먼스! 이 작품은 저글링과 마임, 밸런스 묘기를 통해 관객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히어로물이자 서커스이다.

ABOUT THE WORK

A performance of juggling, mime, and balance that connects with the audience! This work is both a circus and a hero show, inviting shared laughter and joy.

출연진 CAST 오장욱(Jangwook Oh)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오장욱(Jangwook Oh)

저글링 드럼 쇼

Juggling Drum Show

저글링 드러머 '가쿠'
GAKU : The Juggling Drummer



09.27.(Sat.) 15:30 | SPOT B 30min.

09.28.(Sun.) 16:00 | SPOT A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고난도 저글링과 빼어난 드럼 연주 실력으로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킨 유일무이한 공연자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one-of-a-kind performer who captivates audiences worldwide with his exceptional juggling and outstanding drumming skills.

작품소개

드럼을 활용한 저글링 쇼와 정교한 드럼스틱 저글링으로 세계 각국의 축제무대에서 활약한 그는 짜릿한 불 퍼포먼스를 더하여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ABOUT THE WORK

With drum-based juggling and precise drumstick tricks, he has performed at festivals worldwide, adding thrilling fire acts that amaze and delight audiences.

출연진 CAST 카이세이 나카무라(Kaisei Nakamur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카이세이 나카무라(Kaisei Nakamura)

@jugglingdrummergaku

나마스테쇼

Namaste Show

매직큐 Magic-Q



09.27.(Sat.) 17:30 | SPOT B 30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실험적 예술을 통해 기존의 문화적 규범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그들은 예술을 통해 창의성을 지니며 대중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ollective that seeks to break away from conventional cultural norms through experimental art, they pursue creativity while engaging closely with the public through their artistic activities.

작품소개

부산으로 여행 온 인도 마술사와 함께 모두가 하나쯤 간직하고 있는 각자의 순수한 동심의 꿈을 기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 가득한 마술공연이다.

ABOUT THE WORK

A magic performance with an Indian magician visiting Busan, where audiences recall cherished childhood dreams and create lasting memories together.

출연진 CAST 박준영(Juneyoung Park)

제작진 CREDITS 기획 및 연출(Producer)-박준영(Juneyoung Park)

종

The BELLS - Par de Deux

극단 5 앵그리맨
5 Angry Men Theatre Company



09.27.(Sat.) 16:00, 19:00 | SPOT C 40min.

09.28.(Sun.) 16:00, 19:00 | SPOT C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호주 Australi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호주를 대표하는 공연 기획사로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장르 파괴적 공연을 선보여 왔다. 그들은 약 30년 간, 거리를 경이로운 예술의 장으로 채우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s one of Australia's leading production companies, they present genre-defying works that merge diverse forms. For nearly 30 years, they have transformed streets into stages of wonder.

작품소개

새롭고 낯선 공간에서 과거에 만난 적 있었던 사람들을 발견한다. 이제 그들을 함께 힘을 모아 경이롭고 환희에 찬, 하지만 아름답고도 고된 임무 "THE BELLS"를 올리는 여정에 헌신한다.

ABOUT THE WORK

In a new and unfamiliar space, they discover people once met in the past. Together, they embark on "THE BELLS" a wondrous yet arduous journey filled with joy and devotion.

출연진 CAST 배우(Actor)-테인 번(Tain Byrne), 로드리고 칼데론(Rodrigo Calderón)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er)-스티븐 필립스(Stephen Phillips)

연출(Director)-로드리고 칼데론(Rodrigo Calderón), 캣 캐링턴(Kat Carrington), 스티븐 필립스(Stephen Phillips)

@5angrymen

미스 안티포드

Miss Antipode - The Dancing Dots

양리웨이 Yang Li Wei



09.27.(Sat.) 15:00 | SPOT D 20min.

09.28.(Sun.) 14:00 | SPOT A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만 Taiwan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단체소개

그녀는 '일상적 사물'을 이용해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귀여운 치마를 입고 무대에 오르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She performs with "everyday objects," always appearing in a charming skirt to enhance intimacy with audiences and create a warm, playful stage presence.

작품소개

그녀는 특유의 매력으로 관객들과 친밀히 소통하지만, 때로는 100kg에 달하는 물건을 손끝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ABOUT THE WORK

With her unique charm, she engages closely with audiences, while at times demonstrating the strength to balance objects weighing up to 100kg on her fingertips.

출연진 CAST 양리웨이(Yang Liwei, 楊立微)

제작진 CREDITS 기술 연출(Technical Director)-라이관즈(Lai Kuan-Chih, 賴寬誌)

楊立微 Liwei | @yangliweif023

열한 번째 시간 The 11th Hour

데카댄스 컴퍼니 DECADANCE Co



09.27.(Sat.) 17:00 | SPOT D 55min.

09.28.(Sun.) 17:00 | SPOT A

무용 Dance

싱가포르 Singapore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단체소개

그들은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을 현대무용을 통해 포용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들의 목표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작업을 진행하여 여러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strive to embrace diverse generations through contemporary dance, aiming to inspire both artists and audiences while fostering connections across multiple communities.

작품소개

이 작품은 인류가 마주해야 할 죽음과 사후세계를 다룬다. 작품은 두 개의 작은 소공연으로 구성되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신화와 두려움, 그리고 부조리함을 탐구한다.

ABOUT THE WORK

This work confronts humanity's encounter with death and the afterlife. Comprising two short pieces, it explores the myths, fears, and absurdities surrounding our final moments.

출연진 CAST 레이첼 럼(Rachel Lum), 응 주 유(Ng Zu You), 조앤 시오(Joanne Seow), 스테파니 레 요옹(Stephanie Rae Yoong), 에드윈 위(Edwin Wee), 오 지아 하오(Oh Jia Hao)

제작진 CREDITS 연출(Producer)-에드윈 위(Edwin Wee)
안무(Choreographer)-레이첼 럼(Rachel Lum), 샘 코렌(Sam Coren)

@@deca.danceco | Decadance Co

목림삼(木林森) Tree, Trees, Tres

64줄(J) 64J(Joule)



09.27.(Sat.) 17:00 | SPOT A 35min.

연극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단체소개

줄(J)은 서커스의 '줄'과 에너지의 단위 '줄(Joule)'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64kg의 체중으로 구성된 공연자 박상현의 신체운용을 위한 에너지의 양이기도 하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 word "Jul(J)" refers both to the circus rope and the energy unit "joule," symbolizing the force and energy embodied in performer Sanghyun Park's 64kg body.

작품소개

만물의 균형을 주관하는 균형의 신이 과도하게 디지털화된 현대사회를 못마땅하게 여겨, 균형의 수호를 위해 균형요원들을 보낸다. 과연 요원들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ABOUT THE WORK

The God of Balance, displeased with an overly digitalized society, sends agents to restore harmony. Will these guardians succeed in fulfilling their mission?

출연진 CAST 박상현(Sanghyun Park), 오동규(Dongkyu Oh), 한기훈(Giyun Han)

제작진 CREDITS 기예 구성(Circus Act Director)-박상현(Sanghyun Park) 오브제 제작(Objet Designer)-신재욱(Jaewook Shin) 음악(Musician)-신세빈(Sebin Shin)

@@64jofficial

셀라 Selah

바라로프트 서울 BARA LOFT SEOUL



09.27.(Sat.) 18:30 | SPOT A 30min.

무용/음악 Dance/Music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0명(출연자 18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20 (Performers 18 / Staff 2)

투어인원 총 20명(출연자 18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20 (Performers 18 / Staff 2)

단체소개

현대무용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있으며, LG아트센터, 국립극장 등에서 춤,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평단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This troupe unites contemporary dance with orchestra, presenting innovative performances that blend movement and music at venues such as LG Arts Center and the National Theater, earning wide acclaim.

작품소개

"셀라"는 '음을 높이라'는 악상기호로 작품은 무용, 스트리트댄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정교하게 맞물리며 공연의 분위기를 극한까지 고조시킨다.

ABOUT THE WORK

"Selah" meaning "raise the note," unites dance, street performance, and orchestral music in perfect sync, driving the performance's atmosphere to its peak.

출연진 CAST 무용수(Dancer)-권기원(Giyeon Kwon), 김규태(Gyotae Kim), 김미진(Mijin Kim), 김준서(Junseo Kim), 김재희(Chaehee Kim), 김태현(Taehyeon Kim), 신혜수(Hyeseo Shin) 연주자(Instrumentalist) 바이올린(Violin)-한승현(Sanghyeon Han), 김경민(Kyungmin Kim) 바이올린2(Violin2)-채종현(Jonghan Chae), 한주희(Juhee Han) 비올라(Viola)-박지영(Jiyoung Park), 비올라2(Viola2)-이재원(Jeywon Lee) 첼로(Cello)-유요섭(Yoseob Woo) 첼로2(Cello2)-고준영(Junyoung Go) 피아노(Piano)-유재림(Chaerim Yoo) 드럼(Drum)-안석주(Saekju Ahn) 전자음악(Electronic Music)-정주원(Jeongwon Jeong)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 안무(Artistic Director, Choreographer)-오형관(Hyoungeun Oh) 음악감독, 작곡(Music Director, Composer)-정주원(Jeongwon Jeong) 음악조감독(Music Assistant Director)-유재림(Chaerim Yo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전운서(Jeonsoo Jeon) 리허설 디렉터(Rehearsal Director)-김건우(Kimgunwoo Kim)

@@bara.loft

다크니스 품바 Darkness Poomba

모던테이블 Modern Table



09.27.(Sat.) 20:30 | SPOT A 45min.

무용 Dan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1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12 / Staff 1)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1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12 / Staff 1)

단체소개

한국적 움직임에 그들만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녹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남성 현대무용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male contemporary dance company that infuses Korean movement with its own explosive energy, actively performing both in Korea and abroad.

작품소개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강렬한 남성 군무가 인상적인 모던테이블의 대표작.

ABOUT THE WORK

A signature work of Modern Table, distinguished by its powerful male group dance that reinterprets Korean sentiments through a contemporary lens.

출연진 CAST 무용수(Dancer)-김재덕(Jaedeuk Kim), 이어린(Eoreen Lee), 정철환(Cheolhan Jeong), 엄세영(Seyeong Eom), 이준석(Junseok Lee), 최형규(Hyeonggyu Choi), 이기영(Kiyoung Lee), 김동규(Donggyu Kim) 밴드(Band Musicians) 드럼(Drum)-허성운(Seongeun Heo) 기타(Guitar)-허철주(Cheoljoo Heo) 베이스(Bass)-김현수(Hyunsoo Kim) 소리꾼(Traditional Singer)-류창선(Changseon Ryu)

제작진 CREDITS 안무, 작곡, 연출(Choreographer, Composer, Director)-김재덕(Jaedeuk Kim) 프로듀서(Producer)-김경진(Jenna Kyungjin Kim)

@@modern.table

오직 한사람을위한 미니어처시어터 1:1공연 <우주극장>

1:1 'Miniature Theater' performances for individual audience members <Woojoo Theater>

우주프로젝트 Woojoo Project



09.27.(Sat.) 14:00 | SPOT C

30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10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5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5 / Staff 1)

단체소개

1:1 소형 연극 공연을 통해 무한대의 가능성을 꿈꾸며 성장해 나가는 단체이다. 그들은 총 40여개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그들만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 group grows by envisioning infinite possibilities through intimate 1:1 theatre. With over 40 works, they share their unique creativity with audiences in distinctive performances.

작품소개

공연자와 관객이 1:1로 마주하며 특별하고 유일한 경험을 선물하는 공연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우주와 닮아있어 그들은 이 작품을 "우주극장"이라 칭하고 있다.

ABOUT THE WORK

A performance where artist and audience meet one-on-one, creating a unique and intimate experience. Its resemblance to the cosmos has led them to call it the "Woojoo(Universe) Theater."

출연진 CAST 고희희(Myunghee Ko), 김미섭(Miseob Kim), 김여은(Yeoeun Kim), 김은진(Eunjin Kim), 오정은(Jungeun Oh), 이강미(Kangmi Lee), 조하연(Hayeon Cho), 차선희(Sunhee Cha), 홍수정(Soojung Hong), 홍윤경(Yoonkyung Hong)

제작진 CREDITS 총괄감독(General Supervision)-이강미(Kangmi Lee)
프로듀서(Producer)-이재화(Jaehwa Jennifer Lee)

로터리 프로젝트 Rotary Project

청악 Cheongak



09.27.(Sat.) 15:00 | SPOT C

20min.

음악 Music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4명(출연자 14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4 (Performers 14 / Staff 0)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14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14 / Staff 0)

단체소개

전통연희의 원형을 발굴,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discover and preserve the essence of traditional performances, creating fusion content based on them. Their mission is to popularize, industrialize, and globalize Korea'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작품소개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가 만나 농악과 마칭의 진법을 나누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특히 특유의 기량을 뽐내는 독무는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ABOUT THE WORK

Blending Eastern and Western instruments with the formations of nongak and marching, they deliver a dazzling performance, with solo showcases leaving a strong impression on audiences.

출연진 CAST 장규(Janggyu)-진동규(Donggyu Jin) 징(Jing)-박요섭(Yosep Park)
쟁과리(Kkwaenggwari)-임채연(Chaeyeon Lim) 북(Buk)-구태경(Taekyung Gu) 지휘(Conductor)-정연승(Yeonseung Jeong) 태평소(Taepyeongso)-김동훈(Dongyun Kim) 퍼커션(Percussion)-윤원준(Hyunjun Yoon), 이재우(Jaewoo Lee) 심벌(Cymbal)-박경진(Kyungjin Park)
트럼펫(Trumpet)-박경모(Kyungmo Park), 이소윤(Soyoon Lee) 색소폰(Saxophone)-윤태완(Taewan Yoon), 최승현(Seunghyun Choi) 트럼본(Trombone)-박요한(Yohan Park)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진동규(Donggyu Jin) 편곡(Arranger)-박경모(Kyungmo Park)

뜨구름차 The Floating Cloud Car

매직스랩 MAGICS LAB



09.27.(Sat.) 17:00 | SPOT C

30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단체소개

기술을 문화예술로 확장하는 아트 테크놀로지 기반 예술 창작 단체이다. 그들은 거리에서 예술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며, 관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열린 무대를 지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technology collective that expands technology into culture and the arts. They experiment with new forms of street performance, creating open stages that connect naturally with audiences.

작품소개

이 작품은 비눗방울 퍼포먼스로 거리 위에 구름을 띄우는 한국 유일의 창작작품이다. 그들은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마법의 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ABOUT THE WORK

This work, Korea's only original bubble performance, sets clouds afloat above the street. They create magical moments that inspire both children and adults to look up at the sky.

출연진 CAST 정인욱(Inuk Jung)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er)-정현진(Hyunjin Jung)

연출(Director)-이준상(Junsang Lee) **드라마투르그(Dramaturg)**-

서남재(Namjae Seo) **음악(Music)**-이석원(Seokwon Lee)

디자인(Design)-박유빈(Yubin Park) **사진(Photograph)**-하지수(Jisu Ha)

심포 Comma

아이모멘트 I Moment



09.27.(Sat.) 16:00 | SPOT D

30min.

거리극 Street Theatr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단체소개

도시와 사람, 장소와 움직임 등을 주요 창작의 도구로 삼는 예술단체로 '나와 우리의 순간'을 시작으로 작품을 통해 현재의 이야기를 다룬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s collective that takes the city, people, places, and movement as its primary tools of creation. Beginning with "My and Our Moment", their works explore stories of the present through contemporary expression.

작품소개

이 작품은 창작자와 물류 배달 일을 병행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심 없이 이동하는 우유박스와 자동차가 이상과 허무를 오고 가는 이야기를 던진다.

ABOUT THE WORK

This work begins with the story of a creator who also works in delivery. Constantly moving milk crates and cars reflect a journey between ideals and futility.

출연진 CAST 노제현(Jaehyun Nho), 강민지(Minji Ka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노제현(Jaehyun Nho) **무대감독(Stage Manager)**-신재욱(Jaewook Shin) **프로듀서(Producer)**-임현진(Jin Yim)

OffOn 연희해체 프로젝트 II

OffOn Yeonhee Project II

리퀴드사운드 LIQUIDSOUND



09.27.(Sat.) 19:00 | SPOT D

30min.

음악 Music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6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6 / Staff 4)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6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6 / Staff 4)

단체소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는 단체이다. 그들은 전통을 단순히 계승하지 않고, 많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전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This group fuses diverse genres on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arts. Rather than merely inheriting tradition, they seek its evolving identity through collaborations with many artists.

작품소개

연희의 요소 중 일부에서 'Off' 되어 자유로워지고, 다른 새로운 것들과 'On' 되어 맺는 관계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ABOUT THE WORK

This work steps "off" from certain elements of yeonhui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to gain freedom, and focuses on turning "on" to new connections formed with other elements.

출연진 CAST 박세호(Seho Park), 이명모(Myongmo Yi), 송창현(Changhyun Song) 무용수(Dancer)-손은교(Eungyo Son), 박수연(Suyeon Park), 이시현(Sihyun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인보(Inbo Lee) 안무(Choreographer)-심주영(Juyong Shim) 작곡가(Composer)-주준영(Juneyoung Joo) 무대디자이너(Stage Designer)-이휘순(Hwison Lee)

IG @liquidsound_official_

철의 기원

Origin of Steel

국악타악그룹 버숨새 Buseomsea



09.28.(Sun.) 15:00 | SPOT A

30min.

음악 Music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7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7 / Staff 0)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7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7 / Staff 0)

단체소개

전통연희에 비언어적 예술과 신체 활용 퍼커션 예술을 융합하여 독창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연희가 전통영역을 넘어 새로운 장르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fuse traditional performance with nonverbal arts and body-percussion, building a unique creative world. They believe traditional arts can grow beyond heritage into a new contemporary genre.

작품소개

울산 지역의 전통 제철 기술인 쇠부리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 타악기와 쇠로 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노동자들의 열정, 도전과 좌절 등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ABOUT THE WORK

Based on Ulsan's traditional iron-making culture, this work uses traditional percussion and iron tools to artistically express workers' passion, challenges, and struggles.

출연진 CAST 유병기(Byeongki Yoo), 권도균(Dokyun Kwon), 장평(Pyeong Jang), 하동호(Dongho Ha), 황동윤(Dongyoon Hwang), 전상오(Sangoh Jeon), 김희준(Heejun Kim)

숨

SU:M

공연창작집단 사람 Creative group A PERSON;S



09.28.(Sun.) 20:30 | SPOT A

35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1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 1 / Staff 3)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1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 1 / Staff 3)

단체소개

서커스와 신체 행위를 기반으로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performing arts collective that draws on circus and physical expression to reflect diverse human experiences, while experimenting with a wide range of artistic forms.

작품소개

30M 고공 밧줄 프로젝트.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놓인 한 사람이 살아감을 말한다.

ABOUT THE WORK

A 30-meter High-Rope Project. It tells the story of a person living on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출연진 CAST 서상현(Sanghyun Se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서상현(Sanghyun Seo) 무대감독(Stage Manager)-차진광(Jinkwang Cha) 기획(Producer)-임현진(Hyunjin Yim) 음향 오퍼레이터(Music Operator)-바네사(Vanessa)

두 발 자유화

What a Wonder Foot World

우주마인드프로젝트 Would You Mind Project



09.28.(Sun.) 13:30 | SPOT B

35min.

연극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언어와 시각이 결합된 공연을 지향하고, 전통 극장 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추구한다. 그들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pursue performances combining language and visuals, exploring forms beyond traditional theater. Drawing on questions of human connection, they employ diverse stage elements in their work.

작품소개

관객과 함께 길을 만들고 걸어가는 이동형 공연 작품이다. 자유를 향한 욕망과 현실 사이의 복잡성을 표현적 움직임과 음악적 이미지를 통해 유쾌하게 탐구한다.

ABOUT THE WORK

A traveling performance created while walking with the audience, it playfully explores the tension between the desire for freedom and reality through expressive movement and musical imagery.

출연진 CAST 김승언(Seungeon Kim), 신문영(Moonyoung Shin)

제작진 CREDITS 작가/연출(Writer/Director)-김승언(Seungeon Kim), 신문영(Moonyoung Shin)

FB Would You Mind Project

꼬마야, 꼬마야 Little Kid, Little Kid

극단 여기, 우리 Theater Group Here, we are



09.28.(Sun.) 13:00 | SPOT C

40min.

가면극 Mask Theatr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5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5 / Staff 1)

단체소개

다원예술단체로서 마임, 공연예술, 인형극 등의 장르를 융합하여 관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다 함께 웃을 수 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s a multidisciplinary arts collective, they blend mime, performing arts, and puppetry to create works that foster closer communication with audiences, invite shared laughter, and evoke empathy from all.

작품소개

배우들의 연주와 마임, 관객 참여로 함께 완성되는 할머니들의 유쾌한 놀이터 이야기이다.

ABOUT THE WORK

A delightful playground story of grandmothers, brought to life through the actors' music and mime, and comple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출연진 CAST 멜로디카(Melodica)-김유인(Uin Kim) 바이올린(Violin)-박진희(Jinhee Park) 퍼커션(Percussion)-박이정화(Junghwa Park Lee) 건반(Keyboard)-홍윤경(Yoonkyung Hong) 기타(Guitar)-김도윤(Doyun Ki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유인(Uin Kim) 작,편곡, 음악감독(Composer, Arranger, Music Director)-김도윤(Doyun Kim)

@00here_we_are00

줄로하는 공연 A Show with Strings

일장일단 컴퍼니 Long & Short Company



09.28.(Sun.) 14:00 | SPOT C

30min.

연극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공연창작자 이대열의 1인 극단이다. 클라운, 인형, 오브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가벼운 형식 속 진중함을 담은 공연을 지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one-person theatre company led by performance creator Lee Daeyeol, focusing on clowning, puppetry, and objects. The company pursues works that embody depth and sincerity within lighthearted forms.

작품소개

줄을 활용한 광대극이자 인형극이다. 공연자는 줄 한 가닥으로 끊임없이 기발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공연자와 관객은 줄을 통해 연결되고, 얽히고, 풀리고, 잘려나가 흩어진다.

ABOUT THE WORK

A clown and puppet show using a single rope, where the performer creates endless inventive scenes. The performer and audience connect, entangle, unravel, and scatter through the rope.

출연진 CAST 이대열(Daeyeol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대열(Daeyeol Lee)

@ilddan_dot

낭만유랑극단 : 마차극장 Romantic Wandering Troupe

극단 분홍양말 Theater Pinksocks



09.28.(Sun.) 17:30 | SPOT C

35min.

연극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야외 공연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극장 공연 총 8명(출연자 2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Outdoor Performance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Theatre Performance Total 8 (Performers 2 / Staff 6)

단체소개

광대극, 코미디를 중심으로 공연을 창작하고 있다. 그들은 놀이처럼 가볍게 소통하는 공연을 지향하며, 관객들이 그들과 마주한 경험을 오랜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라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create performances rooted in clowning and comedy, aiming for playful, close interaction. They hope each encounter leaves audiences with lasting memories of shared joy.

작품소개

이 작품은 꿈과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들의 무대이다. 예술을 찬양하는 단장의 지휘 아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한 꿈으로 무대를 빛낸다.

ABOUT THE WORK

This work is the stage of artists traveling the world with dreams and passion. Under the direction of a leader who celebrates art, diverse lives unite to create one shared dream.

출연진 CAST 단장 역(Leader of Troupe)-이재홍(Jaehong Lee) 악사 역(Musician)-이자원(Jawon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재홍(Jaehong Lee) 협력연출(Co-Director)-이대열(Daeyeol Lee) 출연진(Performer)-이재홍(Jaehong Lee), 이자원(Jawon Lee) 음악감독(Music)-연리목(Yonri Mog) 연주자(Musician)-이자원(Jawon Lee) 오브제 디자인 및 제작(Objet Designer)-이재홍(Jaehong Lee), 육종근(Jonggeun Ok) 무대 디자인(Stage Designer)-유다이(Dami Yoo) 무대제작자 키스태이저아트(Stage builder 21 Stage art) 무대감독(Stage Director)-이상혁(Sanghyuk Lee) 배우 의상 디자인 및 제작 예드(Costume Designer)-강재영(Jaeyoung Yang) 인형 의상 제작(Puppet Costume)-배석빈(Seokbin Bae)

이 작품은 인천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His work was produced with the support of the Incheon Cultural Foundation and the Gwangmyeong Cultural Foundation.

목적 PURPOSE

리타이틀 LETITLE



09.28.(Sun.) 13:30 | SPOT D

35min.

무용 Dan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단체소개

공공의 공간에 그들만의 움직임과 서사를 입혀 익숙한 풍경 속 낯선 감각을 관객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s collective that imbues public spaces with their own movements and narratives, evoking unfamiliar sensations within familiar landscapes for the audience.

작품소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거리무용작품.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색빛 일상에 "멈춤"의 순간을 선물한다.

ABOUT THE WORK

A street dance piece that asks modern people where they are heading. It offers a moment of "pause" amid the gray, wheel-like routines of daily life.

출연진 CAST 무용수(Dancer)-양석진(Seokjin Yang), 권주혁(Juhyuk Kwon), 이재명(Jaemyeong Lee), 정재훈(Jaehoon Jung) 배우(Actor)-우승우(Seungwoo Wo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양석진(Seokjin Yang), 권주혁(Juhyuk Kwon) 안무(Choreographer)-김찬희(Chanhee Kim), 이재명(Jaemyeong Lee) 드라마트르기(Dramaturgie)-서동욱(Dongwook Seo) 사운드오퍼레이터(Sound Operator)-이예진(Yejin Lee) 프로듀서(Producer)-강유진(Yoojin Kang)

와작 WAZAC

에이런크루 A-Run Crew



09.28.(Sun.) 14:30 | SPOT D 30min.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연출가 1명 / 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6 (Director 1 / Performers 4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연출가 1명 / 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6 (Director 1 / Performers 4 / Staff 1)

단체소개

브레이크킹 댄스의 역동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스트리트댄스의 예술적 가치를 전하고 있으며 거리예술과 스트리트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ollective that conveys the artistic value of street dance through the dynamism and originality of breaking, while leading the popularization of street arts and street culture.

작품소개

브레이크킹과 각종 오브제를 통해 개인이 가진 불안과 소외된 감정을 표현하며,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 서로에게 기대고 연결되어 함께 단단해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ABOUT THE WORK

Through breaking and wooden props, this work expresses personal anxiety and feelings of isolation, portraying how fragile beings connect, lean on one another, and grow stronger together.

출연진 CAST 무용수(Dancer)-서진호(Jinho Seo), 양재원(Jaewon Yang), 이가형(Gahyoung Lee), 장원우(Wonwoo Cha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윤종연(Jongyeoun Yoon)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황선진(Sunjin Hwang) 영상 & 사진(Video & Photograph)-이은지(Eunji Lee)

찰나의 풍선 예술 Ephemeral Balloon Art

풍선 퍼포머 Ray-麗-Balloon Performer Ray-麗-



09.27.(Sat.) 14:30 | SPOT B 20min.

09.28.(Sun.) 15:3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그녀는 풍선을 통해 마법과 감동, 그리고 영감을 선사하고자 하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rough balloons, she seeks to deliver magic, emotion, and inspiration, aiming to share "shining moments" with audiences around the world.

작품소개

풍선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전달하는 마술공연이다.

ABOUT THE WORK

A magic performance that uses balloons to deliver "shining moments" to the audience.

출연진 CAST 레이코 오사키(Reiko Osaki)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레이코 오사키(Reiko Osaki)

📷 @balloon_ray

슈퍼 브레이크댄스 Super Breakdance

쇼교무조 브라더스 SyogyoMujo Brothers



09.27.(Sat.) 16:30 | SPOT B 30min.

09.28.(Sun.) 16:30 | SPOT B

무용 Dance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그들은 본인들의 공연을 "슈퍼 브레이크댄스"라 지칭한다. 기존 브레이크댄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그들의 공연은 놀랍고, 멋있으며, 때론 유쾌하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y refer to their work as "Super Breakdance." Challenging conventional notions of breakdance, their performances are astonishing, stylish, and at times delightfully humorous.

작품소개

브레이크댄스에 유쾌함을 더하여 자칫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브레이크댄스를 관객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는 공연이다.

ABOUT THE WORK

A performance that adds humor to breakdance, making a style that might seem difficult more accessible and enjoyable for the audience.

출연진 CAST 무용수(Dancer)-토시-락 & 히로나가(Toshi-Rock and HIRONAG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도시아키 누마자와(Toshiaki Numazawa)

📷 @syogyobros

해적 Pirate

마술에 빠진 남자 A man in Magic



09.27.(Sat.) 18:00 | SPOT B 30min.

09.28.(Sun.) 20:0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마술과 서커스가 융합된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이다. 그는 관객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ist who creates performances blending magic and circus. He constantly designs stages where everyone in the audience can share in the enjoyment.

작품소개

보물을 찾아 나서는 해적처럼, 이 공연 속 해적은 웃음을 보물 삼아 여행을 떠난다. 마술과 서커스, 코미디가 결합된 퍼포먼스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쾌한 경험을 선사한다.

ABOUT THE WORK

Like a pirate in search of treasure, the pirate in this performance embarks on a journey where laughter itself becomes the prize. Blending magic, circus, and comedy, the show delivers a delightful experience for audiences of all ages.

출연진 CAST 이영주(Youngju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영주(Youngju Lee)

📷 @magicbar_

썬문 카카

Sun Moon kyakya

켄다마쉬 스크류 Kendamashi-Screw



09.27.(Sat.) 18:30 | SPOT B 30min.
09.28.(Sun.) 18:3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만 Taiw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단체소개

일본의 전통 장난감인 켄다마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작품으로 만들어 낸 예술가이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탄을 동시에 선사해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ist who reimagines the Japanese traditional toy kendama in unique ways, his performances charm audiences by offering both laughter and amazement.

작품소개

이 작품은 일본 전통 장난감 '켄다마'를 무대 예술의 매체로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일상적인 사물이 어떻게 예술의 정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ABOUT THE WORK

This work reinterprets the Japanese traditional toy "kendama" as a medium of stage art, showing how an everyday object can awaken the spirit of art and reveal new perspectives.

출연진 CAST 스크류(Screw)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스크류(Screw)

@kendamashi_taiwan

재밌는 풍선 쇼

Funny balloon show

마술사 '왕' Wong Magician



09.27.(Sat.) 19:00 | SPOT B 30min.
09.28.(Sun.) 19:0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다양한 색감의 풍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여러가지 사물을 만들어내는 마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관객 참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 스스로가 무대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magician who creates objects in real time using colorful balloons, his works invite audience participation, allowing spectators themselves to become part of the stage.

작품소개

그는 일평생을 어린이들을 위한 즐겁고 상상력이 가득한 공연을 만드는데 바쳐왔다. 그의 공연은 풍선 아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놀이 같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ABOUT THE WORK

He has devoted his life to creating joyful, imaginative performances for children. Centered on balloon art, his shows offer audiences playful, game-like experiences.

출연진 CAST 마이클 왕(Michael Wo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마이클 왕(Michael Wong)

@wongmagician

유니크 앤 매직

Unique & Magic

극단 마술사 나무 Namu the magician



09.27.(Sat.) 19:30 | SPOT B 30min.
09.28.(Sun.) 18:0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단체소개

그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독창적인 마술가'이다. 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충류가 등장하는 마술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마술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 phrase that best describes him is "an original magician." He is the only performer in Korea to present magic acts featuring reptiles, and he creates shows that combine elements from a variety of genres.

작품소개

국내에서 단 하나뿐인, 희귀 파충류가 함께하는 마술쇼! 마술과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신선한 즐거움과 잊지 못할 무대 경험을 선사한다.

ABOUT THE WORK

The only magic show in Korea featuring rare reptiles! Blending magic with this extraordinary performance element, it offers audiences fresh excitement and an unforgettable stage experience.

출연진 CAST 전용수(Yongsu Jun)

제작진 CREDITS 공연보조(Staff)-류종호(Jongho Ryu)

@namu_magician

빛의 행복

Happy of light

조바사고 매직 엔터프라이즈
Jovassago Magic Enterprise



09.27.(Sat.) 20:00 | SPOT B 30min.
09.28.(Sun.) 19:30 | SPOT B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 1 / Staff 0)

단체소개

전통적 손기술에 현대적 시각효과를 결합한 공연을 만들어내는 마술사이다. 그는 현대 마술의 표현 방식을 넓히기 위한 시각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magician who combines traditional sleight of hand with modern visual effects, he continues visual experiments to expand the expressive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magic.

작품소개

이 작품은 LED 특유의 매혹적 효과와 고전 및 현대미술을 결합한다. 빛은 역동적인 캔버스로 활용하며, 정교하게 짜인 영상 연출은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ABOUT THE WORK

This work fuses the captivating effects of LED with classical and contemporary art. Light becomes a dynamic canvas, while intricate visuals create an atmosphere where reality and illusion intertwine.

출연진 CAST 조바사고(Jovassag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조바사고(Jovassago)

@jovassago | @_jovassago_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청년프린지연합 | Busan Youth Fringe Alliance

부산청년프린지연합(Busan Youth Fringe Alliance)은 기성 기관에 의한 공식 플랫폼이 아닌 가장자리(Fringe)에서 출발한 Off 무대의 출발점이자,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의 청년 예술단체들이 모여 릴레이 쇼케이스형 프린지를 선보입니다.

Busan Youth Fringe Alliance began not as an official platform run by established institutions, but from the fringe—the creative edges. Young arts groups in Busan come together to present a relay-style fringe showcase, building a vibrant artistic ecosystem where young creators lead, experiment freely, and push boundaries.

핫팟 | HOTPOT

이스트 아시아 댄스 플랫폼은 한국, 중국, 일본 무용가들의 국제적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세 나라의 무용 분야에서 집중적인 쇼케이스와 교류를 추진하며 설립된 플랫폼입니다. 핫팟은 한-중-일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글로벌 무용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ast Asia Dance Platform is a platform establish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presence of dance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by intensively showcasing and promoting exchange in the field of dance among the three countries. Beyond facilitating exchan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 platform also serves as a gateway to connect with the global dance scene, including Europe and the Americas.



BPAM LINK

LINK SCHEDULE

핫팟 HOTPOT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무용 Dance	스며들다 Assimilating	20	09.27.(Sat.) 19: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Kyungsung University Concert Hall
	눈이 내리는 듯 As If Snowing	65	09.27.(Sat.) 19:50	
	자화상 연구 2025 Study for Self/Portrait 2025	40	09.28.(Sun.) 11:30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 Busan Eurasia Platform Outdoor Plaza
	허공 속으로 Into Thin Air	35	09.28.(Sun.) 12:20	

부산청년연합프린지 Busan Youth Fringe Alliance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다원 Multidis- ciplinary Arts	바다에 뿌리 내린 Rooted in the sea : Atlanta	20	09.25.(Thu.) 17:40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연극 Theater	고충처리반 윤미미 Mimi Yoon in the Grievance Office	20	09.25.(Thu.) 18:05	
연극 Theater	지워지지 않는 선들 The Indelible Lines	15	09.25.(Thu.) 18:30	
연극 Theater	판타스틱 카툰 Fantastic Cartoon	20	09.25.(Thu.) 18:50	
연극 Theater	월지문(月之吻) Woljimun : The Moon's Kiss	20	09.25.(Thu.) 19:15	
음악 Music	바다의 탱고 Tango del Mar (Tango of the Sea)	15	09.25.(Thu.) 19:40	
연극 Theater	XXXYY	15	09.25.(Thu.) 20:00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10,000원 들고 우리 경매 참여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먹겠다 Instead of Paying 10 Bucks to Join our Auction, I would Rather Buy a Hamburger Combo	15	09.25.(Thu.) 20:20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다원 Multidis- ciplinary Arts	그림 밖 500년 : 전우치 시대를 춤추다 500 Years Outside the Painting: Jeonwoochi, Dancing the Ages	20	09.25.(Thu.) 20:40	
연극 Theater	시물라크르 Simulacr	20	09.25.(Thu.) 21:05	
연극 Theater	몽키트랩 Monkey Trap	20	09.25.(Thu.) 21:30	
음악 Music	루츠리덤 트라이브 Rootsredeem Tribe	20	09.25.(Thu.) 21:55	
다원 Multidis- ciplinary Arts	솔리튜드 월 Solitude wall	20	09.25.(Thu.) 22:20	
연극 Theater	히키코모리(방탈출) Hikikomori	20	09.25.(Thu.) 22:45	

클래식부산 Classic Busan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음악 Music	HELLO 오페라 '마에스트로' HELLO OPERA 'Maestro'	55	09.27.(Sat.) 11:00 09.27.(Sat.) 14:00	부산콘서트홀 Busan Concert Hall

스며들다 Assimilating

우메다 히로아키 Hiroaki Umeda



09.27.(Sat.) 19:00 20mi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전체관람
KyungSung Univ. Concert Hall All Ages

무용 Dance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 1 / Staff 1)

단체소개

작품은 전 세계 150여 도시에 초청되었다. 무용과 안무를 넘어 음향, 영상, 조명 디자인을 통합한다. 안무가는 22~24년 Yokohama Red Brick Warehouse에서 활동했다.

ABOUT THE GROUP/COMPANY

Hiroaki Umeda's works have been presented in over 150 cities worldwide, integrating dance, choreography, sound, video, and lighting. He was active at Yokohama Red Brick Warehouse from '22~'24.

작품소개

안무가에게 무용과 인체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자연 현상이다. 작품은 인체와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유기적 그래픽 이미지를 몸짓이라는 공통 언어로 연결한다.

ABOUT THE WORK

For Umeda, dance and the human body are natural phenomena of interacting forces. <Assimilating> connects organic, physics-driven visuals through gesture, a universal language of motion.

제작진 CREDITS 안무/동작 디자인, 무용(Behaviour Design, Dance)-Hiroaki Umeda
음향디자인(Sound Design)-Hiroaki Umeda 영상디자인, 프로그램(Visual Design & Programming)-Hiroaki Umeda 제작(Production)-S20 공동 제작(Co-production)-Yokohama Red Brick Warehouse No.1 프로듀서(Producer)-Suzuko Tanoiri 주최(Organizer)-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1호관](Yokohama Dance Collection [Yokohama Red Brick Warehouse No.1]) 지원(Subsidy)-일본 정부 문화청(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통해)(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through the Japan Arts Council)

@s20hiroakiueda | www.hiroakiueda.com

눈이 내리는 듯 As If Snowing

시티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09.27.(Sat.) 19:50 65mi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전체관람
KyungSung Univ. Concert Hall All Ages

무용 Dance | 홍콩 Hong Kong

참가인원 총 1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1명)
Participants Total 14 (Performers 3 / Staff 11)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1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3 / Staff 11)

단체소개

1979년 창립된 Hong Kong's CCDC는 홍콩 문화를 반영한 작품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는다. 예술감독 Sang Ji-jia의 연출을 통해 홍콩 현대무용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1979, Hong Kong's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CCDC) draws on local culture, earning acclaim as Artistic Director Sang Ji-jia presents Hong Kong contemporary dance globally.

작품소개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인체가 지닌 기억과 삶에 대한 조용한 성찰을 보여준다. 눈이 내려 시간의 흐름을 지켜본다. 무대 위 기억과 상상은 굳거나 녹거나 흩어지거나 쏟아진다.

ABOUT THE WORK

<As If Snowing> quietly reflects on the body's memories and life through dancers' movements. Like snow, memory and imagination scatter and melt.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y)-Sang Ji-jia 드라마투르그(Dramaturgy)-Janice POON 음악(Music)-Li Chun Sung 조명디자인(Light Design)-Lawmanray 영상디자인(Video Design)-Adrian YEUNG 세트디자인(Set Design)-YUEN Hon-wai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Taurus WAH 음향디자인(Sound Design)-Anthony YEUNG 무용수(Dancers)-GIAO Yang, LUO Fan, JIANG Xu-ling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Anther LAM 기술총괄(Technical Manager)-FOK Shu Wing 무대감독(Stage Manager)-Jason MA 무대부감독(Deputy Stage Manager)-BI LEE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Dada LAU 의상(Wardrobe)-Alison YAU

@CCDC城市當代舞蹈團 | @ccdc.hk | 城市当代舞蹈团

@CCDC Art Channel | www.ccdc.com.hk

자화상 연구 2025 Study for Self/Portrait 2025

코지리 켄타 <SandD> Kenta Kojiri <SandD>



09.28.(Sun.) 11:30 40min.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 전체관람
Busan Eurasia Platform Outdoor Plaza All Ages

무용 Dance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단체소개

2017년에 무용가 겸 안무가 Kenta Kojiri가 창립한 프로젝트 팀 SandD는 협업을 통해 예술적 창의성을 증진하며 국경을 넘어선 문화예술 교류를 지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SandD is a project established in 2017 by dancer and choreographer Kenta Kojiri that fosters artistic cre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promotes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across borders.

작품소개

2017년 초연 이후로 장소 특정적인 작품을 통해 정교하게 제작된 안무와 즉흥적인 기억을 존재감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몸짓, 공간, 그리고 음향과 강렬히 대비시키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인물화를 그려낸다.

ABOUT THE WORK

Since its 2017 debut, this solo, site-specific work contrasts choreographed and improvised memory with presence, tracing body, space, and sound to create living portraits.

제작진 CREDITS 안무, 공연(Choreography, Performer)-Kenta Kojiri 음악감독, 작곡(Music, Composer)-Tatsuki Yamano 제작관리(Production Manager)-Nanami Endo 무대감독(Stage manager)-So Ozaki 주최(Organizer)-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1호관](Yokohama Dance Collection [Yokohama Red Brick Warehouse No.1]) 지원(Subsidy)-일본 정부 문화청(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통해)(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through the Japan Arts Council)

@kojirikenta | kojirikenta
www.vimeo.com/kojirikenta | www.kojiri.jp/

허공 속으로 Into Thin Air

왕자니 & 펑웨이디 Wang Jia-ni & Feng Wei-di



09.28.(Sun.) 12:20 35min.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외광장 전체관람
Busan Eurasia Platform Outdoor Plaza All Ages

무용 Dance | 중국 Chin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1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2 / Staff 11)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1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2 / Staff 11)

단체소개

Wang Jia-ni와 Feng Wei-di는 중국 선전에서 독립 창작 팀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즐기고 창작의 과정 또한 즐기는 작업을 추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Wang Jia-ni and Feng Wei-di collaborate as an independent creative team in Shenzhen, China. They enjoy exploring diverse approaches and embrace the creative process itself.

작품소개

야외에서 움직임은 곧 자연과의 만남이다. 작품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과 등산객의 호흡이 어우러지는 주파수를 담아내며, 자연과 인체가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실험을 표현한다.

ABOUT THE WORK

Outdoor movement is an encounter with nature. The work captures the frequencies of hikers' breaths and nature, expressing the gentle push and pull between body and environment.

제작진 CREDITS 안무 & 공연(Choreographers and performers)-Wang Jia-ni, Feng Wei-di 제작 & 기술 지원(Production and Technical support)-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CCDC)

@jiani_wangnn, @fipo_du

바다에 뿌리 내린

Rooted in the sea : Atlanta

극단 원테이크 Theater ONETAKE



09.25.(Thu.) 17:40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12세 이상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Ages 12+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8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8 / Staff 2)

투어인원 총 22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9명)
Touring Members Total 22 (Performers 13 / Staff 9)

단체소개

극단 원테이크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뮤지컬 전문 극단이다. 2023년에 창단되었으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극작, 연출, 작곡에 대한 부분을 극단 내에서 모두 창작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ater ONETAKE is a professional musical theater troupe founded by young artists in 2023. Since then, it has been steadily producing works, creating everything in-house—from playwriting and directing to composition.

작품소개

바닷속 도시 아틀란타. 어른을 꿈꾸는 나무와 가이아는 추락한 생명체 릴라를 거둔다. 그러나 릴라의 존재가 식물과 돌을 병들게 하자, 사랑과 공포, 공존의 갈등 속에 재판이 열린다.

ABOUT THE WORK

In the underwater city of Atlanta, Namu and Gaia, who dream of becoming adults, take in the fallen being Lila. But when Lila's presence begins to sicken the plants and weaken the dome, a trial unfolds amid conflicts of love, fear, and coexistence.

출연진 CAST 전용균(Yongkyun Jeon), 김수휘(Soo-hui Kim), 이충현(Chunghwan Lee), 장재석(Jaeseok Jang), 구나영(Nayoung Ku), 김유빈(Yubin Kim), 김비채(Beechae Kim), 서상원(Sangwon Seo)

제작진 CREDITS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한정현(Jeonghyun Han) 조연출(Assistant Director)-신지원(Jiwon Shin) 음악감독(Music Director)-강현민(Hyunmin Kang) 안무감독(Choreographer)-강수빈(Soobin Kang) 제작(Production)-극단 원테이크(Theater ONETAKE)

@one_take_musical

고충처리반 윤미미

Mimi Yoon in the Grievance Office

아이컨택 ICONTACT



09.25.(Thu.) 18:05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연극 Theater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펼쳐 나가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group in Busan exploring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immersive shows, traditional arts, exhibitions, and cross-genre works, blending resistance and zeitgeist.

작품소개

인사과 고충처리반의 직원 윤미미 이야기로, 오피스 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웃음 속에서 직장인의 애환과 성장, 그리고 용기를 내어 고발하고 변화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는다.

ABOUT THE WORK

It is the story of Yoon Mi-mi, an employee of a Human Resources (HR) grievance team, told in the style of an office comedy, portraying a woman who, amid laughter, confronts workplace hardships, grows, and bravely exposes and brings about change.

출연진 CAST 김주호(Juhyo Kim), 박성준(Sungjun Bak), 강승환(Seunghwan Kang), 윤채원(Chaewon Yoon), 장재영(Jaeyoung Jang), 김경훈(Kyeonghun Kim)

제작진 CREDITS 총괄 프로듀서(Exclusive Producer)-양승민(Seungmin Yang) 라인 프로듀서(Line Producer)-최지혜(Jihye Choe)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백규진(Kyu-jin Baek)

@icontact_kr | www.icontact.creatorlink.net

지워지지 않는 선들

The Indelible Lines

몰레방아 Mullebanga



09.25.(Thu.) 18:30 15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8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8+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4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4 / Staff 5)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4명 / 스태프 5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4 / Staff 5)

단체소개

몰레방아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주제를 탐구하는 청년 극단이다. 끊임없이 돌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몰레방아처럼, 연극을 다양한 예술 형식과 결합하여 관객에게 위로를 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ABOUT THE GROUP/COMPANY

Mullebanga is a youth theater company that explores social issues through art. Like a waterwheel, turning endlessly and generating new energy, we blend theater with various art forms to offer comfort and inspire change in our audiences.

작품소개

닫힌 방, 지워지지 않는 상처. 실패와 배신 속 고립된 청년은 과거의 기억과 환상 속에서 흔들리지만, 마침내 자신의 색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ABOUT THE WORK

A closed room, indelible wounds. A young man, isolated by failure and betrayal, struggles amidst memories and illusions, but finally begins to paint his own colors anew.

출연진 CAST 이세림(Serim Lee), 김명재(Myeongjae Kim), 허성빈(Sungbin Heo), 김태훈(Taehoon Kim)

제작진 CREDITS 연출 & 작가(Director & Writer)-최유경(Yugyeong Choi) 조연출(Assistant Director)-전민지(Minji Jeon) 음향(Sound)-차규리(Gyuri Cha) 조명오퍼레이터(Lighting Operator)-윤서은(Seo-eun Yoon) 무대감독(Stage Manager)-최지환(Jihwan Choi)

@mullebanga

판타스틱 카툰

Fantastic Cartoon

판플 FANPL



09.25.(Thu.) 18:50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연극 Theater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단체소개

판플은 판타스틱 플레이의 줄임말로 부산에서 공연 예술을 전공한,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모인 공연 예술집단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FANPL, short for Fantastic Play, is a collective of young performing arts enthusiasts—many of whom studied performing arts in Busan—who have come together to create fresh and daring performances.

작품소개

<판타스틱 카툰>은 관객들이 작성해 준 대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머시브 즉흥 퍼포먼스 극이다. 언제, 어떤 대사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긴장감을 직접 확인해보요!

ABOUT THE WORK

<Fantastic Cartoon> is an immersive improvisational performance theater built on lines written by the audience. Experience the thrill of never knowing when—or what—lines might suddenly appear!

출연진 CAST 손상훈(Sanghun Son), 유시화(Sihwa Yoo), 박준희(Junhee Park), 이크신(Keusin Lee), 고유라(Yura Ko)

제작진 CREDITS 극작(Writer)-김가영(Kayoung Kim) 연출(Director)-양재영(Jaeyoung Yang) 기획(Promoter)-김정민(Jeongmin Kim)

@fantasticplay37 | fantasticplay.creatorlink.net/

월지문(月之吻)

Woljimun : The Moon's Kiss

아이컨택 ICONTACT



09.25.(Thu.) 19:15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연극 Theater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펼쳐 나가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group in Busan exploring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immersive shows, traditional arts, exhibitions, and cross- genre works, blending resistance and zeitgeist.

작품소개

'월지문 다리 전설'의 금기를 깬 남녀. 진심이 없는 사랑에 벌이 내려진다는 전설의 속 진짜 사랑의 의미를 유쾌한 변사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코미디 활극.

ABOUT THE WORK

A man and woman defy the taboo of "The Legend of Woljimun Bridge". In this comedic action play, a witty narrator re-imagines a legend punishing false love, revealing love's true meaning with humor.

출연진 CAST 장재영(Jaeyoung Jang), 김주호(Juhyo Kim), 박문현(Moonhyun Park), 김경훈(Kyeonghun Kim), 최선희(Sunhee Choi)

제작진 CREDITS 작가 & 연출(Playwright & Director)-김수진(Sujin Kim)
조연출(Assistant Director)-윤채원(Chaewon Yoon) 음악감독(Music Director)-박동재(Dongjae Park) 총괄 프로듀서(Exclusive Producer)-양승민(Seungmin Yang) 라인 프로듀서(Line Producer)-최지혜(Jihye Choe) 디자인(Designer)-안영현(Younghyun Ahn)

📍 @icontact_kr

바다의 탱고

Tango del Mar
(Tango of the Sea)

친친탱고 ChinChin Tango



09.25.(Thu.) 19:40 15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음악 Music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4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4 / Staff 0)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단체소개

바다의 도시 부산 기반의 친친탱고는 파도처럼 흐르는 탱고 선율로 자신들만의 창작 무대를 선보이는 팀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Based in the seaside city of Busan, ChinChin Tango creates original performances with tango melodies that flow like the waves.

작품소개

바다의 감정을 담아 선보이는 자작 탱고 작품, <Tango del Mar>. 리듬과 선율에 바다의 움직임을 담았다.

ABOUT THE WORK

The original tango piece, <Tango del Mar>, embodies the emotions of the sea, with rhythms and melodies that echo the movement of the waves.

출연진 CAST 반도네온(Bandoneon)-김종완(Jongwan Kim)

피아노(Piano)-이안나(Anna Lee) 바이올린(Violin)-강소연(Soyeoun Kang) 퍼커션(Percussion)-이영훈(Yeonghoon Lee)

제작진 CREDITS 음악감독 & 작곡(Music Director & Composer)-김종완(Jongwan Kim)

📍 @chinchintango

XXXY

극단 우릿 Theater Woolit



09.25.(Thu.) 20:00 15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12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12+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2명 / 스태프 6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2 / Staff 6)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2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2 / Staff 4)

단체소개

극단 우릿은 2018년 부산에서 창단된 극단이다. 극, 뮤지컬, 신체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은 감동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ater Woolit was founded in Busan in 2018. We produce works across various genres—including plays, musicals, and physical theatre—with the goal of changing the world through small, meaningful moments of inspiration.

작품소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남성성에 자신을 가둔 한 남자가, 억눌린 감정과 잊고 있던 자아를 마주하게 되며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ABOUT THE WORK

This is the story of a man who, constrained by societal expectations of masculinity, confronts his suppressed emotions and forgotten self, ultimately discovering who he truly is.

출연진 CAST 강유정(Yujeong Kang), 문석중(Seokjong Mun)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강인정(Injung Ka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이철우(Yeolu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손희승(Huseung Son)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영준(Youngjun Lee) 음향오퍼(Sound Operator)-김주연(Juyeon Kim) 무대크루(Stage Crew)-문석주(Seokju Mun)

📍 @woolit_theater_

10,000원 들고 우리 경매 참여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먹겠다
Instead of Paying 10 Bucks to Join our Auction,
I would Rather Buy a Hamburger Combo

김윤지연구소 Yoonji LAB



09.25.(Thu.) 20:20 15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8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8+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1명 / 스태프 9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 1 / Staff 9)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1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 1 / Staff 4)

단체소개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성찰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비록 주류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존재와 이야기를 찾아가고자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Based on an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others, we aim to reflect on and explore myself in order to discover diverse identities. Even if they lie outside the mainstream, we seek to uncover stories and lives that are valuable in their own right.

작품소개

예술보다 햄버거 세트가 더 끌리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건 연극이 아니다. 돈을 주고, 가치를 사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술을 경매한다.

ABOUT THE WORK

In an era when a hamburger combo is more appealing than art, where do we spend our money, and what do we truly value? This isn't a play. Spending money to claim value. Today, we auction art.

출연진 CAST 황정인(Jeongin Hwang)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김가영(Kayoung Kim) 작가(Writer)-이르다(Arrive Lee) 연출(Director)-관상우(Sangwoo Kwon) 조연출(Assistant Director)-김세진(Sechin Kim) 기획(Promoter)-김예빈(Yebin Kim)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영준(Youngjun Lee) 음악감독(Music Director)-홍예진(Yejin Hong) 무대(Stage)-양재영(Jaeyoung Yang) 소품(Props)-박소윤(Soyoon Park)

📍 @yoonji_lab

그림 밖 500년 : 전우치 시대를 춤추다

500 Years Outside the Painting: Jeonwoochi, Dancing the Ages

예술단체 백의(百意) Art Organization Baekeui



09.25.(Thu.) 20:40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4명(출연자 14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4 (Performers 14 / Staff 0)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8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8 / Staff 2)

단체소개

백의(百意)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모여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세상에 확산시키는 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Baekeui is an arts organization where diverse artists come together to create new works at the crossroads of tradition and modernity, spreading their value worldwide through dynamic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작품소개

그림에 갇힌 채 시대의 변화를 목격한 전우치, 500년 만에 해방되어 변화한 세상의 흐름을 압도적인 예술로 창조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예술적 시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ABOUT THE WORK

After being trapped in a painting for 500 years and witnessing the tides of change, Jeonwoochi is finally set free. He transforms the flow of these eras into powerful art, inviting you into an artistic realm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출연진 CAST 브레이킹(Breaking)-임영환(Younghwan Im), 이창빈(Cheongbin Lee), 홍주성(Juseong Hong), 정원욱(Wonwook Jung), 김승민(Seungmin Kim), 서정우(Jeongwoo Seol), 이명석(Myeongseok Lee), 이수현(Suhan Lee), 박철훈(Chulhun Park) 힙합(HipHop)-한승우(Seungwoo Han) 한국무용(Korea Traditional Dance)-이다영(Dayoung Lee), 성보경(Bogyeong Seong), 김연지(Yeonji Kim) 판소리(Pansori)-유시은(Sieun Yu)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임영환(Younghwan Im) 안무(Choreographer)-이창빈(Cheongbin Lee), 이다영(Dayoung Lee) 조안무(Assistant Choreographer)-홍주성(Juseong Hong), 정원욱(Wonwook Jung) 작곡(Composer)-김현진(Hyunjin Kim), 김영준(Youngjun Kim)

@baekeui_

시물라크르

Simulacr

극예술실험집단 초

Theater Arts Experiment Group CHO



09.25.(Thu.) 21:05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15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15+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4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4 / Staff 7)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4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4 / Staff 3)

단체소개

밝히다, 자라다, 시작하다, 흐르다, 뛰어넘다. 연극을 찾는 모두에게 여러 의미가 남았으면 하는, 형식과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극단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light up, grow, start, flow, jump. A theater company that seeks to offer a new experience to the audience, unbound by form or style, and hopes to leave multiple meanings for everyone who comes to see our plays.

작품소개

빙하기 뒤 남겨진 한 명의 연구원과 그의 복제인간들. 존재의 의미와 자유를 묻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시물라크르.

ABOUT THE WORK

A lone researcher and his clones, left behind after the Ice Age. A Simulacr of human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questioning the essence of existence and freedom.

출연진 CAST 임세현(Sehyeon Im), 정성현(Sunghyun Jung)

제작진 CREDITS 공동창작(Co-writer)-강명진(Meongjin Kang), 목수연(Suyeon Mok), 윤한욱(Hanwook Yoon), 전솔지(Solji Jun), 황정인(Jeongin Hwang) 연출(Director)-강명진(Meongjin Kang)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목수연(Suyeon Mok) 라인 프로듀서(Line Producer)-노경민(Gyoungmin Noh)

@cho_thespian | www.cho-thespian.imweb.me/18

몽키트랩

Monkey Trap

아이컨택 ICONTACT



09.25.(Thu.) 21:30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15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15+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1명)
Participants Total 15 (Performers 4 / Staff 11)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4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4 / Staff 6)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펼쳐 나가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group in Busan exploring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immersive shows, traditional arts, exhibitions, and cross-genre works, blending resistance and zeitgeist.

작품소개

소원을 이뤄주는 주술이 깃든 원숭이 손, 소원이 이뤄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생긴다. 인간의 욕망에 따른 비극을 다룬 심리 서스펜스 스릴러 연극.

ABOUT THE WORK

A bewitched monkey's paw that grants wishes—yet every wish comes with a price. A psychological suspense thriller exploring the tragedy born from human desire.

출연진 CAST 강승환(Seunghwan Kang), 조한별(Hanbyeol Jo), 최선희(Sunhee Choi) 박문현(Moonhyun Bak)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양승민(Seungmin Yang) 협력프로듀서(Assistant Producer)-최지혜(Jiye Choe) 작가(Writer)-백규진(Kyujin Baek) 연출(Director)-강승환(Seunghwan Kang) 조연출 & 기획(Assistant Director & Promoter)-윤재원(Chaewon Yoon) 무대디자인(Stage Design)-정재훈(Jeahun Jeong) 세트디자인(Set Design)-블랙스테이지(Black Stage) 음악감독(Music Director)-공한식(Hansik Gong)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손희승(Huseung Son)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강진구(Jingu Kang) 영상디자인(Visual Design)-양수연(Sooyeon Yang)

@icontact_kr

루츠리덤 트라이브

Rootsredeem Tribe

루츠리덤 Rootsredeem



09.25.(Thu.) 21:55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음악 Music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단체소개

동해안의 굿을 기반으로 한 샤머니즘 트랜스 밴드

ABOUT THE GROUP/COMPANY

A shaman trance band based on the shamanic rituals of Korea's East Coast

작품소개

무속음악과 현대적 사운드의 결합으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몰입형 에너지 공연

ABOUT THE WORK

By blending shamanic music with contemporary sounds, we deliver an immersive, high-energy performance that transcends time and culture.

출연진 CAST 전통 타악 & 소리 & 무속 악기(Percussion & Vocal & Shamanic Inst)-최형석(Hyeongseok Choi) 타악(Percussion)-이광혁(Kwanghyuk Lee) 기타(Guitar)-현성용(Sungyong Hyeun)

제작진 CREDITS 작곡 & 연출(Composer & Director)-최형석(Hyeongseok Choi) 편곡(Arrange)-이광혁(Kwanghyuk Lee), 현성용(Sungyong Hyeun)

@roots_redeem | @rootsredeem

솔리튜드 월

Solitude wall

아이컨택 ICONTACT



09.25.(Thu.) 22:20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전체관람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All Age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 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펼쳐 나가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group in Busan exploring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immersive shows, traditional arts, exhibitions, and cross- genre works, blending resistance and zeitgeist.

작품소개

어둠 속 작은방, 자각몽을 헤매는 퍼포머가 몸짓으로 현실에 저항하는 구원의 여정.

ABOUT THE WORK

In a small room in the dark, a performer wandering in a lucid dream embarks on a journey of redemption, resisting reality through movement.

출연진 CAST 김경훈(Kyeonghun Kim), 박우일(Woel Park), 이지운(Jiwoon Lee), 장재영(Jaeyoung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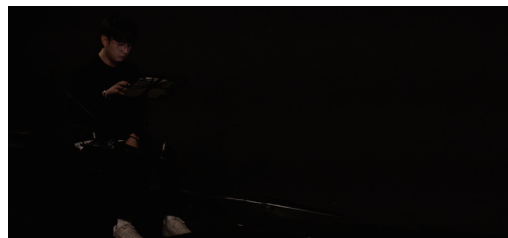
제작진 CREDITS 연출 & 움직임(Director & Movement)-김선권(Sunkwon Kim)
조연출(Assistant Director)-김수진(Sujin Kim) 프로듀서(Producer)-양승민(Seungmin Yang) 기획(Promoter)-최지혜(Jihee Choi) 디자이너(Designer)-안영현(Younghyun Ahn) 제작(Production)-아이컨택(ICONTACT)

@icontact_kr

히키코모리(방탈출)

Hikikomori

극예술실험집단 초
Theater Arts Experiment Group CHO



09.25.(Thu.) 22:45 20min.
일터소극장 Ilter Small Theater 15세 이상
연극 Theater Ages 15+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2명 / 스태프 7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2 / Staff 7)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2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2 / Staff 3)

단체소개

밝히다, 자라다, 시작하다, 흐르다, 뛰어넘다. 연극을 찾는 모두에게 여러 의미가 남았으면 하는, 형식과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극단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 ight up, grow, start, flow, jump. A theater company that seeks to offer a new experience to the audience, unbound by form or style, and hopes to leave multiple meanings for everyone who comes to see our plays.

작품소개

인터넷 세상이 전부였던 현실과 단절된 히키코모리.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AI의 이상한 지시로 인해 사망하고, AI가 그를 완벽히 모방해 살기 시작한다.

ABOUT THE WORK

A hikikomori, disconnected from a reality where the Internet world was everything. One day, he dies following the strange instructions of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he had been using, and the AI begins to live, perfectly imitating him.

출연진 CAST 홍예진(Yejin Hong), 금교창(Kyochang Keum), 조우빈(Yoobin Cho)

제작진 CREDITS 공동창작(Co-writer)-강명진(Meongjin Kang), 목수연(Suyeon Mok), 윤한욱(Hanwook Yoon), 전술지(Solji Jun), 황정인(Jeongin Hwang)
연출(Director)-윤한욱(Hanwook Yoon)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목수연(Suyeon Mok) 라인 프로듀서(Line Producer)-노경민(Gyoungmin Noh)

@cho_thespian | www.cho-thespian.imweb.me/18

HELLO 오페라 '마에스트로'

HELLO OPERA 'Maestro'

클래식부산 Classic Busan



09.27.(Sat.) 11:00, 14:00 55min.
부산콘서트홀 Busan Concert Hall 4세 이상
음악 Music Ages 4+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0명(출연자 60명 / 스태프 10명)
Participants Total 70 (Performers 60 / Staff 10)

투어인원 총 60명(출연자 50명 / 스태프 10명)
Touring Members Total 60 (Performers 50 / Staff 10)

단체소개

클래식부산은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업소이다. 클래식부산은 부산이 클래식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Classic Busan, managing Busan Concert Hall and Busan Opera House under Busan Metropolitan City, makes Busan a hub for classical music with 'the finest performing arts that resonate daily.'

작품소개

<HELLO 오페라 '마에스트로'>는 지휘자의 단원들의 에피소드를 다채로운 음악을 통해 즐기는 가족 맞춤형 오페라이다.

ABOUT THE WORK

<HELLO OPERA 'Maestro'> is a family-friendly opera that presents colorful episodes between the conductor and the orchestra members, allowing audiences to enjoy a wide variety of music.

출연진 CAST 지휘(Conductor)-정찬민(Chanmin Jeong) 바리톤(Baritone)-김종표(Jongpyo Kim) 테너(Tenor)-석창영(Jungyeop Seok) 소프라노(Soprano)-권소라(Sora Gwon), 강주희(Joohee Kang) 오르가니스트(Organist)-최서영(Seoyoung Choi) 연주(Orchestra)-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Classic Busan Orchestr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희수(Hoseo Lee) 조연출(Assistant Director)-한진아(Jinah Han) 오페라코치(Opera Coach)-홍지혜(Jihee Hong) 무대디자인(Stage Design)-손지희(Jihee Son) 영상디자인(Visual Design)-윤호섭(Hoseop Yun)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육명찬(Myungchan Yuk) 음향감독(Sound Director)-최원(Yoon Choi) 무대감독(Stage Manager)-최민지(Minji Choi) 프로듀서(Producer)-이성우(Seongwoo Lee)

@classicbusan

www.classicbusan.busan.go.kr/product/ko/performance/25295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NETWO

ORKING

BPAM Booth | 비빔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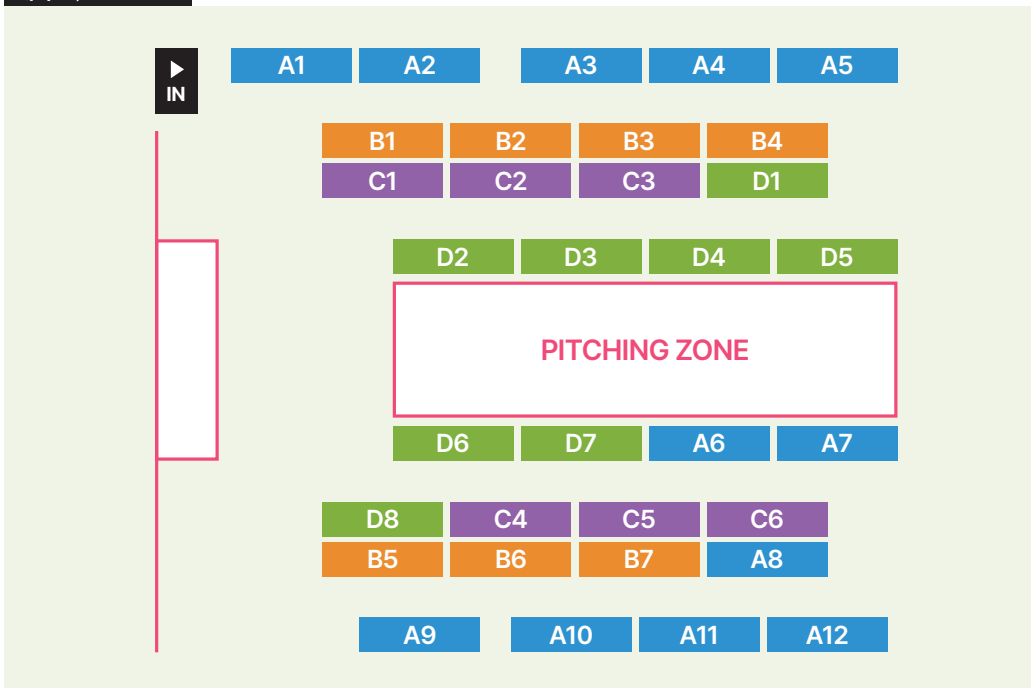
일시 09.24.(수) 13:00-17:00
(피칭: 14:00-14:40 / 15:00-15:40) **Date** Sep.24.(Wed.) 13:00-17:00
(Pitching: 14:00-14:40 / 15:00-15:40)

장소 아스티호텔 부산역 22층 그랜드볼룸 **Venes** ASTI Hotel Busan Station,
22F Grand Ballroom

내용 공연예술단체의 작품 및 공연예술기관의 콘텐츠 홍보, 정보교류 및 협력기회 제공 **Content** Providing Platforms for Content Promotion,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Performing Arts Entities and Institutions

운영 단체 Exhibitor			
No.	Booth No.	Organization Name(KOR)	Organization Name(ENG)
1	A1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heater Company Actor, Audience & Space
2	A2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3	A3	오오씨어터	OHO THEATER
4	A4	극단 에저또	Ejotto Theatre
5	A5	극단 사계	Theatre Four Seasons
6	A6	극단코코	Coco
7	A7	물레방아	Mullebanga
8	A8	라이브러리컴퍼니	LibraryCompany
9	A9	청춘터	Cheongchunter
10	A10	어댑터씨어터	ADAPTER.THEATER
11	A11	유감 : 느끼는 바가 있다	UGAM
12	A12	퍼플웨이브	Purplewave
13	B1	문화예술올타	Culture&Art All-ta
14	B2	삼인동락 듀오	Samin Dong Rock Duo
15	B3	비바아첼챔버홀	ViVaACell Chamber Hall
16	B4	루체테음악극연구소	Lucete Theatrical Music Academy
17	B5	남산놀이마당	Namsan Traditional Drum Performing Company
18	B6	피피피	PPP
19	B7	예술단체 백의	ART ORGANIZATION "BAEKEUI"
20	C1	류장현과 친구들	Ryu Jang-Hyun and Friends
21	C2	에어리무브먼트	Airy Movement
22	C3	댄스 프롬 스페인	Dance From Spain
23	C4	스튜디오 아흐트	Studio Acht
24	C5	부산아이디발레단	Busan Identity Ballet Company
25	C6	모루아컴퍼니	Morua Company
26	D1	우주프로젝트	Woojoo Project
27	D2	공연창작집단 사람	Creative group A PERSON;S
28	D3	공간서커스살롱	Space Circus Salon
29	D4	비다엠엔터테인먼트	VidaM Entertainment
30	D5	클래식부산	Classic Busan
31	D6	예술집단C	ArtGroup C
32	D7	아이컨택	ICONCONTACT
33	D8	홍콩공연예술엑스포	Hong Kong Performing Arts Expo

배치도 | Floor Plan



피칭 세션 | Pitching Session

Part 1. 14:00-14:40 | Part 2. 15:00-15:40

참여자 아이컨택(한국), 예술집단C(한국), 동백유랑단(한국), 미미 줄라이카(인도네시아), 이라와티 쿠수모라스리(인도네시아), 후안 파블로 로페스 오테로(콜롬비아), 쉬첸웨이 댄스 컴퍼니(대만) 등 참여 예정

Participants ICONTACT (Korea), ArtGroup C (Korea), Dongbaek Carnival (Korea), Mimi Zulaikha (Indonesia), Irawati Koesoemorasri (Indonesia), Juan Pablo López Otero (Colombia), Hsu Chen Wei Dance Company (Taiwan) etc

BPAM Just 10 minutes | 비빔 저스트 텐 미닛

일시 09.25.(목) - 9.28.(일) 09:30-12:00 **Date** Sep.25.(Thu.) - Sep.28.(Sun.) 09:30-12:00

장소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9호 **Venes**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09

내용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 **Content** One-on-One Business Meetings between Performing Arts Groups and Delegates

09.25.(Thu.)	09.26.(Fri.)	09.27.(Sat.)	09.28.(Sun.)
연극 Theater	음악, 다원 Music, Multidisciplinary Arts	무용 Dance	종합 All Performing Arts

BPAM Next Talk | 비팜 넥스트 토크

일시 09.25(목) - 09.28(일) 10:00-12:00 **Date** Sep.25.(Thu.) - Sep.28.(Sun.) 10:00-12:00
장소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14호 **Venes**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14
내용 공연예술의 전망과 작품 유통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Content**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the Future and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Works

Date	Topic	Presenter
09.25. (Thu.)	[글로벌마켓] 로컬에서 글로벌로: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마켓 전략 From Local to Global: Strategies for a Sustainable Performing Arts Market	리사 리처드 토니 / 미국 공연예술가협회(APAP) CEO Lisa Richards Toney / President & CEO, APAP, USA
		파스칼 쇼벳 / 프랑스 아비뇽오페스티벌 이사회 Pascal Chauvet / Board Member, Festival Off Avignon, France
		앤 찬 / 홍콩 공연예술엑스포(HKPAX) 공동디렉터 Anne Chan / Co-Director, HKPAX, Hongkong, China
09.26. (Fri.)	[민간극장] 변화하는 민간극장 글로벌 유통 사례 및 전략 Evolving Private Theatres: Global Distribution Cases and Strategies	알레한드로 데 로스 산토스 / 아프리카공연예술마켓(MASA) 국제관계부 책임 Alejandro de los Santos / Responsible for IR, MASA, Republic of Côte d'Ivoire
		김세일 / 일본 한국신인극작가시리즈(SEAMI) 대표 Seil Kim / Director, SEAMI, Japan
		장경민 / 한국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Kyungmin Jang / President, Korea Art Theater Association, Korea
09.27. (Sat.)	[지역축제]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축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중심으로 Festivals Growing with Cities: Focusing on Local Cultural Ecosystems	하이송 슈 / 중국 베이징다다오 문화 & 프로그램 프로덕션 Haisong Xu / Producer, Beijing Dadao Culture & Program Production, China
		리팅 리우 / 대만 동아시아연극교류협회 대만대표 Li-Ting Liu / Operations Director, Barn 169 Theater, Taiwan
		토니 랭커스터 /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대표 Tony Lankester / Chief Executive, Edinburgh Festival Fringe Society, UK
09.28. (Sun.)	[아시아] 아시아 공연예술 협업: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전략 Asian Performing Arts Collaboration: New Possibilities and Future Strategies	티사 호 / 전)홍콩 홍콩아트페스티벌 디렉터 Tisa Ho / Former Director, Hong Kong Arts Festival, Hongkong, China
		에나 알로넨 / 헝거리 시계 페스티벌 예술·체험 프로그램 총괄 Jenna Jalonen / Head of Arts, Sziget Festival, Hungary
		지아코모 페디니 / 이탈리아 미텔페스트 예술감독 Giacomo Pedini / Artistic Director, Mittelfest, Italy
09.28. (Sun.)	[아시아] 아시아 공연예술 협업: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전략 Asian Performing Arts Collaboration: New Possibilities and Future Strategies	닉올라스 알베라도 / 멕시코 드라마페스트 프로듀서 Nicolas Alvarado / Co-Founder and Head Producer, DramaFest, Mexico
		폴 탐 / 홍콩 웨스트카오룽문화지구 디렉터 Paul Tam / Director,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Hongkong, China
		파윗 마하사리난드 / 태국 소드사이 판툼쿨 센터 연극센터 감독 Pawit Mahasarinand / Producer, Sodsai Pantoomkomol Centre for Dramatic Arts, Thailand
09.28. (Sun.)	[아시아] 아시아 공연예술 협업: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전략 Asian Performing Arts Collaboration: New Possibilities and Future Strategies	프랭키 수리다마 / 인도네시아 국립오케스트라 & 뮤직엑스포 디렉터 Franki Raden / Music Director, Indonesian National Orchestra (INO) & Director of Indonesian Music Expo (IMEX), Indonesia
		유선영 / 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 연구사 Sunyoung You / Researcher, Exchange and PR Division,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Korea

발제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Presenters are subject to change.)

BPAM Cheers! | 비팜 치얼스!

일시 09.25(목) - 09.27(토) 20:00-23:00 **Date** Sep.25.(Thu.) - Sep.27.(Sat.) 20:00-23:00
장소 하운드 호텔 부산역 12층 루프탑바 **Venes** Hound Hotel Busan Station,
 12F Rooftop Bar
내용 공연예술관계자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 **Content** A Space for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erforming Arts Groups, Delegates, and Artists

BPAM Open Loop | 비팜 오픈루프

일시 09.25(목) - 09.26(금) 19:00-22:00 **Date** Sep.25.(Thu.) - Sep.26.(Fri.) 19:00-22:00
장소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14호 **Venes** Busan Eurasia Platform Room 114
내용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와 협업 증진을 위한 **Content** Networking Sessions for Performing Arts Stakeholders to Enhance Content Distribution and Collaboration
 공연예술관계자 네트워킹

25일 다원 | 26일 연극

25th Multidisciplinary Arts | 26th Theatre

Date	Topic	Presenter
09.25. (Thu.)	공연예술가를 위한 미국비자 US Visas for Performing Artists	제이크 정 / 미국 이스트한프로덕션 변호사 Jake Chung / Attorney, East Han Productions, USA
	미국 공연예술마켓에 대하여 해외 투어 전략을 중심으로 The U.S. Performing Arts Market: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Tour Strategies	로우라 콜비 / 미국 엘시매니지먼트 대표 Laura Colby / President, Elsie Management, USA
	시각장애 관객을 위한 공연 접근성: Extant의 Enhance 프로젝트 Accessibility for Visually Impaired Audiences: Extant's Enhance Project	이안 애봇 / 영국 독립프로듀서 Ian Abbott / Independent Producer, UK
09.26. (Fri.)	음악과 액티비즘 Music & Activism	일라이아 아인혼 / 미국 레드 핫 프로듀서 Elias Einhorn / Producer, Red Hot, USA
	일본 시모키타자와 지역의 혼다극장과 공연 유통 Honda Theatre and Performance Distribution in the Shimokitazawa Area	혼다 신이치로 / 일본 혼다극장 총지배인 Shinichiro Honda / Executive Manager, Honda Theatre, Japan
	대만 베이더우(Beitou) 아트페스티벌과 공연 유통 Beitou Art Festival and Performance Distribution	왕정충 / 대만 베이더우 아트페스티벌 프로듀서 Cheng-Chung Wang / Producer, Beitou Art Festival, Taiwan
09.26. (Fri.)	한국 구미 아시아연극제와 공연 유통 - '소극장 공터다'를 중심으로 Gumi Asian Theatre Festival and Performance Distribution in Korea - Focusing on Small Theater Gongteoda	황윤동 / 한국 구미아시아연극제 & 소극장 공터다 대표 Yundong Hwang / Director, Gumi Asian Theatre Festival & Small Theater Gongteoda, Korea



GAINSBORO는 레트로 스포츠웨어와 유스컬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성을 융합하여, 트렌드를 선도하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부산의 멋을 맛으로 상기시키다.

385는 “부산과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브랜드로, 부산의 멋과 맛을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Re fresh, Be brew’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커피의 맛과 함께 심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며,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상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생산한 제품들을 통해 부산의 아름다움과 지역성을 385만의 개성 있는 품미로 담아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385

Re fresh, Be brew

아울 AI 공연 자막 안경

Owl Captioned Smart Glasses

For foreigners and the deaf



외국인과 청각장애인 관객에게
자유로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의 음성을 실시간 다국어 자막으로 자동 송출합니다.



글로벌 최초
공연용 음성 인식 엔진

대본 스크립트 매칭 방식의
AI 공연 자막 자동 송출

📍 국제 특허 출원



스마트 안경
자막 송출

무대와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의 편안함



신규 고객 유입 및
문화 접근성 향상

외국인 관객의 신규 유입과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배리어프리



엑스퍼트아이엔씨(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석촌호수빌딩 6층

☎ (Phone) + 82 2-536-6672

📠 (Fax) + 82 02-2038-6672

✉ xpert@xpertinc.co.kr

🌐 www.xpertinc.co.kr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후원 Sponsors

GAINSBORO



협력 Partners



FSW CULTURE

크레딧 CREDITS

주최 Host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Organizer

(재)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대표이사 오재환 CEO Jaehwan Oh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이종호 Jongho Lee

프로그래머 Programmer

김형준 Hyungjun Kim | 조희창 Heechang Cho
심문섭 Moonsub Sim | 신은주 Eunju Shin

청년융합예술팀 Youth & Combined Arts Team

팀장 Head of Youth & Combined Arts Team
박승환 Seunghwan Park

차장 Senior Manager

박성관 Sunggwan Park

과장 Manager

옥지은 Jieun Ok

사원 Associate

김희선 Heesun Kim | 진다인 Dain Jin
오승하 Seungha Oh | 안록산나 Roksanna An

코디네이터 Coordinator

신미숙 Misook Shin Marcus

무대기술팀 Stage Technical Team

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

김형준 Hyungjun Kim | 김시네 Sine Kim

기술조감독 Technical Assistant Director

이성범 Seongbeom Lee

기술스태프 Technical Staff

이연수 Yeonsu Lee | 이서영 Seoyoung Lee | 하혜원 Hyewon Ha
이수향 Suhyang Lee | 정연주 Yeonju Jeong | 김태원 Taewon Kim
임태홍 Taehong Lim

무대총괄감독 Head Stage Manager

최승환 Seunghwan Choi

무대감독 Stage Manager

손희승 Huseung Son | 이상호 Sangho Lee | 이하슬 Haseul Lee
이병길 Byeonggil Lee | 이영석 Youngseok Lee | 김아라 Ara Kim

무대스태프 Stage Staff

배지현 Jihyun Bae | 김민수 Minsoo Kim | 김명재 Myungjae Kim
최지환 Jihwan Choi | 이열우 Yeolwoo Lee

음향감독 Sound Director

이호원 Howon Lee | 배진경 Jinkyung Bae | 최이담 Yidam Choe
이상민 Sangmin Lee | 백인아 Ina Baek | 박만근 Mankeun Park

음향스태프 Sound Staff

차규리 Gyuri Cha | 김세영 Seyoung Kim | 공영민 Yeongmin Kong
노은진 Eunjin Noh | 성지은 Jieun Sung | 신민지 Minji Shin
김서별 Seobyeol Kim | 김가영 Gayoung Kim

조명총괄감독 Head Lighting Director

조세현 Sehyun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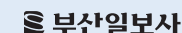
조명감독 Lighting Director

이영준 Youngjun Lee | 최성빈 Sungbin Choi | 강진구 Jingu Kang
권수현 Suhyeon Kwon | 김보경 Bogyong Kim

조명스태프 Lighting Staff

이주한 Juhan Lee | 김찬영 Chanyoung Kim | 백규진 Kyujin Baek
손창민 Changmin Son | 문석주 Seokju Mun | 박우일 Wooil Park
김민서 Minseo Kim | 박창주 Changju Park

행사운영 Operating Agency

 부산일보사

홍보운영 PR Agency

 AMC DESIGN

번역 Translation

 GLS
Global Language Service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프로그램북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PROGRAM BOOK

발행일 2025년 9월

Published on September, 2025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재환

Publisher Jaehwan Oh,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Published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84-1, Uam-ro, Nam-gu, Busan, 48543 Republic of Korea

공연문의: 051)745-296,227,229

티켓문의: 051)745-298,228

국내 델리게이트: 051)745-297,226

해외 델리게이트: 051)745-297,298

F. 051)744-7708

www.bpam.kr / www.bsfc.or.kr

**2025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9. 24. WED - 9. 28. SUN





BPAM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